

연구보고 2010-05

예비부모교육 실태와 내실화 방안 연구

김은설
최윤경
조혜주
김선화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아동발달 연구 분야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떤 사고와 태도로 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키우는가가 그 아이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자녀의 성격발달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부모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람직한 부모 역할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교육을 받아 왔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한 사람의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역할과 기술을 익히기 위한 일정기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의사나 교사, 기술자 등의 전문직업은 장기간의 교육을 요구하고 자격심사를 필요로 합니다.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하는 직업조차 그 직업에 필요한 소양과 기술을 최소한의 기간 동안 습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부모라는 역할은 그러한 형식적인 교육이 필요한지 않는 일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자녀 양육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해 왔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2010년 기본연구과제 중 하나인 '예비부모교육 실태와 내실화 방안 연구'는 아직은 부모가 아닌, 앞으로 부모가 되어 살아갈 젊은이들에게 부모됨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올바른 사회인으로 키워갈 수 있는 밑거름을 가르친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현재 자신이 속한 가족 내에서 관계 개선과 더 나아가 인간의 생에 대한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양교육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출산과 육아 친화적 태도를 함양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10대 미혼모가 사회문제가 되어가는 오늘날 이와 관련한 국가정책적 측면에도 젊은이, 청소년에 대한 예비부모교육의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일 것입니다. 본 연구가 보여주는 결과물이 이와 같은 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성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요 약

1. 서론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미혼 성인,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의 현황, 내용, 참여 등 실태를 조사하여 성, 연령, 지역 변인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점, 요구 등을 파악하여 예비부모교육을 내실화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중장기적으로 예비부모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출산력 제고의 밑거름이 되는 부모됨의 인식 및 가치관 제고, 그리고 향후 미래인적자원의 육성 주체인 부모에게 올바른 역할수행과 양육지식을 제공하여 부모됨에 필요한 준비를 부모가 되기 이전 미리 갖추도록 하고, 또한 예비부모교육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되도록 함에도 연구의 목적을 둬.

2. 연구내용

- 예비부모 교육의 개념 및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통해 예비부모 교육 연구의 방향과 의의를 명료화 함.
- 국내외 예비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와 운영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각 프로그램의 장단점과 개선 사항을 검토함.
- 현재 우리나라 예비부모 교육의 실태와 요구도 파악을 위해 청소년 및 대학생, 미혼 성인 등의 교육 참여의 실태와 이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의견을 조사함.
-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연령별, 성별 구분에 의한 예비부모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고교 및 대학, 성인 교육과정내 적용 등 예비부모 교육 내실화 방안을 제시함.

3. 연구 방법

- 고등학교 교과서를 포함하여, 국내·외 예비부모교육 현황 및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수집·분석하고, 선행연구를 고찰함.
-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관(예: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석 경험자(예: 교양과정 수강 대학생, 고등학생), 고등학교 가정·기술 교사, 고등학생/대학생 등 관련자 간담회를 갖고, 예비부모교육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
- 예비부모교육 대상자 및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교육주체별·연령별·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전국단위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전국 6개권역 93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 관련 교과목 수강 여부 등 학교내외의 예비부모교육 경험과 이에 대한 만족도 평가와 의견, 부모됨 및 결혼·가족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일대일 면접 조사함.
 - 전국 6개권역 770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내외의 예비부모교육 경험과 이에 대한 만족도 평가와 의견, 부모됨 및 결혼·가족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일대일 면접 조사함.
 - 전국 16개시도 1000개의 고등학교를 무선표집하여 각 학교 기술·가정 교과 담당 교사들에게 현재 교과 수업 현황과 고등학생에 대한 예비부모교육의 개선 의견 등을 우편 조사하여, 총 269명의 교사의 응답을 회수함.
 - 일반 남녀 성인의 예비부모교육 수강 경험에 대한 실태 및 의견조사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10곳과 종교기관 3곳의 예비부모교육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과 예비부모교육의 경험, 인식 등을 설문 조사함.
 - 대학에서의 예비부모교육 관련 교양강좌 개설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총 373개 대학 전수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함.

II. 이론적 배경

1. 예비부모교육의 개념

- 예비부모교육은 대상자들에게 부모됨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에

게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가르치며, 자녀양육에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으로, 부모가 되기 전부터 전 생애동안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생애 맥락적 과업임.

-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자녀발달과 부모의 역할, 부모됨의 동기와 양육태도 및 구체적 양육지식, 부모교육 이론과 프로그램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함.
- 동일한 이론적 배경과 예비부모교육 내용에 근거하여도, 대상의 특성과 처한 상황, 요구에 따라 구체적 내용은 달라지며, 특히 청소년기, 청년기,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 등 생애주기별 발달단계에 따라 중점이 되는 내용이 다름.

2.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 예비부모교육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 주로 서구사회에서 유입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용, 운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애착증진 프로그램, 의사소통향상 프로그램, 부모효율성 훈련 프로그램,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 자기이해 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놀이치료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음. 부모가 된 이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발전된 형태가 많음.
-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다양한 내용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체험과 실습, 참여, 상담의 교육방법 적용이 요구되며, 가치관 형성과 지식 전달에 머물지 않는 경험중심의 행동 훈련과정과 구체적 정보획득의 방법 등 실천적 학습이 필요함.

III. 예비부모교육 실태

- 국내 예비부모교육의 현황을 학교, 정부, 사회단체,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문헌고찰, 관련자료 검색, 및 방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정부 지원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저출산 극복 사회운동, NGO 사회단체 및 육아지원기관의 교육활동, 종교기관, 그리고 기타 사설 상담기관과

문화센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예비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충실도와 지속성 면에서 부족하여 일회성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임.

1. 고등학생의 예비부모교육 실태

- '고등학교 시기'에 이루어지는 예비부모교육의 현황을 학교 내·외로 구분하여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고등학교 교사 등 4개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고등학생의 경우 대부분 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교과외 경험은 거의 전무함. 대학생의 77%, 성인의 10%가 고등학교 시기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 연령별 예비부모교육에의 경험과 인식, 인지의 차이가 드러남. 대학생의 경우 대학이후 교육을 받은 비율은 8.7% 이하, 대학교육에 의한 경우는 6.4%에 불과함.
- 고등학교 시기에는 학교에서 기술·가정 교과목을 통해 주로 강의와 시청각 자료의 활용을 통해 1학년 때에 이루어지며, 실습 비율은 3.6%에 불과함.
- 대학생의 43.4%, 성인의 5%가 과거 고등학교 때 기술·가정 교과목을 통해 배운 예비부모교육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고 응답, 예비부모교육으로서의 기술·가정 교과목의 인지율이 낮은 편으로 조사됨.
-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36.9%, 39.0%)과 가정의 구성과 부모의 역할(25.6%, 29.2%)로 나타나, 고등학생과 대학생 간에 큰 차이가 없음.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신·출산 및 아이돌보기에 대한 인지가 더 높고 남학생은 가정의 구성과 부모역할에 대해 더 많이 인지해, 성차가 나타남.
-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목 담당교사들은 수업진행의 애로사항으로 시청각 자료(32.0%) 및 교재교구(20.4%)의 부족, 교과서 내용의 불충분(13.4%), 실습교육의 불가능(10.8)의 순으로 응답함.
- 교과목 이외의 예비부모교육의 실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10.8%의 학교(5~13 사례)에서 현재 '있다'고 응답하였고, 대학생의 경우 23%가

‘있었다고 회상, 대체로 비교과 예비부모교육의 실시는 저조함. 주로 재량수업과 졸업/수능 특강에 의한 것으로 조사됨.

- 고등학교 시기, 학교 밖 예비부모교육 실태로 고등학생 (1~2학년) 99.6%, 대학생 89.0%가 ‘없다’고 응답함. 대학생 유경험자의 경우 사회단체(6.1%)와 종교단체(3.1%)에서 받은 것으로, 인구학적 특성별로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종교를 가진 경우일수록 학교 밖 예비부모교육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2. 대학생의 예비부모교육 실태

- 77.1%가 지금껏 예비부모교육을 배운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유경험 응답 대학생 중 97.9%가 고등학교에서, 8.3%가 대학, 1.3%가 군대에서 받았다고 응답, 매우 적은 비율의 대학생이 대학시기에 예비부모교육을 받고 있음.
- 4년제 대학의 약 53%가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교양필수로는 7.8% 대학이 개설하였고, 대학생의 8%정도만이 이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남.
-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경우가 더 많았으며, 주로 교양선택과정(57.8%)을 통해 부모교육(38.3%), 결혼(20.0%) 관련 교과목을 듣는 것으로 조사됨. 수업내용으로는 부모역할 및 책임(64.1%), 현대가족의 이해 및 가족의 중요성(51.6%), 아동발달 지식(48.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90.3%가 강의방식을 통해 진행함.

3. 성인의 예비부모교육 실태

- 현재 받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종교기관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외에 지금껏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10.0% (23사례)만이 있다고 응답, 고등학교 시기의 기술·가정 교과목을 통한 예비부모교육을 인식하지 않은 결과로 이해됨. 유경험자의 경우 예비부모교육을 국가/지자체 기관(38.1%), 직장내교육(28.6%), 대학교(23.8%), 사회교육/상담 기관(23.8%)에서 받은 것으로 응답됨.
-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는 예비배우자(25.3%), 지인의 소개(24.4%), 인터넷검색(16.4%)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상대적으로 지인에 의해, 종교기

관은 예비배우자에 의한 경우가 더 많은 등, 주로 인적 정보교류를 통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수강 프로그램에 예비부모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58.9%만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88.3%가 유익하다고 응답함.

IV.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에 대한 탐색

-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모두 공통적으로 결혼과 자녀양육, 부모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가운데, 여성이 출산과 육아의 고충을 더 인식하고 남성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성차를 보임. 성인기의 차이가 가장 큼.
- 자녀양육은 어머니에게 더 적합하다는 등의 전통적 가치관 인식은 대체로 고등학생-대학생-성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 인식의 차이도 나타남. 자녀양육에의 국가책임론에 대한 인식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며, 성인의 경우가 가장 그러함.
- 희망자녀수에 대해 고등학생 65.6%, 대학생 56.8%, 성인 53.4%로 '2명'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음.
-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소양과 지식이 '따로 있다'는 응답은 고등학생 76.0%, 대학생 91.1%, 성인 88.8%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지식의 필요성 즉 예비부모교육에의 필요성 인식이 높으며, 대학생의 경우가 가장 그러함.
-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고등학생은 경제적 능력(34.5%)-타고난 성품(22.2%), 대학생은 양육가치관(31.9%)-양육지식 및 기술(28.2%), 성인은 양육가치관(56.9%) 순으로 나타나 연령별 인식의 차이가 흥미로움.
- 예비부모교육의 적정 시기에 대해 대학생의 경우, '청소년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함.

V. 예비부모교육의 개선방향 모색: 인식 및 요구분석

- 고등학생과 교사, 대학생, 일반 성인의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와 흥미, 개선에의 요구의견을 조사한 결과,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에 대해 대학생과 교사는 높은 비율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함. 교육내용면에서도 예비부모교육이 좋은 부모가 되는 데 유익한 것으로 인식함.
- 자녀양육 실습으로 아기돌보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실제 실습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응답함. 적정 교육기간으로는 한 학기 정도가 가장 많았고, 대학생은 성/임신/출산/피임에 관한 내용, 교사는 부모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를 가장 중요한 예비부모교육 주제로 꼽음.
- 예비부모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 교과수업'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교사들은 고등학교에서 교과목을 통한 예비부모교육이 대체로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보임.
-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통한 예비부모교육의 확대 강화 방안으로 과목내 육아관련 내용 분량의 확대와 시수 증가, 특강 실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배포를 주장함.
- 성인 대상 예비부모교육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접근성이 증대되고, 특히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현재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수강 중인 성인들은 향후에도 교육받을 의사가 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임.
- 현재 교육기회나 프로그램은 불충분하며 지속적이지 않다는 의견임. 구체적으로 온라인이나 비형식적 교육보다는 프로그램화된 형식적 예비부모교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하며, 학교나 지역센터, 종교, 사회단체 등 일정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바람직하게 봄.
- '성인 대상' 예비부모교육은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센터 등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정규화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VI. 예비부모교육의 내실화 방안

- 국가 수준에서 정책적으로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여 접근성을 제고하며, 예비부모교육을 장려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1.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

- 예비부모교육의 적기는 '고등학교' 시기로, 학교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수업에서 충실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함.
 - 고교 1학년 1학기에 배정된 부모교육 관련 수업을 2학년 1학기, 또는 최소한 1학년 2학기 후반기에 배정을 하여 학생들이 보다 성숙하고 성인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시기에 수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함.
 - 고교 시기동안의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해 학교 재량 수업이나 보건 수업, 특강 등 비교과과정을 통해서도 학기당 1~2회 이상 예비부모교육에 할당할 것을 제안함.
- 고등학교 교과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시청각 자료를 풍부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동양육 관련 실습이 권고되나, 실습수업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양한 교육매체의 활용을 통한 수업의 입체화 등 질제고에의 대안적 노력이 요구됨.
- 고등학교 기술·가정 과목은 교사의 전공에 따라 수업의 내용과 형태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음. 즉, 예비부모교육은 가정교육을 전공한 여교사에 비해 기술을 전공한 남교사에게 비전문적 내용이므로, 인근 학교간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교사협력 등, 특히 남교사가 지도하는 남학생에 대해 유의하는 환경의 마련이 요구됨.
-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고등학교 시기는 임신과 출산, 피임에 대해 심층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며, 이를 통해 10대 임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예방적 교육과 함께, 부모됨에 대한 근본적인 충족감과 자녀의 의미 등 가치관 형성에 중점을 둔 출산친화적인 내용을 중시해야함.

- 고등학교의 예비부모교육은 개인의 인격적 성숙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인성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며, 자아 이해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 증진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도록 함.
- 예비부모교육이 기술·가정 교과목에만 국한되지 않고 통합교과의 운영을 통해 타과목에서도 부모됨의 관련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지는게 필요함.
- 자녀양육에 대한 남녀의 차별적 인식을 지양하는 반편견·양성평등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영아돌보기 실습 등이 특히 남학생들에게 강조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부모교육에의 교육적 환경이 고등학교에서 시작하여 대학교, 군대, 사회에까지 연결되는 생애적 관점에서의 적용이 구체화되어야 함.
- 양육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복지혜택,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과 이에 대한 접근법은 우선적으로 보완되고 강조되어야 할 교육 내용임.

2. 대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

- 대학생 시기는 보다 심화, 구체화된 예비부모교육이 가능한 시기임에도 대학생의 약8%만이 이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더 많은 강좌개설과 내용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대학생 시기의 예비부모교육 이수 비율의 제고가 요구됨.
- 예비부모교육 과목 2~3학점에 대해 교양필수나 핵심교양 등으로 선정하여 의무 수강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다양한 과목을 설치하여 장기간에 걸쳐 수업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함. 즉 아동발달과 양육, 가족의 이해와 의사소통, 부모와 부부로서의 역할 등 주요 내용을 2~3개 과목으로 세분하여 단일 학기가 아닌 2~3학기에 걸쳐 심화과정 또는 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의 선택범위를 넓여줌.
- 다수 남학생들의 군복무를 고려하여 예비부모교육이 군에서 연계성을 갖고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내용면에서 구체적인 양육 기술이나 돌보기 테크닉 보다는 아동발달이론이나 지식적인 측면의 심층 내용에 대한 흥미가 높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양성평등지향적 접근은 대학생 시기에도 지속되어야 함.
-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학교육과 지역사회 교육자원과의 연계가 필요함.

3. 성인 대상 예비부모교육

- 성인기 예비부모교육에의 '교육접근성'의 확대와 '홍보강화'가 필요함. 우선적으로 젊은 세대가 많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예비부모교육을 내실화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예비부모교육에의 접근성과 정보이용율을 높여야 함.
- 25세 이상 ~ 35세 미만의 성인의 경우, 지역센터 등 기관 중심의 직접 교육에 대한 선호와 효과성 인지가 높으므로, 정부 지원 센터나 교육청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대가 요구됨.
-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은 예비부부교육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제한된 내용이므로, 국가의 주요 정책 사업인 '출산/육아 장려'를 고려하여 저출산극복 프로그램을 적극 보강할 필요가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만으로는 접근성이 충분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과정 및 강사에 대한 검증과 승인의 과정을 거쳐 지역내 대학/기업 등과 연계하여 정부 지원 하에서 교육이 가능하도록 예비부모교육 인프라의 마련이 요구됨.
- 성인기 예비부모교육 접근성 및 효과 제고를 위해, 학습자에게 동인(motivation)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할만 함 (예: 예비부모교육 이수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우대).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4
3. 연구 방법	4
II. 이론적 배경	13
1. 예비부모교육의 개념	13
2. 예비부모교육의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	17
3.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선행연구 검토	28
III. 국내의 예비부모교육 현황	40
1. 국내 예비부모교육 현황	40
2. 국외 예비부모교육 현황	52
IV. 예비부모교육의 실태	66
1. 고등학생의 예비부모교육 실태	68
2. 대학생의 예비부모교육 실태	80
3. 성인의 예비부모교육 실태	89
4. 요약 및 시사점	94

V.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에 대한 탐색	97
1. 고등학생	97
2. 대학생	104
3. 성인	111
4. 요약 및 시사점	118
VI. 예비부모교육의 개선: 인식 및 요구 분석	120
1. 고등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의 개선	120
2. 예비부모교육에 관한 대학생의 의견	137
3. 성인을 위한 예비부모교육의 개선	141
4. 요약 및 시사점	146
VII. 예비부모교육의 내실화 방안	148
1. 예비부모교육의 적기: 고등학생	148
2. 예비부모교육의 우선적 확대: 대학생	151
3.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접근성의 제고: 성인	154
부 록	161
1. 대학생 조사 설문지	163
2. 고등학생 조사 설문지	174
3. 성인 조사 설문지	181
4. 고등학교 교사 조사 설문지	190
5. 추가 분석표	195

표 차례

<표 I-3-1> 고등학생 조사 대상	6
<표 I-3-2> 고등학생 설문 내용	6
<표 I-3-3> 고등학교 교사 대상 설문 표집 및 참여자 현황	7
<표 I-3-4> 교사 대상 설문 내용	7
<표 I-3-5> 권역별 대학생 수	8
<표 I-3-6> 최종 표집 학교 수 및 대학생 수	9
<표 I-3-7> 대학생 설문내용	9
<표 I-3-8> 성인 예비부모교육 설문조사 참여자 현황	11
<표 I-3-9> 성인용 설문지의 주 내용	12
<표 II-2-1> 생애단계별 예비부모교육 내용	18
<표 II-2-2> PET 프로그램의 주제 및 내용	24
<표 II-2-3> STEP 프로그램의 주제 및 내용	24
<표 II-2-4> APT 프로그램의 주제 및 내용	25
<표 II-2-5> 이고그램 점수	26
<표 II-3-1> 국내 예비부모프로그램 내용과 효과성	33
<표 II-3-2> 국외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효과성	38
<표 III-1-1> 고등학교 교과서 속 예비부모교육 내용	42
<표 III-1-2> '부모교육' 관련 교양교과 개설 대학 수	43
<표 III-1-3>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내용	44
<표 III-1-4> 2010년 건강가정지원센터(서울권역) 예비부부교육 현황	45
<표 III-1-5> 굿네이버스 고3대상 예비부모교육 참여 현황	48
<표 III-1-6> 종교기관 예비부모교육	51
<표 III-2-1> 한국·일본의 가정교과목 1장 목차 비교	54
<표 III-2-2> 일본 육아지원센터의 저출산대책으로서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예	57
<표 III-2-3> 호주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부모됨과 양육 교과의 구성(NSW state)	59
<표 III-2-4> PTP 주요 프로그램 및 활동	64
<표 IV-0-1> 응답자특성(고등학생 조사)	66
<표 IV-0-2> 응답자 특성(대학생 조사)	67

<표 IV-0-3> 응답자 인적사항(성인 조사)	68
<표 IV-1-1> 고교 기술·가정 교과목 대상 학년	69
<표 IV-1-2> 기술·가정 배운 시기	70
<표 IV-1-3> 고등학교 때 예비부모교육 내용을 학습한 시기: 대학생 응답	70
<표 IV-1-4> 고교 기술·가정 교과목의 예비부모교육 관련 수업 시수	71
<표 IV-1-5> 고교 기술·가정 교과목의 자녀양육내용 수업진행 방법	72
<표 IV-1-6> 교과목 내 실습수업 포함여부	72
<표 IV-1-7> 고교 (예비)부모교육 수업 인지	73
<표 IV-1-8> 고교 기술·가정 교과목의 자녀양육내용 수업진행시 어려운 점	74
<표 IV-1-9> 흥미로운 교과목 내용	75
<표 IV-1-10> 고등학생 시기 예비부모 교과 중 가장 기억에 남고 흥미로웠던 내용	75
<표 IV-1-11> 기술·가정 교과 외 부모교육 프로그램 유무	76
<표 IV-1-12> 기술·가정 교과 외 부모되기 교육 프로그램 진행 실제	77
<표 IV-1-13> 교과목 수업 외 예비부모교육 경험여부	78
<표 IV-1-14> 고교시기 교과목외 학교 내 부모교육 경험	78
<표 IV-1-15> 고교시기 학교 외 부모교육 현황	79
<표 IV-2-1> 예비부모 교육 경험 유무	80
<표 IV-2-2> 예비부모교육 수강 경로	81
<표 IV-2-3> 수강 횟수	82
<표 IV-2-4> 수강 시기	83
<표 IV-2-5> 수강 과목명	83
<표 IV-2-6> 수업형태	84
<표 IV-2-7> 교양선택 동기	84
<표 IV-2-8> 수업내용	85
<표 IV-2-9> 수업방식	85
<표 IV-2-10> 향후 바라는 수업내용	86
<표 IV-2-11> 적정 수업기간	86
<표 IV-2-12> 타 기관에서 교육 받은 계기	87
<표 IV-2-13> 타기관 교육 수강시기 및 교육기간	87
<표 IV-2-14> 타 기관 교육담당 및 교육내용	88
<표 IV-2-15> 학교 외 예비부모교육 내용의 유의성 정도	89

<표 IV-3-1>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	90
<표 IV-3-2>	예비부모교육 받은 경로(복수응답)	90
<표 IV-3-3>	성인의 예비부모교육 수강 현황	91
<표 IV-3-4>	교육 프로그램 알게 된 경로	92
<표 IV-3-5>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	93
<표 IV-3-6>	프로그램 상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 포함 여부	94
<표 IV-3-7>	교육 프로그램 참여 소감	94
<표 V-1-1>	고등학생의 결혼에 대한 인식	97
<표 V-1-2>	결혼을 희망하지 않거나 불확실한 이유(고등학생)	98
<표 V-1-3>	고등학생의 희망 결혼연령	98
<표 V-1-4>	고등학생의 장래 자녀계획 유무	99
<표 V-1-5>	자녀 키울 계획이 없거나 불확실한 이유	100
<표 V-1-6>	희망 자녀수(고등학생)	100
<표 V-1-7>	첫 아이 출산 적정연령(고등학생)	101
<표 V-1-8>	선호하는 자녀 성별	101
<표 V-1-9>	고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102
<표 V-1-10>	좋은 부모됨의 소양과 지식이 따로 있음에 대한 동의 정도	103
<표 V-1-11>	좋은 부모됨에 필요한 능력	104
<표 V-2-1>	희망하는 결혼연령	105
<표 V-2-2>	자녀를 기르는 자신의 모습 생각해 본 경험	105
<표 V-2-3>	영유아기 아동을 혼자서 돌본 경험	106
<표 V-2-4>	영유아 돌본 경험의 대상	106
<표 V-2-5>	대학생의 미래 희망 자녀 수	107
<표 V-2-6>	대학생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108
<표 V-2-7>	대학생의 좋은 부모됨에 대한 인식	109
<표 V-2-8>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의 적정 시기와 형태	110
<표 V-2-9>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	110
<표 V-3-1>	결혼 예정 개월 수	111
<표 V-3-2>	영유아를 일정 기간 혼자서 돌본 경험	112
<표 V-3-3>	돌본 영유아와의 관계	112
<표 V-3-4>	아기 돌본 소감	113

<표 V-3-5>	결혼 한다면 희망하는 자녀수	114
<표 V-3-6>	성인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115
<표 V-3-7>	미래에 자녀 양육하는 모습 생각해 본 경험	116
<표 V-3-8>	성인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116
<표 V-3-9>	좋은 부모됨의 필요능력	117
<표 VI-1-1>	고등학생 예비부모 교육의 필요성 인식	120
<표 VI-1-2>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이 필요 또는 필요하지 않은 이유 ..	122
<표 VI-1-3>	고등학생 대상 교육이 '좋은 부모되기'에 도움이 됨	122
<표 VI-1-4>	고등학생 대상 아기 돌보기 실습의 필요성	123
<표 VI-1-5>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의 영유아돌보기 실습의 가능성	124
<표 VI-1-6>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 교육의 적정기간	125
<표 VI-1-7>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 ..	126
<표 VI-1-8>	고교 예비부모교육 강화시 교육과정에서 다루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 ..	126
<표 VI-1-9>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	127
<표 VI-1-10>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수업 방법	127
<표 VI-1-11>	배우고 싶은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시기	128
<표 VI-1-12>	고교 부모교육 교과구성에 대한 의견	129
<표 VI-1-13>	고등학교 부모교육 내용의 흥미 정도	129
<표 VI-1-14>	고등학교 부모교육의 향후 유용성에 대한 인식	130
<표 VI-1-15>	고등학생 예비부모교육 전반에 대한 의견	131
<표 VI-1-16>	교과목 외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 담당자	132
<표 VI-1-17>	예비부모교육 시작 시기	132
<표 VI-1-18>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 관련 교사 제언	133
<표 VI-1-19>	현행 예비부모 교과 수업에 대한 인식	134
<표 VI-1-20>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고등학생의 의견	135
<표 VI-2-1>	적정한 예비부모 교육 시작 시기	137
<표 VI-2-2>	프로그램화된 형식적 예비부모교육 기회의 충분성 정도	138
<표 VI-2-3>	가족 내 예비부모교육 기회의 충분성 정도	139
<표 VI-2-4>	예비부모교육의 지속적 수강 의무화에 대한 의견	140
<표 VI-2-5>	효과적인 예비부모 교육의 형태	141
<표 VI-3-1>	예비부모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 필요 사항	141

<표 VI-3-2> 부모교육 프로그램 재수강 희망 여부	142
<표 VI-3-3>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143
<표 VI-3-4> 예비부모교육의 유용성 인식: “좋은 부모됨에 도움이 된다”	144
<표 VI-3-5> 교육기회의 충분성에 대한 성인의 인식	144
<표 VI-3-6> 예비부모교육의 내용별 적정 시기	145
<표 VI-3-7> 예비부모교육 형태 중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	146

그림 차례

[그림 II-1-1] 예비부모교육의 내용	16
[그림 V-1-1] 고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성별비교	103
[그림 V-2-1] 대학생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성별비교	108
[그림 V-3-1] 성인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성별비교	115
[그림 V-3-2] 성인의 좋은 부모됨에 대한 인식 성별비교	117
[그림 VI-1-1] 고등학생에 대한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 교사 성별 비교	121
[그림 VI-1-2] 교사 성별/전공별 기술가정 교과내 예비부모교육 확대강화 필요성 인식	131
[그림 VI-1-3]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에 관한 교사 의견	13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육아정책연구소가 2009년에 수행했던 ‘육아지원기관 부모교육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의 결과를 보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영유아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의 74.8%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2.7%에 지나지 않았다(김은설 외, 2009). 그리고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모참여의 유형은 부모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과반(50.9%)을 넘었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 더 알고 싶고 배워야겠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을 한 사람 중에서도 45.6%는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는 사실은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이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과거 자녀를 많이 낳던 대가족 사회에서는 어머니나 숙모가 아기를 양육하는 모습을 볼 기회가 있었고, 처음 자녀를 낳은 젊은 산모도 육아에 대해 배우고 기댈 어른이 집안에 있었다. 그러나 핵가족이 기본 가구 구성형태가 된 현대에는 그러한 것들이 불가능해지면서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 나서야 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젊은 부모들은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있고, 큰 병원들은 출산을 앞둔 산모에 대해 수유방법, 신생아 돌보기 등 간단한 육아방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의 부모로서 알아야 하는 부모교육의 경험이 출산 임박 시기의 단 몇 시간 정보획득으로 충분할 것인가? 그러나 그마저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많은 수가 자녀의 유치원·보육시설 또는 초·중등학교에서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부모가 아닌 성인의 경우는 4.5%만이 대학이나 고교 등 학업기간 중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한다(김은설 외, 2008). 95%이상이 부모가 된 이후 또는 임신 중에 부모교육을 접하는 결과이므로, 자녀를 갖기 전 또는 결혼을 하기 전에 부모로서 준비하고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기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하는 사건 중 하나인 자녀동반 자살은 자녀의 가치를

부모의 소유로 착각한 경우의 예일 수 있으며, 어린 자녀를 두고 영구 가출이나 자살을 하여 부모로서의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자녀를 유기, 성추행, 학대하는 것은 부모라는 의식조차 갖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들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해가 되는 일을 의식하지 않고 행하고 있을 수 있다. 부모가 되는 일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 중요성을 인식할 기회를 가진 사람들과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양육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서 있어 분명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예비부모교육이란, 10대 미혼부모, 고등학생, 대학생, 미혼의 청년, 자녀출산 이전의 부부 등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부모됨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주어 자신감을 갖고 양육에 임하게 하며 자녀양육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김정미, 2004b). 그러므로 이러한 예비부모교육의 기회는 개인의 바른 성장뿐 아니라 장차 사회전체의 안정을 위해서도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예비부모교육은 출산율 제고에 가장 근본적인 동인(動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출산율 저하에 처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저출산의 해결책을 양육비 보조 등 경제적 지원에서 찾고자 한다. 물론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유에만 매달리는 꼴이다. 아이를 낳고 키울 부모의 정서와 의식이 출산과 양육의 가치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은데 경제적 지원만으로 출산율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것은 마치 교육에서, 교육의 외재적 가치(물질·사회적 보상)에 교육의 목적을 두는 경우의 교육의 궁극적 효과가 결코 교육의 내재적 가치(삶의 즐거움, 진리탐구의 희열)를 추구하는 경우의 성과에 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김중서 외, 1995).

그러므로, 예비부모교육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모든 국민에게 국가인적자원인 다음 세대를 건전하고 역량있게 키워갈 수 있는 바람직한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적 지식과 정보를 미리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는 부모됨의 의미를 생각함으로써 개인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이를 통해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알게 되는 기회를,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부터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며, 셋째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원영(1992)은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의 심리 및 발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부모역할

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 준비를 부모가 되기 전에 미리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병래(1991)는 예비부모교육은 정규교육기관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때, 훌륭한 부모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예비부모교육은 국가의 장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히 제공되지도,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 능력을 준비할 기회가 제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예비부모 교육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직업들은 관련 업무에 대한 장기간의 교육을 필요로 한다. 또한 전문직종은 자격증까지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4년간의 전문 교육이 필요하고 자격증을 획득해야하고 경우에 따라 임용 시험을 통과해야 자리가 주어진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교사 못지않게,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또한 필요한 업무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 리더쉽, 지도력이 필요하다.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나, 이러한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비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고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예비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로서 필요한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 방법과 활용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현대 사회의 신세대 부모는 대부분 핵가족 체제에서 성장하였고 자신 또한 핵가족 형태로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것이다. 확대가족과 같은 지원 인력이 많은 상황이 아니므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도움을 받아 성장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되기 전에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 태도, 가치관을 배우고 갖추며 사회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정보 획득의 접근법을 알아둘 필요성이 더 커진다.

혼인 외 출산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볼 때 예비부모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혼인 외 출산의 비율을 보면, 1999년 전체 출산의 0.77%가 결혼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출산을 하였으나 2007년에는 그 비율이 1.58%로 2배 이상 늘어나 있다(통계청, 2009). 또한 10대 임신의 비율도 최근 급격히 높아져 2006년 1천 1백여 건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3천 3백여 건으로 2년 사이 3배가 증가했다(2010년 7월 11자 SBS 뉴스보도). 혼인 외 출산의 많은 수가 부모 될 준비를 하는 형식적 절차(결혼과정)를 거치지 않고 갑작스런 변화를 겪은 경우일 것이고, 10대 출산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10대 임신·출산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보고를 보더라도 청소년과 청년시기에 올바른 부모됨에 관해 생각하고 배울 교육의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대학생과 미혼 성인 또는 기혼의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의 현황, 내용, 참여정도 등 실태를 조사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 변인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점, 요구 등을 파악하여 예비부모교육을 내실화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연구 내용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부모 교육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방향성과 중요성, 의의가 분명해 질 수 있다.

둘째, 국내외 예비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수집, 검토하고 대상에 적절한 교육의 형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예비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각 프로그램의 장단점 및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다. 더불어 예비부모 교육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를 분석하며, 외국의 예비부모교육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 예비부모 교육의 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예비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조사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 예비부모 교육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및 미혼 성인, 출산전 기혼자 등의 교육 참여의 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의 요구를 수렴하고자 한다.

넷째, 예비부모 교육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령별, 성별 구분에 의한 예비부모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고교 및 대학 교육과정내 예비부모교육의 적용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자료 및 관련자료 수집

고등학교 교과서를 포함하여, 국내 예비부모교육 현황 및 프로그램 관련 자료, 선

행연구 등을 수집, 분석하고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의 예비부모 교육의 현황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과 현지 출장을 통해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나. 관련자 면접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양과정 수강 대학생, 고등학교 가정·기술 교사 등 예비부모 교육의 프로그램 제공 기관, 프로그램 참석 경험자 등 관련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예비부모 교육에 대한 의식 및 요구를 알아보았다.

다. 전문가 회의

예비부모 교육의 방법과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특히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자 하였다.

라. 현황과 요구, 실태 분석을 위한 조사 실시

본 연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조사는 대상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예비부모교육의 대상을 크게 대학생, 고등학생, 미혼 및 무자녀 기혼 성인이라고 할 때 각각의 집단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1) 고등학생 조사

국민 대부분이 이수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예비부모교육을 받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은 고등학교 1, 2학년층을 중심으로 남녀 각각 335명씩 총 770명을 선정하였고, 인문계, 실업계, 예술계 등 학교유형과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등 학생 성 구성 형태의 모든 모수를 고려하고 그 비율에 맞도록 비율표집하였다. 또한 전국의 지역을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누고 먼저 학교를 선정하고 적정 인원을 표집 한 바, 다음의 <표 I-3-1>은 지역별 표집 수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조사 방법은 각각 개인별 면대면 설문조사로, 조사원이 선정된 학교에 가서 학생에게 설문지를 주고 그 자리에서 작성,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다음 <표 I-3-2>와 같다.

<표 1-3-1> 고등학생 조사 대상

권역	지역	도시구분	표집학생수	%
수도권	서울	대	145	18.8%
	인천	대	47	6.1%
	경기	중소	155	20.1%
읍면		19	2.5%	
대전/충청	대전	대	30	3.9%
	충북	중소	17	2.2%
	충남	중소	14	1.8%
		읍면	18	2.3%
광주/전라	광주	대	30	3.9%
	전북	중소	25	3.2%
	전남	중소	14	1.8%
		읍면	17	2.2%
대구/경북	대구	대	40	5.2%
	경북	중소	24	3.1%
		읍면	18	2.3%
부산/울산 /경남	부산	대	58	7.5%
	울산	대	20	2.6%
	경남	중소	29	3.8%
		읍면	20	2.6%
강원	강원	중소	30	3.9%
	합계		770	100.0%

<표 1-3-2> 고등학생 설문 내용

영역	설문내용
일반 사항	소속학교, 성별, 학교유형, 거주지역, 경제수준, 종교
결혼 및 자녀양육 의식	희망 결혼연령, 미래 자신의 자녀양육모습, 영유아 돌봄 경험, 희망 자녀수,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부모됨에 대한 인식	- 부모의 소양·지식 필요성 - 부모됨에 필요한 교육방식, 좋은 부모됨 위해 필요한 능력
학교내 예비부모교육 경험과 인식	- 기술·가정과목 이수 여부 - 교과내용, 실습여부, 수업에 대한 평가 - 교과목 외 관련 교내 강의 수강 여부
학교외 예비부모교육 경험과 인식	- 학교의 예비부모교육 수강 여부 및 경험 내용 - 고등학생에 대한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 내용 등 전반적 의견 - 향후 수강에 대한 희망여부 - 예비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의견

2)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목 담당 교사 조사

교과목을 통한 고등학생 예비부모교육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더불어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은 전국 2,000여개 고등학교의 거의 50%에 해당하는 1,000개 고등학교를 일반계와 전문계 등 2개 학교유형과 남/녀/공학 등 학생유형에 따라 6개의 셀로 구분하고, 다시 이를 16개 시도 분포 비율에 따라 수를 책정하고 학교를 무선으로 선정하였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모수 중 1,000개 고등학교를 무선 표집하는 과정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센터에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의 고등학교 각각의 주소와 교명, 연락처를 획득한 후 각 학교 ‘기술·가정’ 교과 담당 교사들에게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고 회수하였다. 동일 교과를 지도하는 교사가 복수로 있는 경우에는 교과 주임 또는 경력이 가장 오래인 교사가 응답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조사는 2010년 10월 11일부터 2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표집된 전국 1,000개 고등학교와 그 중 응답지가 회수된 271개 고등학교의 특성별 분포는 다음 <표 I-3-3> 과 같다.

<표 I-3-3> 고등학교 교사 대상 설문 표집 및 참여자 현황

단위: 개교

권역	표집 학교 수			최종 참여 학교 수		
	일반계	전문계	계	일반계	전문계	계
남자고교	153	20	173	42	2	44
여자고교	123	71	194	50	21	71
남녀공학고교	394	239	633	122	32	154
합계	670	330	1,000	214	55	269

교사에 대한 설문은 현재 교과 수업 현황과 고등학생에 대한 예비부모교육의 개선 의견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다음 <표 I-3-4>와 같다.

<표 I-3-4> 교사 대상 설문 내용

영역	설문내용
일반 사항	성별, 나이, 경력, 전공, 학교유형, 학교소재지, 담당 과목
부모교육 현황	기술가정 이수 학년, 수업 시수, 수업방식, 수업진행의 애로점, 교과외 부모교육 여부 등
고등학생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의견	필요성 인식, 육아실습 가능성, 현행교육에 대한 의견, 학교수업강화방법, 주요내용, 효과적 교육방식, 담당자, 정책적 제언 등

3) 대학생 조사

최근 대학에서 예비부모교육 관련 교과목을 교양으로 개설하는 곳이 많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2009년 6월 7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의뢰를 요청한 조사대행업체가 조사원을 파견하여 개개인 면대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학교 내 또는 학교 외에서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를 위한 표집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실시되었다.

① 전국을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 6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이 그것이며, 대학교 수가 많지 않은 제주도는 제외하였다.

②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교육통계를 이용하여 각 권역별로 학교 유형을 고려하면서 학생수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I-3-5>와 같다.

<표 I-3-5> 권역별 대학생 수

단위: 명

권역	학생수		
	2/3년제	4년제	계
수도권	204,866	525,075	729,941
대전/충청	54,030	243,683	297,713
광주/전라	68,479	156,834	225,313
대구/경북	74,921	150,679	225,600
부산/울산/경남	64,004	205,369	269,373
강원	14,854	66,872	81,726
합계	481,154	1,348,512	1,829,666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9). 교육통계

③ 연구기간, 조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학생 수 전체에서 각 셀마다 0.05%를 계산하여 표집수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표집할 학교의 수를 권역별로 표집하였다. 한 학교에서 2,3,4학년을 중심으로 하고 인문사회전공과 이공계전공, 예술계전공 구분, 그리고 남녀 성별을 고려하여 3×2×2로 셀 구성을 생각하고 학교 당 12명 정도씩 일괄 할당하였을 때 필요한 학교 수를 계산하였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서는 전문대학이 학년제가 다른 점이 고려되고 또 예체능계 전공인 경우도 따로 분류하게 됨으로써 표집수가 조정되었다. 최종적으로 표집된 학교 수와 응답 학생 수는 다

음 <표 I-3-6>과 같이 총 78개 대학의 936명이다.

<표 I-3-6> 최종 표집 학교 수 및 대학생 수

단위: 개, 명

권역	표집 학교 수			조정된 최종 표본수(학생수)		
	2/3년제	4년제	계	2/3년제	4년제	계
수도권	9	22	31	108	264	372
대전/충청	2	10	12	24	120	144
광주/전라	3	7	10	36	84	120
대구/경북	3	6	9	36	72	108
부산/울산/경남	3	9	12	36	108	144
강원	1	3	4	12	36	48
합계	21	57	78	252	684	936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예비부모교육 수강 경험을 중심으로 실태를 조사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결혼과 육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문항도 함께 포함하여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본적 의식을 알아보고자 하였고, 더불어 예비부모교육이 고등학생들에게 주어질 때에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지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자세한 설문내용은 다음의 <표 I-3-7>에 제시되어 있으며, 실제 설문지는 본 보고서의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표 I-3-7> 대학생 설문내용

주제	설문내용	
일반 사항	소속학교, 성별, 나이, 전공유형, 거주지역, 결혼여부, (청소년기)가구유형, 군체대 복학생 여부, 가정의 경제적 수준, 종교	
결혼 및 자녀양육 의식	희망 결혼연령, 미래 자신의 자녀양육모습, 영유아 돌본 경험, 희망 자녀수,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부모됨에 대한 인식	부모의 소양·지식 필요성, 부모됨에 필요한 교육방식, 좋은 부모됨에 필요한 능력	
대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 경험과 인식	경험	교육 경험여부, 교육 받은 기관
	대학수업 관련	관련 수업 수강횟수, 수강시기, 수강과목명, 수업형태 교양수업 선택이유, 수업내용, 수업방식, 향후 바라는 수업내용, 적정 수업기간, 수업후 수강소감
		대학이외 교육경험
고등학교 시절	교과교육	고등학교내 교과교육 학습여부, 흥미가 있었던 내용, 교과내용 배운

주제	설문내용	
예비부모교육 경험과 의견	관련경험	시기, 교육에 대한 평가(교과내용, 흥미도, 유용성)
	교과교육 이외경험	학교내에서 교육경험 계기, 학교이외에서 교육경험 계기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적정기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 효과적인 교육방식, 적정 교육 시작시기 사회에서 제공되는 교육기회의 접근성 평가, 효과적인 교육형태

4) 성인 조사

학생이 아닌 일반 남녀 성인, 사회인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 수강 경험에 대한 실태 및 의견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반인은 연령, 거주지, 직업, 성별 등 선정 범위가 너무나 넓고,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예비부모교육을 경험한 경우가 천차만별일 것이므로, 무선조사를 통해 결과를 얻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연구진은 결론을 내렸다. 즉 극소수가 경험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전국 무선 표집을 하여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조사는 두 곳의 예비부모교육 실시 기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강생들은 예비부모교육에 대해 보다 관심이 있고 필요성을 느끼는 집단일 것이고, 특히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조사 표적이 된 기관은 대표적인 정부지원 부모교육 제공기관인 전국의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종교 및 전반적인 부모교육 교실을 개최하는 천주교 교육원이다. 다른 종교기관과 달리 천주교는 의무적으로 예비부부들에게 결혼, 부부, 부모와 관련한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과 내용의 프로그램을 각 지부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종교라는 면이 반영되어 있기는 하나 많은 표본을 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천주교 예비부부강의 수강자가 모두 천주교인은 아니라는 점도 선정에서 긍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로부터 조사 참여자를 구하기 위해, 전국 센터들의 홈페이지를 모두 검색하여 9월과 10월 중 예비부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들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 센터의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조사실시 가능여부를 타진하고, 최종 허가를 준 11개 지역 센터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강좌 참여자 수를 확인하고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전달하고 회수하였다. 강좌의 실

시 기간이 지역별로 매우 달라 조사기간이 길어졌으나, 총 153부의 설문지가 수합되었다.

천주교 예비부부교실을 통한 조사 참여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육원의 도움을 받아 10월 초순 수업 일정이 잡혀있는 혜화동 성당과 불광동 성당, 천호동 성당 등 세 곳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설문지를 인편 배달하고 강좌 수강자들이 수업 후 작성하도록 한 뒤 우편으로 수합하였다. 천주교 교육 참여자는 전국단위 조사를 하지 않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표본에 대한 보완적인 견지에서 서울지역만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참여자 현황은 다음 <표 I-3-8>과 같다.

<표 I-3-8> 성인 예비부모교육 설문조사 참여자 현황

협력 기관	지역	참여자수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	관악구	18
		영등포구	8
		구로구	16
	경기	화성시	19
		군포시	18
		고양시	20
	부산	사하구	14
	충남	태안시	8
	경남	창원시	12
	제주	제주시	14
서귀포시		16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육원	서울	불광동성당	34
		혜화동성당	42
		천호동성당	8
계		총237명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의 주 내용은 앞서 대학생 내용과 비슷하나, 학교 강의 현황에 대한 내용 대신 현재 참여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성당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과 일반적인 인식을 함께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I-3-9>와 같다.

<표 1-3-9> 성인용 설문지의 주 내용

영역	설문내용
일반 사항	- 성별, 연령, 강좌수강기관, 학력, 거주지역, 결혼여부, 직업, 소득, 종교
결혼 및 양육	- 결혼계획, 희망자녀수 - 영유아 돌봄 경험 -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부모됨	- 좋은 부모가 될 것이라는 확신 여부 - 부모의 소양·지식 필요성 - 좋은 부모됨을 위해 필요한 능력
예비부모교육 경험과 인식	- 이전 예비부모교육 수강 경험 및 관련 사항 - 예비부모교육의 유용성 인식 - 예비부모교육의 적정 시기, 기회의 충분성
현재 참여 프로그램	- 기관의 프로그램 인지 및 참여 동기 - 강의 중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 - 수강소감 및 향후 추가 참여 의사 -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프로그램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의견

5) 대학교 교양과정 설치 현황 조사

전국의 대학들이 교양과목으로서 예비부모교육 관련 강의를 개설하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전국 162개 전문대학과 211개 4년제 대학교를 포함해 총 373개 대학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가 제공하는 전국 대학교 주소록을 토대로, 조사원이 전화로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4년제 대학의 경우는 대학 교양과목 개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행정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모교육' 관련 과목 현황에 대한 문의를 하였고, 2,3년제 전문대에는 교직과, 또는 교무과의 수업 담당자를 통해 개설 현황을 확인하였다. 모든 담당자와의 직접 통화를 위해 일주일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주소록 작성 이후 폐교한 14개 대학을 제외하고 총 359개 대학 전체에 대한 개설 현황을 획득할 수 있었다.

조사에서는 부모교육, 양육, 부모됨, 결혼, 예비결혼, 육아 등 관련 용어가 들어가는 교양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지 여부, 개설시 요구학점, 필수교양과목 포함 여부 등을 질문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예비부모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범위 등을 보여주는 예비부모교육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하며, 기존의 연구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배경과 종류, 효과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예비부모교육의 개념

가. 예비부모교육의 정의

예비부모교육이란 아직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부모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게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부모가 아닌 사람에는 어느 순간 부모가 될 수도 있는 청소년, 청년, 미혼 성인, 그리고 자녀가 없는 기혼 성인, 혹은 곧 태어난 태아를 품에 두고 있는 예비부모까지 어찌면 아동기 이후 부모되기 이전의 모든 연령이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김정미(2004a)는 예비부모교육의 대상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고등학생, 대학생, 미혼의 청년, 자녀출산 이전의 부부 등 자녀양육에 대해 일반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며, 둘째는 10대 임신 등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가 될 특수한 요구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대상이 다르더라도 예비부모교육이 갖는 의미는 '대상자들에게 부모됨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주어 자신감을 갖고 양육에 임하게 하며 자녀를 즐겁고 행복하게 기를 뿐 아니라 자녀의 잠재능력이 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부모에게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가르치며, 자녀양육에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하였다.

이원영·김정미(2007)는 예비부모교육이 이미 부모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에서 파생되어 발전했으며, 부모교육의 대상인 젊은 여성은 물론, 남성과 청소년까지 확대한 것으로, 서구 사회에서 빈발하는 십대의 미혼모, 미혼부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조형(1986)은 부모교육을 이야기 하면서 부모뿐만 아니라 예비부모를 포함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성인들에게 부모됨에 대한 자신감을 주고 부모역할의 긴장을

완화시켜 부모로서 균형 잡힌 전인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하여 부모교육의 범주 속에서 구분하지 않고 예비부모교육을 함께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아교육백서(한국유아교육학회, 1995)에서도 향후 부모교육은 예비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대상의 부모들에게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기 교육, 부모기 준비, 부모기 훈련이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모기 준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부모기 준비는 부모가 되기 전부터 부모의 전 생애동안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생애 맥락적 과업이라 하였다(Galinsky, 1987; 이원영, 김정미, 2007 재인용).

나.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

핵가족화로 부모 세대로부터 지속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현대의 젊은 부모들이 늘어나고, 이혼과 별거로 분리된 가정에서 양 부모의 역할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난 젊은이가 많아졌으며, 아직 미성년인 청소년이 부모가 되기도 하는 세대 등을 생각해 보면,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실제로 (예비)부모교육에의 더 많은 기회가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병래, 1991; Berk, 1997).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에 걸쳐 미국에서 십대 미혼모들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부모됨이나 올바른 자녀양육에 대한 사전지식을 전혀 갖지 못한 젊은 부모들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들에 대한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면서 사회적 필요라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기 시작했다(나은경, 1993).

현대 사회에서 예비부모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이유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제시하고 있다(이원영, 김정미, 2007).

첫째, 핵가족을 이루고 생활하는 현대 대부분의 젊은 부모는 과거의 확대 가족 제도에서처럼 3~4대가 함께 살면서 부모역할 수행을 조언하고 관리해 주던 윗세대의 도움을 받을 환경이 못 되어, 자녀양육의 책임을 혼자 알아서 수행해야 할 상황에 있다. 부모됨과 부모역할에 대해 배우지 못하고 갑자기 부모가 되면서 아동발달 및 자녀양육방법, 가족관계, 의사소통기술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녀양육 그 자체가 짐으로 여겨지게 되고, 부모역할의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이재연, 김경희, 1999; 이은화, 1997). 따라서 자녀양육에 필요한 기술과 부모시기에 수행하게 될 역할 및 태도 등을 습득하기 위하여 부모가 되기 이전에 학교교육 등의 기회를 통하여 체계적인 예비부모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또한 예비부모교육이 실시되는 청년기는 인간발달에 있어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바람직한 부모관과 양육관을 내면화하도록 돕는다면 부모가 된 이후에 실시되는 부모교육보다 훨씬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건강한 자아개념은 건강한 부모역할 수행을 예측하게 하는 주요 변인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Freud, Erikson, Bowlby, Piaget 등 많은 학자들은 일찍이 인간발달에 있어 영유아기의 초기 경험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태아기부터 유아기에 이르기까지 아이는 부모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미래 부모가 될 예비부모에게 이를 미리 인식시키고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첫 아이를 임신하는 시기는 태내발달에 대한 지식이나 출산 그리고 부모역할 기술을 습득하려는 동기와 욕구가 증가되므로 부모교육을 받기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Papalia, 1991; 이원영, 김정미, 2007 재인용). 그러나, 부모됨의 가치관과 역할인식은 임신기의 제한된 지식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임신이전의 청소년기부터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으로 미혼모의 증가, 청소년 성 문제, 성폭행, 낙태 등 청소년 문제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예비부모들을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의 과정, 인간생명의 존엄성, 낙태문제, 성교육, 결혼, 가정생활에 대한 준비 등의 교육을 통해 청소년기 및 청년기의 젊은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스트레스와 도전을 극복하고, 사회로부터 효율적인 지지를 받아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이원영, 김정미, 2007).

이와 같은 이유로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예비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부모교육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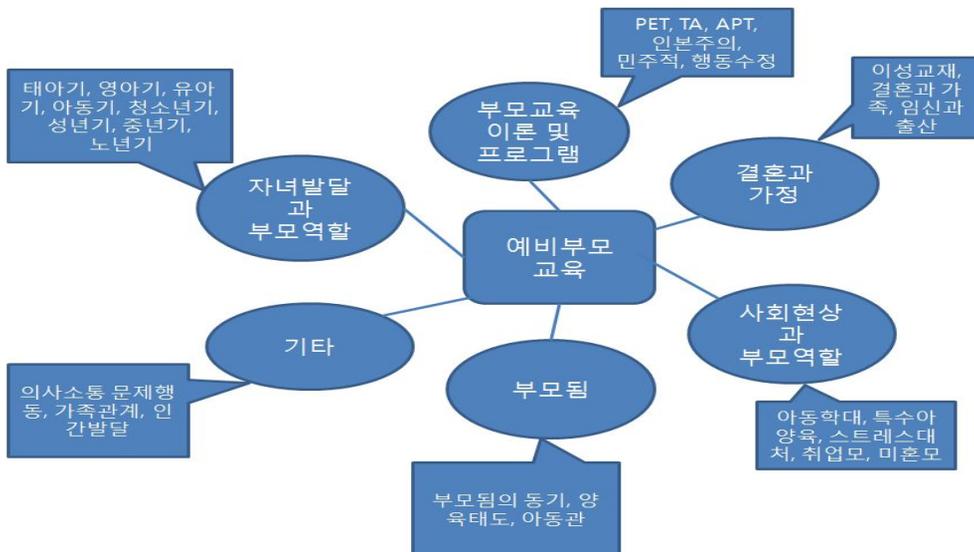
다. 예비부모교육의 내용

예비부모교육을 부모교육의 연장선으로 볼 때 그 내용은 부모교육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나 부모교육에 덧붙여 보다 어린 연령에, 현실이 아닌 미래를 예상하는 시점에서 교육 또는 훈련되는 것이므로 그 상황에 맞는 내용이 추가되고 방법이 도입되는 등 기존 부모교육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도 있다. 그러므로 먼저 부모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우선 단계라고 하겠다.

서울대학교에서 편찬한 교육학용어사전(1995)에서는 부모교육을 '유치원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모들에게 아동발달, 교육과정 등을 알려주고, 가정에서의 협력을 얻어 내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교육이다. 1965년 미국 연방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어린이들을 위해 Head Start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유아교육현장에서 부모의 직접적, 간접적인 참여가 강조되면서 더욱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로서 부모로서의 효율적인 양육태도 및 방법을 지니도록 교육하는 것을 일컫는다.'고 정의하였다. 부모교육 내용으로는 신생아 교육법, 영아 및 유아 보조자 역할을 위한 교육, 청소년 자녀를 가진 부모를 위한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다. 정의와 교육 내용 언급을 함께 정리해 보면 부모교육은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 신생아에 대한 양육과 교육, 영유아육아 및 교육과정 이해, 청소년 자녀에 대한 지도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연구를 선두적으로 진행해 온 김정미(2004a)는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전국 대학 교양과정에서 개설하고 있는 '부모교육' 강좌의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대학의 교양과정 과목들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지식 교과들의 가장 대표적인 강좌라고 생각할 때, 이와 같은 내용분석 결과를 살펴보는 것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이 어떠해야 할 지 개관해 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김정미(2004a)가 전국에 위치에 있는 14개의 4년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요소를 분석한 것에 의하면, 교육내용은 크게 6가지의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것은 자녀발달과 부모역할, 부모교육 이론 및 프로그램, 결혼과 가정, 사회현상과 부모역할, 부모됨, 기타 등이다.



[그림 11-1-1] 예비부모교육의 내용

‘자녀발달과 부모역할’에는 각 인간발달의 단계 즉, 태내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년기 및 그 이후 등에 대한 이론과 단계별 부모의 역할이 내용이 되고, ‘부모교육 이론 및 프로그램’은 PET, TA, APT, 인본주의, 민주적, 행동수정 등 부모교육 관련 내용이, ‘결혼과 가정’에는 이성교제, 결혼과 가족, 임신과 출산, ‘사회현상과 부모역할’은 아동학대, 특수아양육, 스트레스 대처, 취업모, 미혼모 등이 포함된다. ‘부모됨’의 영역은 부모됨의 동기, 양육태도, 아동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문제행동, 가족관계, 인간발달 등으로 이루어진 ‘기타’ 영역 부분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부모교육의 일반적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림 II-1-1]과 같다. 요컨대, 예비부모교육은 일반적인 부모교육에 비해 교육대상이 아직 미혼인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결혼과 가정,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 아동발달에 관한 지식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예비부모교육의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

현대적 의미의 부모교육(parenting, parent education)은 근대이후 비교적 최근에 과학적으로 구체화된 개념으로, 그 이론적 토대는 1960년대 이후 심리학의 발전에 기인한다. 서구심리학의 이론적 토대는 (예비)부모교육 형성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구체적인 예비부모교육의 교과내용(커리큘럼)과 프로그램 구성의 근간을 제공하였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예비부모교육 실재를 생애발달단계의 관점과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현대사회의 사회적 요구속에서 예비부모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 절에서는 구체적인 예비부모교육 실행 및 운용의 시사점을 얻고자, 애착이론에 기반한 애착증진 프로그램, 상호작용론에 근거한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성격이론에 근거한 자기이해 프로그램의 3가지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생애 발달단계별 예비부모교육

광의의 예비부모교육이라 하면, 생애 초기부터 시작되는 모든 형식적·비형식적 교육방식과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지만, 이 장에서 논의하는 예비부모교육은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장래에 본인이 부모가 될 사람들로서 ‘예비부모교육’이 가지는 교

육적 의미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받게 되는 형식화된 교육으로 정의한다. 즉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이라 하면, 청소년기 교과 또는 비교과과정을 통해 받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고려하게 된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내용과 유형은 부모교육의 시기 및 대상에 따라 예방적 부모교육과 사후개입의 치료적 부모교육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예비부모교육은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청소년이나 미혼남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예방적 부모교육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신혼부부,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 등 그 구체적 대상과 대상자의 생애단계 및 연령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예비부모교육 대상자의 생애단계별로 배워야 할 주요 내용과 공통 내용을 정리하면 <표II-2-1>과 같다.

<표 II-2-1> 생애단계별 예비부모교육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공통 내용 및 범주	이론적 배경
청소년기 (만12~18세 미만)	· 성교육 (성가치관, 성지식)	- 가족기능 강화 · 가족의 중요성 ·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가족체계론 -상호작용론 -애착이론 -학습이론 -인간발달론
청년기 (만18~25세)	· 결혼 및 배우자의 선택 · 성인기로의 전이		
예비부부, 신혼부부	· 가족의 형성, 발달 · 부부 및 결혼 생활의 이해	- 자기이해 및 통찰 · 자기통찰 및 나의 부모/가족 이해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	· 임신과 태교 · 분만, 산후조리 · 수유, 아이돌보기(실습) · 부모기로의 전이 · 부모역할의 습득	- 자녀의 발달이해 · 아동발달 지식 · 자녀발달에 따른 부모 역할 이해 - 부모역할 지원 · 출산과 육아 · 자녀관 및 자녀에 대한 태도 형성 · 상호작용기술과 양육 기술의 훈련 · 문제행동지도	

첫째,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성장과 2차 성장에 의한 성적 성숙으로 인해 자신의

몸의 변화 및 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 신체변화는 청소년 자신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주위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상호작용도 달라지게 한다. 호르몬의 변화는 정서적 불안정은 물론 인지적인 정체성 혼돈을 수반하여 기성세대인 부모 및 학교생활에서 갈등을 경험하며, 또래에의 의존도가 커지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예비부모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구체적인 성지식과 함께 특히 성(性)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형성하고, 양성평등의 균형잡힌 비판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성교육이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청소년기 고등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청소년의 약98%가 진학하므로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적 의무교육으로서의 예비부모교육 실행이 가능한 시기이다. 따라서 예비부모교육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에의 참여도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통한 예비부모교육의 내실 및 강화가 시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대사회 청소년들의 개방성과 미디어 의존도를 고려하여 단순한 정보제공 위주의 일방향 주입식 강의보다는, 보다 유연하고 개방된 분위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표출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장으로서의 교육방식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사전적 의미대로 '예비'부모교육이 될 수 있도록 10대의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 미연에 방지되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성교육이 사전예방교육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동시에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10대에 부모가 되는 청소년에 대한 예비부모교육과 사회적 지원 또한 특수한 예비부모교육 내용으로써 중요한 한 부분이다.

부모됨의 과정 및 현재 자신의 부모-자녀 관계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즉 자기이해과정으로써의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러한 청소년기 예비부모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개념과 자기 성찰을 통한 가족관계의 재조명이 주지적으로 이루어져야 이후 가족내 갈등과 어려움의 발생에도 적절한 자기조절과 주위환경에 대한 조망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발달적 토대가 형성된다. 이 시기 예비부모교육의 일례로 집단 상담의 형태를 띤 청소년 예비부모교육이나, 건강한 신체활동과 운동 프로그램을 수반한 프로그램, 10대의 성 건강에 대한 자기선언서의 작성기회를 갖는 등 다양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이 가능하다.

둘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청년기에는 성인이 되어가는 생애단계 전이에 대한 교육과, 구체적으로 배우자를 만나 선택하고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 대한 교육이 강조된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결혼관과 자녀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이성의 친구들과 또래를 만나 교제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고 확장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교 졸업이후의 예비부모 교육의 기회는 대학의 교양 및 선택과목 이수를 통한 경우에 제한돼, 청소년기에 비해 예비부모교육을 받기 어렵다.

셋째, 실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에 대한 본격적인 성인기 예비부모교육은 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종교단체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설기관과 사회단체, 상담소 등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지원센터와 종교기관 외 예비부부/신혼부부 대상의 성인전기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용율은 저조한 편이다. 이 시기 주요내용으로는 예비부부교실, 예비부모교실 등을 통해 결혼생활로의 변화와 부모됨의 준비, 가족 계획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게 된다.

넷째,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들의 경우, 부모가 되기 위한 심리적·정서적 준비, 바람직한 양육태도, 태아 발달 및 발달이상, 신생아기의 발달 특성, 아이와의 상호작용에의 민감성,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 부부관계가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지식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한세영·김연화·김기원·김주연·김지윤·안수희, 2008; 이순형 외, 2010, 재인용). 즉 결혼을 하여 임신을 하게 된 예비부모에 대한 교육내용은 임신관련 의학정보와 태교, 산후조리, 아이 돌보기 등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 및 지식 제공과 실습의 교육 형태로 구성된다. 실제로 이 시기가 되면 예비부모가 자발적으로 예비부모교육을 찾고 해당내용을 이수하는 등의 높은 요구도와 수요를 갖는 시기로 실제 이용율 면에서 높으며, 병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과 시설에서 비교적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예비부모교육을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내용 외 교육장소와 방법 등의 형식적 요인도 다양하게 적용된다. 장소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중심의 예비부모교육, 기관/학교 중심, 지역사회 및 공동체 중심, 인터넷/Web중심 등으로 분류 가능하다. 교육방법으로는 강연, 세미나, 워크샵, 소식지/가정통신문 등의 전통적 예비부모교육 방법에 의한 것과, 교수-학습자 간에 수평적 운영참여와 활동중심의 교육을 담은 참여형 예비부모교육, 집단 및 개별상담의 예비부모교육 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비부모교육의 경우 교육 내용 못지않게 교육의 장소와 방법, 그리고 그 실행 시기에 따른 교육적 효과와 민감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교육과정으로서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및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유형과 실제 운영,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예비부모교육이 구체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기본적인 교과내용(curriculum)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1) 예비부모교육의 프로그램 유형

현재 활용되고 있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서구 심리학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된 것이다. 이 절에서는 예비부모교육의 이론적 배경인 애착이론, 상호작용론, 성격이론과 이에 근거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애착이론과 애착증진 프로그램

(1) 애착이론

애착관계는 인간관계의 원형으로, 애착(愛着, attachment)이란 아동이 친밀한 특정 대상에게 갖게 되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이다. Bowlby(1969)는 “특정 애착인물 및 대상과의 근접성을 추구하고 긴밀한 유대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라고 정의하였다. 애착의 주요 특성으로 어린 자녀의 주양육자 어머니에 대한 (1) 근접성 추구, (2) 안식처 및 안전기지로써의 역할 기대, (3) 분리불안의 경험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애착대상의 근접성과 항시 가용성이 안정적 애착형성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일관되고 따뜻한 반응과 민감성이 어린 자녀와의 안정된 애착 형성에 중요한 기제가 됨을 지지한다(Bowlby, 1969, 1980; Ainsworth, Blehar, & Waters, 1978)

(2) 애착 증진 프로그램

애착증진 프로그램은 부모-자녀간의 행동체계가 안정적 애착 관계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행동양식의 습득에 초점을 둔다.

첫째, 부모의 가벼운 신체 접촉은 영유아기 자녀에게 안정감과 친밀감을 제공한다. 쓰다듬기, 비비기, 안아주기 등은 다양한 형태의 접촉 행동(예:베이비 마사지)은 아기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줄 뿐 아니라 엄마와 아이 사이에 긍정적인 애정관계를 상호 돈독하게 해준다. 이는 영유아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적당한 신체

적 접촉과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은 부모-자녀간 안정감과 애정, 치유와 진정의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관되고 온정적인 반응과 행동양식을 강조한다. 어린 자녀가 울거나 힘들어 할 때, 부모는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 자녀의 요구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응대해줄 필요가 있다. 자주 눈맞춤 해주고 대화를 시도하며 자녀의 행동에 반응을 보이는 등, 이러한 주고받음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자녀간 신뢰가 형성되게 된다. 따라서 오랜 시간 자녀의 울음을 방치하거나, 무표정한 얼굴로 대한다거나, 자주 접촉하지 않는 등의 근접성과 반응성의 상실은 어린 자녀에게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하여, 이후 부모가 다시 찾아도 애착대상으로서의 역할을 상실,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반응행동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불안정 애착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양질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애착으로 변화할 여지가 있음을 애착 프로그램은 강조한다.

따라서 애착증진프로그램은, 매일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잠자리를 하며, 자주 관심어린 대화를 나누고 의사소통을 하며 온정성을 느끼게 하는 기본적인 애정의 표현이 부모-자녀간 안정적 관계의 형성에 기본이 됨을 체험을 통해 습득케함으로써, 예비부모교육의 주요내용인 가족의 형성, 부모-자녀 관계의 형성과 유지, 부모의 역할 및 문제행동의 치유에 대해 학습하게 한다.

나) 상호작용론과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1) 교류분석 이론(Transaction Analysis)

인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은 여러 가지이나, 이 장에서는 부모-자녀 관계의 분석에 유용한 번(Eric Berne)의 교류분석 이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교류분석이론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에서 발전하여 응용된 것으로, 그 자신의 환자에 대한 치료경험을 토대로 인간의 부적응 문제는 결국 자신이 만들어 낸 산물로 치료자에 의해 치료가 되는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성격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행동체계의 습득을 통해 변화가능하며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개인의 성격이나 문제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므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과 행동 역시 인간관계의 의사소통과 교류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설명 및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인간의 자아상태는 아동자아, 성인자아, 부모자아의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이들 세 가지 형태의 자아 상태가 상황에 맞게 균형을 이루고 운용될 때 가장 적응적

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 교류분석은 개인의 자아상태의 구조를 분석하는데서 출발한다. 아동자아가 어린 시절 느끼고 행동했던 대로의 생활개념이라면, 부모자아 상태는 아동이 성장과정을 통해 부모나 양육자의 행동을 내면화한 가르침 받은 생활개념이고, 성인자아는 아동자아와 부모자아에서 얻은 것으로부터 자신이 형성한 주체적 능력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 자아상태의 구조분석과 정도에 따라 이고그램으로 표현, 이를 통해 염세형, 명랑낙관형, 우유부단형, 정력형 등의 유형화를 통해 자신의 성격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교류와 각본들을 유형화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 부모효율성 훈련 프로그램

부모자녀간의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상호 이해와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긴장과 갈등을 감소시킴으로써 부모의 역할 수행과 자녀 발달에 기여한다.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은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기법으로 자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또한 부모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표현할 것을 강조한다 (Fine & Henry, 1991). 효율적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향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Gordon의 부모효율성훈련 프로그램, Dinkmeyer와 McKay의 체계적 부모효율성훈련 프로그램, Popkin의 적극적 부모역할 프로그램 등이 있다.

첫째, 부모효율성훈련(PET: Parent Effective Training)에 의하면, 아이의 문제는 부모-자녀 관계에 기인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이다. 부모에게 자녀와 좀 더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1963년 PET 프로그램을 개발, 1990년대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현재 우리나라에도 널리 보급되어 있다.

PET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이루어지며, 매주 1회 3시간씩 총 24시간 8주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모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소통기술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며, 구체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선행과제로 문제소유자 가리기,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는 12가지 표현 이해하기, 문제소유가 자녀에게 있을 때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적극적 경청하기, 문제소유가 부모에게 있을 때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나-전달법 실행하기, 부모자녀 모두 이길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무승부법, 자녀와의 가치관 대립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기술 등을 익힌다. PET 교육은 단순한 이론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역할놀이를 통해 직접 다루어 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함께 제공되는 형태이다. 또한 집단 훈련을

통해 다른 부모들의 경험도 함께 학습한다.

<표 II-2-2> PET 프로그램의 주제 및 내용

회 기	주 제	내 용
1주	효과적인 부모역할의 이해	· 행동의 네모꼴 수용도식/문제 소유자 가리기
2주	반영적 경청	· 의사소통 걸림돌 이해하기/반영적 경청 이해하기
3주	반영적 경청의 실제	· 반영적 경청 연습하기
4주	나-전달법	· 나-전달법의 3단계 설명하기
5주	나-전달법의 실제	· 나-전달법 연습하기
6주	갈등의 해결방법	· 권위주의적, 허용적, 민주적 갈등 해결방법 이해하기
7주	민주적 갈등해결 방법 적용	· 문제해결의 6단계 이해 및 연습하기
8주	가치관 대립의 해결방법	· 다른 사람과의 가치관 차이 수용하는 방법 익히기

출처: 이순형 외(2010). 부모교육. 학지사 p263

둘째, 체계적 부모효율성훈련 프로그램은 (STEP: 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 미국 플로리다주의 의사소통 및 동기유발 훈련 연구소의 Dinkmeyer와 McKay(1976)가 Dreikurs의 민주적 양육이론에서 행동의 목표 파악, Gordon의 부모 효율성훈련 이론에서 의사소통 기법, Berne의 상호교류분석 이론 및 행동수정이론에서 종합 구성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다. 체계적 부모효율성훈련(STEP)은 부모자녀가 사회적으로 평등한 인간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는 가운데, 부모자녀관계의 질적인 개선을 추구한다. 최근 STEP 프로그램은 6세 이하의 자녀와 10대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김영옥, 2007).

<표 II-2-3> STEP 프로그램의 주제 및 내용

회 기	주 제	내 용
1주	자녀의 행동 이해	· 자녀의 잘못된 행동 이해하기
2주	자녀와 부모 자신의 이해	· 완벽한 부모와 책이 있는(좋은) 부모의 차이 인식하기
3주	격려자신감과 자يا가치감 길러주기	· 자녀의 현재 상태 수용하기/자녀의 장점 인정하기
4주	의사소통-반영적 경청	· 자녀의 비언어적 메시지에 반응하기
5주	의사소통-나-전달법	· 나-전달법 사용으로 부모의 생각과 감정 표현하기
6주	책임감 훈육방법	· 자연적·논리적 귀결 사용법 익히기
7주	자연적·논리적 결과의 활용	· 자녀가 선택한 행동에 대한 논리적 사고 유도하기
8주	가족모임	· 나-전달법 사용하여 가족구성원 간에 솔직한 의사소통하기
9주	자신감 개발 및 잠재력 발휘	· 긍정적인 태도 유지하기

출처: 이순형 외(2010). 부모교육. 학지사 p273

셋째,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APT:Active Parenting Today)은 Adler의 개인심리학과 Dreikurs의 민주적 양육이론, Rogers의 공감적 이해, Gordon의 부모효율성훈련을 바탕으로 Popkin(1983)이 개발한 비교적 최근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다. APT는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디오를 활용한 교육방식을 활용하였다. 교육공학자인 Popkin은 인간은 본 내용의 50%를 잊지 않고 더 잘 기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디오의 행동 모델링을 통한 훈련은 가장 효과적 학습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PT의 초기 프로그램은 만 2~12세까지의 자녀 부모를 위한 현대의 적극적 부모역할이었으나, 이후 1994년 청소년 자녀의 행동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Active Parenting of Teens)이 추가로 개발되어 보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에 소개되었다.

<표 II-2-4> APT 프로그램의 주제 및 내용

회기	주제	내용
1주	부모 역할	· 적극적 부모역할 이해하기
2주	용기와 자아존중감	· 생각-정서-행동의 성공 및 실패 회로 이해하기 /자녀의 기를 살리는 격려의 방법 익히기
3주	자녀의 행동 이해	· 자녀의 행동 목적 이해하기 /긍정적 및 부정적 접근방식 이해하기
4주	책임감의 발달	· 나-전달법/자연적·논리적 결과 이해하기
5주	협동심의 발달	· 적극적 의사소통 이해하기
6주	민주사회에서의 적극적 부모	· 가족모임 및 가족회의에 대한 경험담 나누기

출처: 이순형 외(2010). 부모교육. 학지사 p283

다) 성격이론과 자기이해 강화 프로그램

(1) 성격이론

최근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유년시절 방위가족에서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회고와 이해를 통해 부모의 성장과정을 이해하고 나아가 자신의 성격 형성 과정 및 유형을 파악하는 자기 성찰에의 요구가 큼을 알 수 있다 (예:전춘애, 이미숙, 2003). 특히 영유아기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조사에서 부모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 향상에 대한 필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김지신, 김민정, 김은혜, 이유리, 최정희, 2008). 이는 대부분의 부모교육 프

로그래미 자녀의 성장발달을 돕는데 초점을 두고 주로 대상으로서의 자녀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양육의 주체인 부모자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예비)부모교육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데에 그 의견을 둔다.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 자신이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해야 한다(Bradshaw, 1990). 따라서 부모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부모의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을 지원, 결과적으로 자녀에게도 건강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하므로, 자기이해를 돕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매우 유용하다(류왕호, 1997).

자기이해 증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은 어느 특정이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심리발달이론에 근거한다. 기본적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에서 제시한 충동과 억압 등에 의한 무의식의 세계, 학습이론과 행동주의에서 설명하는 투입-산출의 과정을 통한 성격의 형성, 애착이론을 통해 드러난 자립감 대 의존성의 형성 등, 다수의 성격형성이론에 근거하여 자기이해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2) 자기이해 강화 프로그램

자기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온 이고그램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MBTI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고그램은 교류분석에서 사용되는 자기탐색도구의 하나로(우재현, 2001), 이고그램 체크리스트를 통해 얻은 점수로 자신의 성격구조와 기능을 분석하고 자아상태와 대인관계에서의 기본적인 형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표 II-2-5 참조). 부모 자신의 자아상태를 진단하고 분석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하도록 돕는다.

<표 II-2-5> 이고그램 점수

5개 측정범주	비판적 부모의 마음 (CP)	양육적인 부모의 마음 (NP)	성인의 마음 (A)	자유로운 아이의 마음 (FC)	순응하는 아이의 마음 (AC)
지나치게 높은 점수	비판적	과보호	기계적	자기도취/충동적	자기비하
높은 점수	지배적	헌신적	현실적	개방적	의존적
낮은 점수	관용적	방임적	즉흥적	폐쇄적	독단적

출처: 이순형 외(2010). 부모교육. 학지사 p.300

교류분석(Berne, 1961)에서 제시하는 부모자아상태, 성인자아상태, 자녀자아상태의 세 가지 상호작용형태 중 부모가 어떤 자아상태에 가장 특징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제시된 이고그램의 5가지 범주 문항들의 최종점수를 통해 과연 얼마나 비판적인 부모특성(CP)을 보이는지, 양육적인 부모상태(NP)인지, 혹은 외부세계와의 교류 양식에서 얼마나 성인상태(A)를 보이는지, 자유로운 아이 특성이나 순응적 아이 특성은 얼마나 보이는지 살펴보아 성격유형을 이해하는 검사도구이다. 교류분석에서 성인 자아(A)의 성숙을 목표로 궁극적으로는 다른 자아들과 균형을 이루는 것을 지향한다면, 이고그램에서는 이러한 교류분석의 목표달성을 위해 파악된 자아상태 특성 중 상대적으로 낮은 자아상태의 특성을 향상시키도록 권장하게 된다.

둘째, MBTI는 Jung(융)의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하여 Briggs와 Myers가 보다 쉽게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자기보고식 성격유형지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정택·심혜숙(1990)이 한국판 MBTI성격유형 검사로 표준화하여 여러 상황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융의 심리유형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MBTI에서는 인식과정을 감각(Sensing)과 직관(Intuition), 판단과정을 사고(Thinking)와 감정(Feeling), 외향(Extraversion)과 내향(Introversion) 선호, 삶의 방식으로 인식(Perceiving)적, 판단(Judging)적인 태도의 네 가지 지표를 통해 16개의 성격유형으로 구분하게 된다(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1995).

라. 시사점

예비부모교육의 이론적 토대와 현재 운용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부모교육에의 근간이 되는 이론적 토대에 비해, 이를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 구현하는 데에는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자녀출생이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부모가 되기 이전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더욱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 그리고 대상의 연령과 생애발달주기에 맞는 적절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즉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구체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정보제공과 지식 위주 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부모세대 이해하기와 자기이해증진, 의사소통의 증진 등 인성교육과 구체적 기술의 습득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 예비부모교육의 교육내용(부모됨, 성교육, 양육

지식 등에 충실함과 동시에 현대 (예비)부모교육이 지향하는 관계와 의사소통, 그리고 자기이해에 관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반영하여 예비부모교육 교과내용과 병행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강의와 시청각자료 위주의 예비부모교육에서 발전하여 체험과 실습, 참여, 상담 형태의 교육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가치관 형성과 지식 위주(예: 가족의 중요성, 아동관, 양육지식 등)에만 머물지 않고, 실생활에서 접하는 구체적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표현해야 하는지,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경험중심의 행동을 연습하는 훈련과정이 요구된다.

넷째, 서구 이론에 기반한 예비부모교육이 현재 운용되는 주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가족을 통한 전통적인 예비부모교육 양식(예: 조부모 무릎학교, 금줄, 가족사, 임신전 태교 등)을 발굴하여 한국 고유의 가족 기능을 통한 예비부모교육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비부모교육이 현대적 개념이라고는 하나, 과거 우리나라에서 가족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수되어오던 예비부모교육의 고유한 기능을 가르치고 전수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개별화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루지 못하는 가족과 공동체 중시의 한국적 생활양식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선행연구 검토

가 . 국내

국내에서 발표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의 프로그램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일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둘째는 놀이치료 프로그램, 셋째는 대상이론관계중심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프로그램을 받는 대상은 주로 대학생, 미혼여성, 기타대상으로 구분이 된다.

1) 일반 예비부모 프로그램

일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아동관, 가족관계, 자녀양육 및 지도방법, 의사소통, 발달이론 등을 주제영역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대부

본 선행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그 효과성은 대학생들이 아동에 대한 애정적 태도, 자율적 태도, 아동교육관,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변화됨을 볼 수 있었다. 각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선영(2001)은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대학생 153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모교육 관련 과목 수강여부,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와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아동관', '가족관계', '자녀양육 및 지도방법', '의사소통', '발달이론'을 주제 영역으로 선정하였다. 5가지 주제를 16주에 걸쳐 1주에 2시간씩 총 32시간을 진행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내용 인지도에 대한 사전·사후 반응비교, 프로그램의 만족도, 교육내용에 대한 사후 요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교육내용 영역에 대한 이해와 인지, 필요성 정도에 대해 사전과 사후의 보고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이후 프로그램의 참여의사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보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애착형성,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이병래(2003)는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양강좌를 수강하는 대학생 534명을 대상으로 적용 후 효과를 알아보았다. 프로그램 교육내용 선정을 위해 지역 내 대학생 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교육과 교수들의 자문을 통해 최종확정하여 적용하였다. 프로그램내용으로는 '인간 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 이해', '아동중심교육방법의 의미와 중요성 인식', '자녀 발달에 적합한 교육방법', '자녀의 성장·발달은 부모의 특성과 관계되어 있다는 인식', '부모와 아동 간 바람직한 생활 자세를 형성하기 위한 변화 추구'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 실험집단 대학生的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 그리고 아동 교육관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고,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미(2004b)는 경기도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45명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예비부모로서 요구되는 태도와 가치 정도를 사전 사후에 검사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자가 개발한 예비부모교육의 프로그램은 국내외 예비부모교육 관련 문헌과 설문조사를 기초로 하여,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교육대상자인 대학生的 발달·심리적 요구와 대학

생 가정의 요구, '예비부모들의 만족도와 요구도'를 반영하였다. C 대학의 부모교육 관련된 수업을 수강한 126명의 학생을 실험집단으로, S, H대학교 학생들은 타 교양 강좌를 수강한 119명 학생을 비교집단으로 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이 자기인식, 행복한 가정, 더불어 사는 사회 영역에서 모두 지식 및 태도의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혜준·송승민(2007)은 경기도 H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인 S대학교의 예비부모교육교양강좌를 신청한 학생들 86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여 자녀교육관 및 자녀양육태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관해 검증하였다. 예비부모교육 강좌를 개발하기 위해 2006년 1학기에 예비단계를 통해 강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14주에 걸쳐 실시된 이후 2006년 2학기에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내용으로는 전국 14개의 4년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비부모교육 강좌의 강의계획서를 검토하여 주 교육내용인 '결혼과 가정', '자녀의 발달', '부모교육에 관한 이론 강좌 및 부모의 동기', '미래 부모로서 자기이해', '가족 내 의사소통', '나의 부모를 이해하기', '바람직한 아동관 및 양육태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강좌를 재구성하였다. 사전·사후 검사 결과 애정적 자녀 양육태도에서는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고, 자율적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는 사전보다 사후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의 예비부모프로그램은 국내외 예비부모교육관련 선행 연구와 프로그램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프로그램 효과성 측면에서는 양육에 관한 태도가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 놀이치료 프로그램

놀이의 교육적, 치료적 가치는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으며 놀이를 활용하여 정서, 행동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들을 변화시켜 왔다. 놀이치료는 치료적 기능 뿐 아니라 모든 중재접근과 마찬가지로 예방적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예방적 차원에서 놀이치료의 부모-자녀간 관계형성 방법과 태도를 임상적 치료대상이 아닌 일반인에게 적용한 것이 부모놀이치료(filial therapy)이다(장미경, 임원신, 2004). 이러한 부모놀이치료를 대학생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도입한 것은 건강한 부모-자녀관계를 놀이장면에서 재현하고 아동은 이 관계 속에서 왜곡된 성장을 회복하며 안정되고 건강한 부모-자녀관계를 맺어가게 된다. 이를 아직 부모가 되기 이전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효과를 측정하고 향후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적용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아동과의 상호작용시 공감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대인관계나 자기의식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놀이치료 프로그램의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장미경·임원신(2004)은 천안에 위치한 대학교의 4학년 학생 가운데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부모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적용가능성을 측정하였다. 부모놀이치료 프로그램은 Guerney(1964)가 개발하고 Landreth(1991)가 단기화한 부모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대학생들의 아동과의 상호작용 시 공감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또한 아동에 대한 민감성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희(2009)는 충남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총 24명을 대상(실험집단: 12명, 통제집단: 12명)으로 치료놀이를 적용한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이 대인관계 및 자기의식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프로그램은 이상희(2003)가 개발한 '母-兒 치료놀이프로그램'을 대학생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통제집단에서는 대인관계점수와 자기의식 점수의 사전·사후 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집단에서는 대인관계점수, 자기의식점수가 사전과 사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3) 대상관계이론중심 프로그램

대상관계이론(object relations theory)은 사람들이 생애 초기에 가졌던 대인관계 경험, 특히 주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며, 이런 내면화된 표상들이 개인의 성격형성과 이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조명하는 이론이다(이재훈 역, 1997, 원성희, 유영달, 2006 재인용).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영아의 최초의 대상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자녀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대상관계이론을 토대로 하였고, 특히 대상관계이론 중에서도 인간의 삶 전체에서 유아기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공헌을 한 Winnicott 이론을 바탕으로 하였다. Winnicott의 부모-유아 관계에 관한 이론은 절대적 의존기에서 상대적 의존기를

거쳐 독립에 이르는 아동의 여정과 아동의 정서적 성장에 촉진적 환경이 되는 모성적 돌봄이 필수 요건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의존단계, 정서발달과정, 촉진적 환경에 대한 주요 개념에 준거하여 주제를 선정하여 교육내용을 제시하였다(원성희, 유영달, 2006).

프로그램방법과 효과성을 살펴보면, 원성희·유영달(2006)은 Winnicott의 대상관계이론을 바탕으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효과분석을 하였는데, 대상은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20대 후반 미혼여성 6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주 1회 2.5시간동안 총 5회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자녀양육태도 변화에 기여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학대 인식의 변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인숙·유영달(2006)도 대상관계이론을 바탕으로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이 자존감 및 부모자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상은 C대학에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 실시 홍보 후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 및 미혼 교직원 26명이 지원하였으나 중도 탈락자 4명을 제외한 22명을 대상(실험집단: 11명, 통제집단: 11명)으로 프로그램 실시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존감의 경우 실험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통제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부모자질에서도 동일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은 기존의 국내선행연구의 주 대상인 대학생이 아닌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나온 배경은 시설아동의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 일반청소년들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에 기인한다. 이에 기존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강기정·배은숙(2007)은 시설청소년 및 퇴소자의 특성 및 요구 분석과 국내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주제영역들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4단계 12회기로 구성하였다. 대상은 00아동복지시설에 별거, 이혼, 가출, 학대 등 유사한 입소배경 및 특성을 가진 고등학생 18명(실험집단: 9명, 비교집단: 9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은 시설청소년의 특성과 국내외 선행연구를 근거로 개발하였고, 내용으로는 '부모기의 이해', '내가 기대하는 부모', '가족 커뮤니케이션', '나도 할 수 있어', '행복찾기-요리

체험·가족테마여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는 자아존중감 점수, 이상적 가족상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로 실험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고, 원가족에 대한 분노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로 실험집단이 더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험집단의 변화과정을 단계별·회기별로 분석한 결과 예비부모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1> 국내 예비부모프로그램 내용과 효과성

구분	연구자	대상	내 용	효과성
종합적 예비부모 프로그램 (발달, 애착)	전선영 (2001)	대학생	-부모역할과 지도방법 습득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현대사회에 변화에 따른 양육문제	-모든 영역에서 지식적 이해 증가
	이병래 (2003)	대학생	-인간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 -발달에 적합한 교육방법의 의미	-애정적 태도, 자율적 태도, 아동교육관의 변화
	김정미 (2004)	대학생	-긍정적 자아개념, 인간발달이론 -바람직한 결혼관 및 양육관 -자녀발달에 따른 부모역할	-모든 영역에서 지식적 이해 증가
	안혜준· 송승민 (2007)	대학생	-가정구성과 출산을 통해 겪는 일 -부모교육이론 및 실제 -원가정의 문제점과 미래가정 계획	-아동 가능성의 성숙, 과정중심 목표설정, 경험중심 교육, 유아주도, 자율적 학습태도 변화
놀이치료 프로그램	장미경· 임원신 (2004)	대학생	-아동놀이의 의미 및 놀이치료 테크닉 -놀이치료 규칙 학습 -예비부모로서의 감정	-아동과의 상호작용 시 공감 능력 향상 -아동에 대한 민감성 증진
	이상희 (2009)	대학생	-초기발달과 신체 접촉의 중요성 이해 -부모-자녀관계의 본질과 부모의 특징 -치료놀이 원리 이해 및 적용	-대인관계점수와 자기의식점수의 유의미한 개선
대상관계 이론중심 프로그램	원성희· 유영달 (2006)	미혼 여성	-모성적 돌봄의 중요성과 유아기 특징 -안아주기 및 공감의 중요성 -신체와 정신 통합의 중요성	-자녀양육태도의 변화 -참여자 아동학대 인식 변화에 기여
	유인숙· 유영달 (2006)	대학생 및 교직원	-어머니역할의 중요성 이해 -초기대상관계가 부부에 미치는 영향 -유아 발달단계의 이해	-자존감과 부모자질의 향상
자아 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강기정· 배은숙 (2008)	시설 보호 청소년	-동·식물을 통한 생명존중 애착 형성 -이성교제와 배우자선택의 가치관 -대화기술과 능력을 익힘	-자아존중감 점수, 이상적가족상점수, 분노점수의 개선

나. 국외연구

1) 예비부모교육의 효과성 연구

Frank et al.(1992) 연구는 학생(15-16학년)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한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동양육과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교육과정은 'Learning About Parenting/Learning to Care' 이란 과목명으로 2년 동안 3개주 이상의 학교에서 15-16학년 학생들(1년차: 138명, 2년차: 2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교육과정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영유아들의 나이에 맞는 발달특성과 기질에 대한 지식과 부모로서 어떤 양육과 보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학습하고, 정기적으로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수업현장을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영유아들을 관찰하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과정이 완료된 이후 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는 집단을 비교 분석하여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초기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 부모-자녀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 해결력이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Caron & Wynn(1992) 연구는 미혼 대학 졸업자들의 결혼계획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600명의 대학졸업자들을 대상으로 결혼계획에 나타나는 개인적인 욕구, 사회적 욕구, 생물학적인 욕구, 아동들에 대한 관심 등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92%가 자녀를 가질 계획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자녀를 가지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1/3 이상이 개인적인 만족이나 양육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개인적인 욕구 때문에 부모가 되고자 하였다. 이런 개인적인 욕구는 젊은 여성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자녀를 가질 계획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오직 16%의 사람만이 가계계승과 같은 생물학적 욕구 때문에 부모가 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녀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8%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자녀를 가지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주된 이유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며 이혼율이 증가하고 이 세상이 아이들이 살아갈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Weinstein, Estelle, Resen, Efrem.(1994)의 연구는 유치원부터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발달과 자녀양육 개념에 대해 각 학년수준에 맞는 균형있는 교육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K-3학년에서는 아기들이 가족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을 이해하고 자

신과 형제자매가 이름을 가지게 된 문화, 종교적 맥락을 이해하도록 부모들과 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익힌 달걀을 제공하여 보살피도록 함으로써 아기가 보호가 필요한 존재임을 학습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숙제를 통해 아기를 하루 동안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해보며 영아를 둔 학부모들을 초청해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6학년들에게는 가임기동안 건강을 유지하고 임신이후에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자녀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습하며, 가족들의 문화, 개인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양육방식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형화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도록 하며 자녀양육을 위해 지역내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학습하도록 한다. 7-9학년들에게는 수정, 배아, 태아발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학생들에게는 출산, 피임, 가족계획, 임신이 자신들의 장래에 미칠 영향력 등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 지역내 자원을 미리 탐색해 봄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습득하게 된다. 남녀 학생들끼리 조를 구성하여 상대방과 성역할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며, 영아들에게 필요한 영양과 예방적인 준비물에 대해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부모가 되었을 때의 개인적인 재정 지출과 예상 소득에 대해서도 파악하며 출산과 양육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토론할 시간을 가진다. 10-12학년 학생들은 이미 학습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실제의 삶에 적용할 준비를 한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남녀가 가족 안에서 어떻게 다른 상황에 놓이는지에 대해 토론하며, 각 개인이 가지는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와 태도에 대해 서로 공유한다. 또한 그룹으로 나누어 개인적인 가치, 태도, 문제해결능력, 육아 선택범위에 대해 탐색한다. 남학생들에게는 아버지가 되면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와 부인에게 기대하는 역할 등에 대해 질문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내 임신과 출산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비용과 제공 서비스에 대해 직접 탐색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각 학년별 교육내용은 다양한 학문 분야를 포함한 발달 모델에 기초하여 지역사회 가치와 성숙 수준을 반영하여 교과과정을 구성하였다. 특히 남학생들이 초기 아동기시절부터 겪게 되는 차별화된 성역할 경험을 완화하여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가치관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2)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

Flynn(1999) 연구는 일반성인 부모들에 비해 아동학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취

약계층 미성년자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은 Essex Valley Visiting Nurse Association 청소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프로그램은 Healthy Families America Model(National Committee to Prevent Child Abuse, 1997)을 바탕으로 하여 멘토쉽과 사회적 지지를 이론적 틀로 구성하고 있으며, 3년동안 마을주민과 보육전문가가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만들어졌다. 연구에서는 병원기록, 건강진단, 심리평가,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아동학대 고위험군에 속하는 저소득 미성년자 부모 137명(18세 이하, 첫아이를 임신했거나 출산한지 6주이내의 청소년)을 선정하여 2년 동안 보육전문가와 마을주민이 청소년집을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후 데이터는 비슷한 연령의 국가데이터와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생아 사망률, 저체중 영아 출산, 아동방치나 신체학대 발생비율이 국가 평균 발생률에 비해 뚜렷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참여 미성년자 부모들의 면역성이 높아지고 무책임한 재임신 비율이 감소하였다.

Akinbami, Cheng, Komfeld(2001)의 연구는 청소년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인 Teen-top programs가 10대들의 무분별한 출산을 억제하고 자녀양육 향상에 효과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Teen-top programs은 가난한 10대 청소년 부모와 자녀들에게 건강관리 시스템 제공, 가족계획 및 일상적 문제상담, 학교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체계,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10대 부모들의 무분별한 재출산을 막고 학교에서 공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나아가 청소년 부모와 자녀들의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게재된 의학, 심리학, 서지학(bibliographies) 분야의 46편 연구를 선정하여, 연구에서 나타난 Teen-top programs 결과들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크게 1) 프로그램 목표, 2) 프로그램 구성내용, 3) 연구 규모, 4) 프로그램 효과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Teen-top programs들은 단기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재출산을 방지하고 청소년 부모들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하였으며, 청소년 부모와 자녀들의 건강이 향상되는 효과가 검증되었다. 하지만 문헌들에게 나타나는 프로그램 효과성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되지 않아 향후 이에 대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Philliber, Brooks, Lehrer, Oaklet, Waggoner(2003) 연구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뉴멕시코 주에서 임신을 하거나 부모가 된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53개

프로그램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뉴멕시코 주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뉴멕시코 주 Teen Pregnancy Coalition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총 3,194명의 청소년들의 성격, 제공받은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결과들을 종합하여 국가통계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실시되었던 프로그램들의 주된 특징을 살펴보면, 부모가 된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관리자는 대안학교, 학교 부속의 건강센터, 지역사회 기관들이었다. 프로그램들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은 태아검진 교육, 생활기술 훈련, 상담, 가정방문, 학교에서 점심제공 등이었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되는 '가정방문 서비스'는 전체 프로그램의 87%가 제공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기간은 평균 8.8개월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실시후 결과는 일정하지 않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다. 특히 참여자들의 취업 뿐만 아니라 학업을 지속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태아검진을 받는 비율도 증가하였다. 또한 저체중 출산과 무분별한 반복임신 비율은 국가통계와 비교했을 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Sangalang, Barth, Painter(2006)의 연구는 처음 임신을 한 청소년 부모들을 대상으로 Adolescent Parenting Program(APP)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처음 임신한 10대 소녀 1,260명을 APP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후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1,260명과 비교하여 태아검진, 재출산 나이, 출산결과 등을 비교하였다. APP는 처음 임신을 하거나 부모가 된 10대 청소년들을 위해 North Carolina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주축이 되어 지역단체와 협력하여 관리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는 지역 병원, 학교, 법원 등이 의뢰한 18세 이하 청소년 부모들이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1) 참여자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2) 개별적인 관리서비스가 제공되며, 3) 적어도 한달에 한번 동료 그룹과의 만남이 제공된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1) 프로그램 참여기간 동안 두 번째 임신을 하지 않도록 하며, 2) 자신과 자녀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3)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며, 4) 양육기술을 향상시키고, 5) 취업을 준비하며, 6) 약물중독이나 아동방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된다. APP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1991년부터 1998년까지 APP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1,260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APP프로그램 참여자의 나이, 출산시기, 출신지역 등을 고려하여 비교집단을 무작위 선정하였다. 분석은 프로그램 참여집단과 비교집단의 나이, 인종, 배우자 사회적 지위, 임신동안 흡연 여부와 태아검진, 출생아 체중, 초산나이, 재출산 나이 등을 교차분석 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태아

검진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APP 프로그램 참여자가 비교집단에 비해 정상체중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두 번째 임신 시기도 의미있게 지연되어 프로그램 효과성이 나타났다.

<표 11-3-2> 국외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효과성

프로그램명	연구자	대상	내용	효과
The Adolescent Parenting Program of Essex Valley Visiting Nurse Association	Flynn (1999)	1. 18세 이하, 임신/출산 6주 이내 청소년 2. 아동학대 가능성 큰 미성년자 부모	1. 멘토쉽과 사회적지지를 이론적 틀로 구성 2. 지역주민과 보육전문가 방문 프로그램	1. 신생아 사망률, 저체중 영아, 아동방치, 신체학대 비율이 낮아짐 2. 참여 청소년 면역성 향상, 무분별 임신감소
Learning About Parenting/ Learning to Care (school-based curriculum)	Frank et al. (1992)	15-16학년 학생	1. 매월 1회 이상 발달특성, 아동 양육방법 학습 2. 정기적 영유아를 관찰, 부모상담	1. 초기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 향상 2. 부모-자녀간 어려움에 대처하는 문제해결력이 계발됨
Child Development & Parenting	Weinstein et al(1994)	K-3부터 12학년	아동발달, 자녀양육 개념에 대해 각 학년수준에 맞는 균형있는 교육내용 제시	
Teen-top program	Akinbami et al. (2001)	10대 청소년 부모와 자녀들	청소년 부모 건강 관리, 가족계획, 상담, 학교생활지원	1) 재임신 방지 2) 학업 지속 3) 부모, 자녀 건강향상
Adolescent Parenting Program(APP)	Sangalang et al. (2006)	지역 병원, 학교, 법원 등이 추천한 18세이하 청소년부모 (임신청소년)	1) 삶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 2) 개별적인 관리 서비스 제공 3) 매달동료그룹만남.	1) 두 번째 임신 방지 2) 의료서비스 혜택 3) 학업 지속 4) 양육기술 향상 5) 취업 준비 6)약물중독, 아동 방치 방지

다. 요약 및 시사점

국내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효과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이론도 아동관, 가족관계, 발달이론 뿐만 아니라 놀이치료, 대상관계이론

등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대상도 대학생에만 국한 되지 않고 성인, 시설 보호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연구성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국외연구를 살펴보면, 유치원부터 10대 청소년까지 일반적인 프로그램과 특정 취약계층에의 맞춤형 지원 등, 연구대상이 국내 연구보다 좀 더 다양한 편이다. 프로그램 내용은 주로 아동발달, 가족역할 등 전반적인 이론중심의 교육뿐만 아니라 피임, 임신·출산 관련 내용, 부모로서 책임감 등 윤리교육, 인근 보육 시설이나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참여하는 체험학습으로 구성하여 좀 더 현실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프로그램 기간은 몇 회기 정도의 일회성인 아닌 정부기관이나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예비부모교육은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가능하며, 직접적으로 현실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비부모교육 실태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연구들은 대학내 특정 과목을 듣는 수강생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전반적인 대학생들의 예비부모교육 실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10대 청소년, 미혼성인, 그리고 취약계층 또는 위험군 대상의 예비부모교육 실태에 대한 정보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먼저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들의 예비부모교육이 국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예비부모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내실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Ⅲ. 국내의 예비부모교육 현황

본 장에서는 국내 예비부모교육의 현황을 교육 제공 주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중등교육과정에 속하는 고등학교의 교과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비부모교육과 대학의 교양과정에 속하는 강좌 등 학교 중심 예비부모교육과 정부 주도 프로그램, 비정부 사회 단체 및 종교단체 등의 예비부모교육이 속한다. 이와 함께, 외국의 예비부모교육 실시 현황을 일본, 호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내 예비부모교육 현황

국내 예비부모교육의 현황을 학교, 정부, 사회단체,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과 현황을 제시하였다.

가. 학교 교육과정 속 예비부모교육

예비부모교육을 부모역할, 가족관계, 아동발달 등의 측면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 결혼, 이와 관련한 성교육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본다면 오늘날은 초등학교에서도 이를 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있고, 생물이나 기술과 가정 교과를 통해 중학교에서도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기나 청소년 전기에 있는 중학생에게 있어 이러한 내용은 부모교육이라기 보다는 자기자신의 발달상의 변화와 호기심, 단순한 성교육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기는 자신이 부모가 된다는 인식조차 하기 힘든 어린 시기이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를 하고, 보다 성인기에 가까우면서 부모됨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고등학교기의 관련 수업을 예비부모교육의 처음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예비부모교육을 현재 교육과정 속에 '기술·가정' 교과목의 한 장으로 포함하고 있고, 많은 수의 대학교에서는 교양과정으로 개설해 두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의 예비부모교육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고등학교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는 국정이 아닌 검정교과서에 속하며 12개의 출판사에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각기 다른 장 구성, 내용, 디자인을 가지고 제작하고 있다.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이 기술·가정 교과목은 필수과목으로 정해져 있어 12개의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분 1학년 때 가르치고 있다. 이 과목이 대입 수학능력시험에 포함되는 주요과목이 아니므로, 일선 학교에서는 2학년 이상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¹⁾.

연구진이 12종 교과서 중 50%인 6종의 기술·가정 교과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비슷한 차례와 내용을 가지고 있고, 내용의 구성 양식과 실례, 사진 자료 등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이므로 나머지 6종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제일 첫 장이 'I. 가정 생활의 설계'이다. 1장은 다시 세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1절 가정 생활 문화의 변화, 2절 가족 생활 주기와 생활 설계, 3절 결혼과 육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출판사마다 동일하나 각 절 하위의 항으로 내려가면, 조금씩 제목이 다르다. 3절 결혼과 육아 내에서 두 출판사의 항을 비교해보면, ㄱ 출판사는 1)배우자 선택과 결혼, 2)임신과 출산, 3)아동발달로 3절을 구성하였고, ㄷ 출판사는 1)이성 교제와 배우자 선택에 대하여 알아보자, 2)결혼에 대하여 알아보자, 3)부모됨에 대하여 알아보자, 4)임신과 출산에 대하여 알아보자, 5)아동은 어떠한 발달 단계를 거쳐 성장할까, 6)육아는 실제 어떻게 하는 것일까 등을 항 차례에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항이 다르더라도 부모됨, 육아 등에 대한 내용을 두 교과서 다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은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반부에 수업이 이루어지고 총 4회 정도의 수업시간이 할애된다. 이렇게 볼 때 예비부모교육이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가르쳐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예비부모교육은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입시 중심의 교육 체제 하에서 부모교육은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고등학교 생활의 초기에 잠깐 배우는 정

1) 서울시내 모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 담당 교사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도여서 학생들이 기억에 오래 남아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지 생성 과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 1개 학급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의 결과를 보면, 12명이 교과서에서 예비부모교육 내용을 배운 적이 있다고 답하여, 50%이하로 나타났다(학급규모 30명).

<표 III-1-1> 고등학교 교과서 속 예비부모교육 내용

교과서	포함 장	포함 절	포함 항	내용
ㄱ 출판사	1. 가정 생활의 설계	3. 결혼과 육아	1) 배우자 선택과 결혼 2) 임신과 출산 3) 아동 발달	-부모됨의 의미 -임신/출산 -신생아, 영아, 유아, 아동기 발달 및 돌보기
ㄷ 출판사	1. 가정 생활의 설계	3. 결혼과 육아	1) 이성교제와 배우자 선택 2) 결혼 3) 부모됨 4) 임신과 출산 5) 아동의 발달 단계 6) 육아의 실제	- 부모됨의 의미,준비 - 부모의 역할 - 임신/출산 - 발달 단계 - 신생아, 영아, 유아 돌보기

2) 대학교 교양교과

2010년 현재 대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부모교육 관련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 보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9년 현재 전문대 포함 전국 대학교는 373개²⁾로, 4년제 대학이 211개이고 전문대는 162개이다. 이들 학교에 대해 교양과목 개설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전체 359개 학교 중 125개 학교가 부모교육과 관련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비교해보면, 4년제 대학교는 전체 211개 중 112개 학교에서 부모교육관련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53.1%의 개설율을 보이고, 전문대는 수업연한이 짧아 교양과목 개설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수 있는데 148개 중 13개 학교가 개설하고 있어 8.8%의 수업개설율을 보였다. 4년제 대학 112개 중 5개는 필수 또는 '핵심교양'이란 이름으로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과목으로 지정해 두고 있었다. 이 경우 학점을 획득하는데 실패할 경우, 다시 재수강을 해서라도 통과를 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소수의 연내 폐교된 학교도 포함된 수치임.

4년제 대학교의 경우, 개설된 교과목의 명칭에 부모교육이나 육아 등의 용어가 포함된 곳은 23개교, 결혼 또는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강의를 하고 있는 곳이 69개교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부모교육을 결혼준비교육과 구분하여 본다면 훨씬 적은 수의 학교만이 포함될 것이나 결혼이나 가족 강의 가운데 부모로서의 역할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교육을 광범위하게 보고 관련과목을 모두 포함하였다. 아래 <표 III-1-2>에서 보면, 학과목명에 기타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는 여성, 아동, 가족 등 더욱 범위가 큰 용어가 포함된 수업들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부모교육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대학 측에서 설명한 경우들을 같이 포함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에서는 과반수 정도가 부모교육이나 관련 과목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해 두고 있으며, 전문대는 개설비율이 이보다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1-2> ‘부모교육’ 관련 교양교과 개설 대학 수

단위: 개교

학교유형	응답 학교수	교과 개설 학교수	과목명칭에 따른 학교수			학점에 따른 학교수		필수 교양 여부
			부모교육 /육아 등	결혼+ 가족 등	기타	2학점	3학점	
2, 3년제 전문대학	148	13 (8.8%)	3	6	4	11	2	0
4년제 대학교	211	112 (53.1%)	23	69	10	56	56	5

나. 정부 지원 예비부모교육

정부에서 주도하는 예비부모교육은 대표적으로 정부 산하 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저출산 대책 사업으로 정부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사업의 부수 효과로서 예비부모교육 실시 현황을 살펴보았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

가) 사업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2006년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센터 공통 사업으로 구성하여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 지역센터에 보급하고 있으며, 각 지역 교육담당자들

대상으로 사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006년 제작된 결혼준비교육 사업에는 분노갈등과 의사소통 다루기 등 평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한계가 있어 2008년 프로그램 구성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사업에는 출산에 대한 이해, 자녀에 대한 가치관 등 전반적인 결혼생활과 가족관계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었다. 2009년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결혼예비교실이 추가로 구성되어 실시되었으며, 2010년에는 가족교육사업 내 생애주기별 교육의 과정 중 하나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0년 교육내용은 예비부부 및 신혼기 부부프로그램과 결혼준비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6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08-'10년 사업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I-1-3>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내용

연도	내용
2008년	결혼준비교육 강화사업(9-12월) 1.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개정 2.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교육 프로그램 실시 3.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교육프로그램 참여후기 공모
2009년	1. 가족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예비부부/신혼기부부교육 실시 2. 결혼예비교실(3-11월) 저출산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결혼예비교실이 센터 권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을 진행. 연중 어디서나 교육일정에 맞추어 교육에 참여하도록 확대
2010년	1. 예비부부 및 신혼기 부부 프로그램(6회기) 결혼과 가족, 양성 평등한 부부관계 만들기, 의사소통 다루기, 부부갈등에 대처하기, 분노 조절하기, 사랑을 만들어가기 2. 결혼준비교육(6회기) 좋은 파트너, 아름다운 결혼, 행복한 결혼으로 가는 나의 네비게이션, 일도 가족도 행복하게, 좋은 부모되기, 자녀사랑, 우리 준비했어요

나) 각 지역센터 사업현황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예비부부교육은 년 1~2회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루어지는데, 2010년도 하반기 서울권역의 예비부부교육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총 4개의 지역구에서 '결혼준비교실 또는 완소부부가 되고 싶은 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라는 강좌명으로 개설하였고, 기간은 대체로 9월과 10월중에 실시되었다. 참여인원은 평균 16명이나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교육내용은 중앙의 프로그램 매뉴얼을 바탕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크게 결혼과 가족, 재무관리교육, 의사소통교육, 성교육을 진

행하고 지역에 따라 강좌 내용이 추가되어 실시되었다.

<표 III-1-4> 2010년 건강가정지원센터(서울권역) 예비부모교육 현황

지역구	강좌명	기간	참여인원	교육내용
구로구	결혼준비교실	2010.10.16	16명	1.결혼과 가족 -나와 너 이해하기 -결혼과 가족 다시 생각하기 -결혼의 의미와 기대나누기 2.의사소통다루기 -생각과 감정 제대로 주고받기 -발전이 있는 싸움과 화해 -결혼에 필요한 언어 3.부부갈등대처하기 -부부갈등영역이해하기 -부부갈등 대처 방법 익히기
영등포구	결혼준비교실	2010.10.2	8명	1.너와나, 그리고 하나 (의사소통, 갈등 해결 방법) 2.우리부부의 은밀한 결혼생활 (부부성교육) 3.우리 집의 즐거운 자금관리 (재무교육)
도봉구	예비부모교육 '완소부부가 되고 싶은 나'	1차:2010.9.4 2차:2010.10.9	23명	1.결혼과 가족 2.재무관리교육 3.의사소통교육 4.성교육
관악구	커플이해 및 소통증진교육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2010.9.11	18명	1.결혼과 가족 -결혼과 가족이란 -가계도그리기, 가족분화와 가족생활주기 2.재무관리교육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합리적 인 재무관리방법 3.의사소통교육 -남녀 의사소통의 차이 -부부간 행복 가져다주는 필수언어 -갈등해결방법 4.성교육 -남녀의성이해하기 -건강하고 즐거운 성 -신혼기 질병예방 및 2세 위한 피임법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운동 및 정부 활동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과 사회 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첫째, 사회단체법인(가천길재단)과 정부 전달체계(서울시)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 예로 저출산 극복 캠페인 세 살마을 운동을 들 수 있다. 인성발달에 중요한 영유아기 교육을 사회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영유아 양육과 보육의 부담을 부모와 조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부담하여 출산율을 올리고자 하는 상위목표를 두고 진행되는 것이긴

하나, 이를 위한 구체적 사업내용의 제1순위가 예비부모교육 - 예비부모교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탄생축하사업, 행복한 엄마 아빠 교실, 조부모 교실, 보육전문가 교실 등으로 예비부모교육의 내용과 연계되어 이루어져 있다. 제1사업 내용인 '예비부모교실'에서는 대학생/군인 등 미혼남녀에게 결혼과 출산 육아의 의미를 교육하고, 이를 수료한 미혼남녀는 100일이 지난 아기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육아용품을 선물하는 '탄생축하사업'에 참여하는 형식 등으로(조선일보 2010년 6월28일자) 구성되어 있다.

둘째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 산학협동활동의 일환으로, 출산 및 육아, 영유아 관련학과에서 저출산 극복과 행복한 다자녀 가정만들기 대학문화 캠페인을 벌이는 활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 구체적 내용은 예비부모교육의 것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서울의 K대학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다자녀가정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복한 다자녀가정꾸미기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예비 엄마아빠 건강 세미나, 인구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 모임 및 토론회 등을 사업내용으로(재경일보 6월 14일자) 진행하고 있다.

셋째, 출산장려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각종 사회단체 법인의 활동에서도 목적과 프로그램명으로 저출산 극복을 표방하는 가운데 실제 내용구성은 예비부모교육의 주요 내용인 가정의 구성과 가족의 의미, 행복한 결혼 생활,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례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되는 젊은 세대의 결혼기피현상과 만혼현상의 타개를 위해 진행되는 결혼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 내용 중 적지않은 부문이 예비부부학교, 결혼 및 출산의 의미 등 주로 가족 및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인식확산과 긍정적 개념형성에 무게를 두고 진행되고 있다.

넷째, 특이한 양육환경에 처한 아동들에 대한 돌봄과 (대리)양육, 취약한 양육환경에서 아이를 키워야하는 예비부모에 대해 실시하는 특수한 형태의 예비부모교육으로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가정위탁지원센터 각 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남의 아이 키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예비위탁부모 대상 부모교육과 미혼모자녀양육환경 조성사업이 있다. 전자는 장차 아이를 데려와 위탁양육을 할 예비위탁부모들에게 위탁아동의 특징과 위탁부모의 역할 및 가정위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순조로운 준비를 돕고자하는 특수한 목적과 상황을 위한 것으로 이 역시 예비부모교육의 형태로 존재하며, 후자 역시 미혼모와 싱글맘이 장차 부모역할을 순조롭고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돕는 미혼모양육인식개선과 이를 위한 예비부모교육이 있다.

다섯째, NGO가 아닌 정부정책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불법 인공임신중절(낙태) 예방을 위한 복지부 사업의 일환으로 10~20대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특성을 고려해 온라인 및 스마트폰을 통해 피임법 등에 관한 건강정보제공과 원치않는 임신 및 위기임신의 경우에 대한 전문상담 핫라인서비스가 마더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하반기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4월 산부인과에서 인공임신중절 예방 상담을 할 수 있는 교육·상담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재 제도화되어있지 않은 임신 및 출산 관련 전문 상담과 교육을 제도화하고 이를 건강보험내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는 산부인과 접근이 용이한 기혼 예비부모 및 가임여성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예비부모교육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다. 사회단체의 예비부모교육

사회단체와 비정부 전달체계(일명 NGO 활동)에 의한 예비부모교육 사업들이 있다. 그 중 비교적 오랜 역사와 사업의 지속성을 갖고 있는 새세대육영회와 굿네이버스, YWCA 등 여성단체 등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복지단체 - 굿네이버스³⁾

굿네이버스에서 수행하고 있는 예비부모교육은 사회개발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방문의 특강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교사들도 함께 참여한다. 건강한 이성교제와 성, 부모됨의 준비, 사랑의 기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래 <표 III-1-5> 에서와 같이 한 해 15만여명의 고3학생들의 예비부모교육을 담당하는 대규모 사회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굿네이버스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NGO 단체의 하나로 아동권리보호(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네트워크(Network), 사회교육(Advocacy) 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사회개발교육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복지관련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전문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방글라데시, 케냐, 네팔 등 20개국과 북한에서 구호개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표 III-1-5> 굿네이버스 고3대상 예비부모교육 참여 현황

단위: 명

연도	참여기관수	교육강사수	학생수
2009년	482	196	154,118

그밖에 학교방문 교육 외 다양한 연령대의 대상자에 대해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 아동권리 향상 교육의 하나로 성교육과 태아·영아 생존프로그램 등도 제공하고 있다.

2) 여성단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YWCA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산실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여성관련 법률상담과 양성평등 법개정운동에 중점을 둔 가운데, 지난 1977년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사회교육사업으로 시작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원에서는 가족법 강좌, 어머니 학교, 할머니 할아버지 학교, 기러기 교실 등 (예비)부모교육 관련 강좌, 전문교육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연간 약 2만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하고 있다.

기독교여성단체인 YWCA에서는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중에 좋은 부모 함께 준비하기와 같은 생애 첫 예비부모교육을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YWCA 가족상담센터에서는 가족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무료, 비공개로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예비)부부행복교실, 좋은 어머니되기, 부부세미나, 결혼예비학교 등의 교육프로그램에서는 부부 건강과 가족관계, 가족의 중요성 등에 대한 내용 외에, 자신의 성격, 진로적성, 다면적인성, 성격유형검사 등 심리검사로 실시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출생 및 성장과정과 과거 방위가족 내에서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회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예비부모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자기 돌아보기의 성찰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각 지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예비)부모역할교육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 YWCA에서는 건강한 부모역할교육이라는 강좌를 분기별로 임산부 또는 예비엄마가 될 수 있는 일반인 모두 대상 구분하여 2달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제공, PET(Parent Education Training)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다. 울산 YWCA에서는 함께하는 '싱싱육이교실'을 통해 임신 5~6개월 이하의 예비부부를 모집하여 약 2달간

부모준비, 먹거리교육, 양육 주거환경, 아이베넷저고리 만들기, 산모와 아기를 위한 싱싱체조 등 교육을 제공하고, 이후 예비부모간 육아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후속모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대한어머니회 등 여성운동 사회단체 등에서 여성교육교육 증진의 형태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다(신혜영, 1996; 김정미, 2004 재인용).

3) 육아지원기관 - 아이코리아 (구 새세대육영회, 한국어린이육영회)

유아교육·보육기관(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의 기회는 점차 체계를 갖추고 일정수준의 양식와 내용, 그 빈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발전해가고 있다. 그러나 기 부모가 된 대상에 대한 부모교육이 아닌 예비부모 대상의 육아지원기관을 통한 교육과 연수, 참여의 기회는 명목상 제한적이나, 육아지원 유관기관과 단체를 통한 예비부모교육은 그 역사가 오래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비영리 사단법인인 아이코리아(구 『새세대육영회』)는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부모교육을 통하여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움을 설립목표로 하여 다양한 연수/교육사업, 사회활동, 연구/학술 지원, 교재교구 개발을 하고 있다. 교육 사업 중 하나로 1990년 육아시설 남고생 대상의 예비부모교육으로 시작하여, 1986년 직장 여성을 위한 예비부모교육으로 확대하였으며 이후 새세대육영회 ‘예비부모교육사 양성’을 통해 예비부모교육의 진로와 영역확장을 꾀했으나, 현재는 부설 치료교육원의 부모·상담 치료기능 만을 남긴 채 정리한 상태로 유관 육아지원기관의 (예비)부모교육의 명맥은 사실상 끊어진 상태이다.

4) 기타 -사설연구소/상담기관, 도서관/문화센터 등

그밖에 사설 교육원에서의 혼인준비교실(예: D서원의 결혼예비학교), 언론사 및 문화센터의 강좌, 아동청소년 및 가족상담소가 제공하는 예비부부 및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부모전이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특강, 강의, 집단상담, 진단 등 비교적 다양한 형태로 단기간 프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다.

라. 종교단체

우리나라의 종교기관의 예비부모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가톨릭

계과 기독교계의 경우에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준비에 관련된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고, 둘째는 불교계에서 승려와 불자를 대상으로 불교적 관점으로 출산과 양육,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는 않다.

가톨릭계에서는 오늘날 많은 이들이 화려한 결혼식을 위한 외적인 준비에만 치중하고 정작 중요한 평생의 혼인 생활을 소홀하게 준비하는 경우를 보며 그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느껴 행복한 혼인 생활을 하기위한 내적 준비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교리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톨릭에서는 성당 내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혼인교리 수료가 필수적이며, 교구마다 혼인교리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교육은 보급이 필요한 교구에서 운영프로그램 담당자가 훈련 후에 각 교구에서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가톨릭 신자이지만 비신자도 참여가 가능하고, 2009년도 기준으로 혼인강좌를 총 20,563명이 이수하였다. 교육내용은 서로의 다름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론, 혼인성사 등을 다루고 교육시간은 5시간정도 진행이 된다.

불교계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올해 처음으로 불교적 출생관, 가족관의 현대적 의미 정립 교육인 '행복한 우리가족, 아기부처님을 만나요'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전국의 사찰 주지스님 및 불자, 일반인(산하시설 종사자 및 시설 이용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최대 과제로 등장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불교적 관점으로 출산과 양육,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교육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불교의 효와 가족가치의 재조명,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미래와 불교, 불교의 생명관·출생관과 생명윤리, 불교의 여성관과 현대의 성평등, 현대의 다양한 가족과 사회적 대교, 불교의 부부관으로 본 부부간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불교의 가족관과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 일·가정 양립과 부부의 가사분담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인원은 1회당 40~100명으로 총 850명 정도 교육할 예정이고, 교육기관은 재단 자체적인 교육을 하거나 사찰(기관, 행사장)을 방문하여 교육할 예정에 있다.

기독교계에서는 종파가 나뉘어져 있어 대형교회를 위주로 결혼예비학교를 실시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교육이 두란노 결혼예비학교이다. 교육 시행 배경은 가정의 붕괴로 인해 사회 혼돈이 극대화 되고 있고, 이를 성경적 가치관의 정립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통해 밝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결혼예비학교가 설립되었다. 결혼예비학교는 1989년 연 2회로 시작해 현재(2010)는

연 13회를 진행하여 매 회마다 40명씩 년 간 520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 장소는 온누리교회 서울과 수원, 대전지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내용은 결혼의 성격적 원리, 남녀차이, 결혼과 자아상의 치유, 부부의 성, 가정경제, 부부대화 갈등해소의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표 III-1-6> 종교기관 예비부모교육

종교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비고
가톨릭	혼인강좌	성인 미혼 남녀	서로의 다름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론 혼인성사(婚姻聖事)	횟수: 1회(5시간)
불교	행복한 우리가족, 아기부처님 을 만나요	승려 불교기관 불자 일반인(산하시 설 종사자 및 시설이용자)	불교의 효와 가족가치의 재조명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미래와 불교 불교의 생명관·출생관과 생명윤리 불교의 여성관과 현대의 성평등 현대의 다양한 가족과 사회적 태교 불교의 부부관으로 본 부부간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불교의 가족관과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 일·가정 양립과 부부의 가사분담	횟수: 중앙-1회 승려-2회 재가자-12회 각 2시간씩
기독교	두란노 결혼예비 학교	성인 미혼 남녀	결혼의 성격적 원리 남녀차이 결혼과 자아상의 치유 부부의 성 가정경제 부부대화와 갈등해소	횟수: 3회(5시간)

마. 요약 및 시사점

지금껏 살펴본 다양한 비정부전달체계, 즉 NGO단체에 의한 예비부모교육의 수행은 정부의 전달체계 및 정책수행과 분리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정부 전달체계 및 지원과 연계되어 산학연 협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가정과 사회단체, 유관기관의 연계 및 교육기관간의 협업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의 예비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비부모교육의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수렴되는 내용과 형식적 체계는 없는 양상이다. 추구하는 상위목적이 사안별로 다르고 추진주체와 대상, 방법, 내용의 질과 양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양산되고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며 무엇보다 단기간 일회성으로 운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심도깊고 현장감 있는 실천적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김정미, 2004b; 채정현, 2005).

프로그램 제공기관이 설정한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위로부터의 교육과정으로 실제로 예비부모교육 대상자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요구도를 반영한 아래로부터의 예비부모교육 과정으로의 보완이 요구된다. 예비부모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NGO단체에서 제공하는 예비부모교육은 일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식의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활동과 참여를 통한 쌍방향의 소통이 가능한 활동성 워크숍, 집단 상담 등의 소집단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었다. 각 주체별로 나름대로의 오랜 역사와 주체적 인식, 전문성을 가지고 장시간 축적해온 인프라와 고유의 활동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향후 예비부모교육의 전체적인 틀 또는 저출산 극복이나 청소년 임신 방지의 일반적인 상위지향목표를 두고 각 관점에서 하위목적과 대상과 내용의 수준 및 양, 방법과 전달체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점검과 설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즉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성과 이에 기반한 연속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전달체계와 지원방식, 정부정책 및 사회단체 활동간의 연계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정부주도의 정책과 전달체계를 통한 예비부모교육의 수행이 미처 접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와 혹은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정부전달체계가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영역을 NGO단체에서 지금껏 축적해온 독자성과 고유성의 장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행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지지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2. 국외 예비부모교육 현황

가. 일본

일본의 예비부모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고등학교의 교과 및 비교과과정과 지역센터를 통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제공,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고등학교 내 예비부모교육

일본의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은 주로 학교에서 가정 교과목을 통해 이루어진다. 고등학교의 가정 교과목을 통한 예비부모교육의 현황 파악을 위해 일본의 가정교과 수업의 할당시간과 내용, 수업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가) 고등학교 가정 교과 운영 현황

일본의 일반 고등학교의 가정 교과는 「가정 기초」, 「가정 종합」의 두 가지로, 보통 1~2학년에서 이루어지며, 1년 또는 2년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 육아관련 내용은 1994년부터 남녀학생 공동필수로 가정 과목을 통해 배우도록 교과 지침이 바뀌었으며, 대개의 경우 수업시수 10~15차시 동안 배우도록 설계되어있다.

우리나라 가정 교과와 마찬가지로 1장의 내용이 예비부모교육에 해당하며, 내용을 비교하자면 다음 <표 III-2-1>과 같다.

목차 비교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가정교과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가정교과 예비부모교육 내용은 가족생활주기를 중심으로 결혼에 이르는 과정과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의 초기 과정까지 그 발달적 추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가정교과내용은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적인 변화에 맞춰 국가의 대표적 양육지원인 보육과 고령자 지원 시스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가정 교과에서 다루는 예비부모교육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일본의 경우, 매우 제한된 사례이긴 하나, 전문 고등학교에 '보육과'가 있어 장래 유아교육·보육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예: 사이타마현립 코노스 여자고등학교 보육과). 전문 고등학교 보육과 학생들을 위한 「발달과 보육」이라는 전문과정 교과서가 따로 있으며, 이는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기초적인 내용⁴⁾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 수업 방식

일본의 가정교과목을 통한 예비부모교육의 특징은 다양한 체험학습 및 현장실습의 강조, 지자체 자체적으로 고안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 그리고 외부강사 초빙의 특장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수업의 진행방식에 있어서도 지자체 중심으로 고안된 다양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으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 인간발달, 아동발달, 어린이 생활과 환경, 함께 생활하기, 아동복지의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III-2-1> 한국일본의 가정교과목 1장 목차 비교

한 국	일 본
I. 가정생활의 설계	I. 자신답게 살기
1. 가정 생활 문화의 변화	1. 생애발달과 가족
(1) 우리나라의 가정 생활	(1) 자신답게 살기
(2) 세계의 가정 생활	(2) 스스로 만드는 인생
	(3) 변화하는 가족 생활
	(4) 남녀가 담당하는 가정생활
2. 가족 생활 주기와 생활 설계	2. 보육과 아동복지
(1) 가족 생활 주기	(1) 아이와의 접촉으로부터 배우기
(2) 생활 설계	(2) 아이가 자라는 힘
	(3) 부모로서 함께 성장하기
	(4) 건강하게 자라날 환경 조성
3. 결혼과 육아	3. 고령자의 생활과 복지
(1) 배우자 선택과 결혼	(1) 고령자의 생활과 사회
(2) 부모됨	(2) 고령자를 이해하기
(3) 임신과 출산	(3) 고령자를 지원하는 시스템
(4) 아이의 발달과 돌보기	(4) 앞으로의 고령사회
	4. 소비자로서의 생활과 환경
	(1) 소비자로서 사회와 관계하기
	(2) 소비행동과 자원·환경
	(3) 앞으로의 소비생활
II. 가정 생활의 실제	II. 생활 조성하기 (의·식·주 생활)
III. 에너지와 수송 기술	III. 생활 설계하기
IV. 건설 기술의 기초	

(1) 히요시가고카 고등학교의 체험학습 ‘접촉 광장’

교토시 히가시야마구의 히요시가고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선택수업인 ‘접촉의 광장’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아동관을 방문, 다양한 부모-자녀 육아 가족을 만날 수 있다. 학생들은 생후 2개월 아기를 안거나 기저귀 가는 법을 배우고, 어머니의 생생한 육아 이야기를 들으며 임신과 출산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이 수업과정을 통해 대개의 학생들은 육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고, 직접 아기를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고 아기를 부드럽게 안고 돌볼수 있게 되는 긍정적 체험을 하게 된다. 실제 아기를 안아보는 체험 외에, 6kg 중량의 추를 배에 부착하는 임신 체험도 있으며, 특히 남학생을 대상으로 만삭의 임신부의 느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⁵⁾

(2) 이바라키 현립 오오타 제2고등학교 사토미교의 성교육

외부강사들을 초빙하여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된 2시간 가량의 성교육 특강을 제공한다. 강사진은 이바라키사춘기보건협회 소속으로, 우선 강의를 통해 몸의 구조나 남녀의 교제방식 등에 대해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⁶⁾. 강의를 끝나면 교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성에 관한 촌극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나누며, '성'에 관한 O× 퀴즈를 실시하여 정답률을 그래프로 표시, 학생들의 성지식 이해도를 보여준다.

(3) 나라여자고등학교의 성교육 세미나

기말고사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1학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한다. 초빙 강사는 조산사로 약 1시간에 걸친 그들의 강연은 설득력이 있고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 생명의 탄생에 맞는 부모의 기쁨과 아이가 탄생하는 위대함에 대해 느끼고,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⁷⁾

(4) 시즈오카현립 후가쿠칸고등학교의 보육체험

1학년 학생들 전원이 후지미야 시내의 오오미야보육원·후지네보육원·세이보유치원·고이즈미보육원·후지미야기타유치원을 방문하여 보육실습을 체험한다. 처음에 어려워하던 학생들도 원아들의 친진난만하고 적극적인 태도에 금방 익숙해지고 보육환경에 적응하게 된다. 보육체험을 통해 고등학생들이 평소 학교에서는 보이지 않던 상냥함과 배려의 태도를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러 장면에서 보여주게 된다.⁸⁾

(5) 돗토리현 교육위원회 고등과가 제공하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⁹⁾

- 고등학생 대상 유아학습 추진

유아학대를 비롯하여 가정의 교육력 저하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부모 대상의 학습회 참가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돗토리 현립 고등학교에서는 부독본(副讀本)이나 보육 체험을 통해 미래의 부모인 고등학생의 부모역할에 대한

5) 2010년 6월 26일자 교토신문 (<http://www.kyoto-np.co.jp/education/article/20100626000069>)

6) 사토미교 홈페이지(<http://www.satomi-h.ed.jp/22seikyoikukowa.html>)

7) 나라여자고등학교 (<http://nghs.blog62.fc2.com/blog-entry-164.html>)

8) 시즈오카현립 후가쿠칸고등학교

(http://www.fugakukan-h.sakura.ne.jp/modules/journal/journal_detail.php?block_id=46&news_id=505&op=comment)

9) <http://www.pref.tottori.lg.jp/dd.aspx?menuid=95556>

이해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동시에 부족하기 쉬운 학생의 사회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커리어 의식의 육성의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하여, 장래 풍부한 인간성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별도 부교재(부독본, 副讀本)의 제공

부모의 역할과 보육의 중요성, 육아의 즐거움을 전달하는 부독본을 제작하여 현내 모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교과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특활활동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습하게 되며, 이 부독본의 내용은 학생들의 예비부모교육 학습을 심화하기 위해 교과서에 기재되지 않은 주제¹⁰⁾와 지역사회 돗토리현의 데이터를 생생하게 담아 다양한 내용과 자료를 제공한다.

- 미래에 부모가 되기 위한 체험학습

보육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서 육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영유아와의 접촉을 통해서 풍요로운 인간성의 육성을 도모한다. 가정과 수업이나 부활동 등 다양한 기회를 이용하여 보육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돗토리현 현립 고등학교 수는 2008년 현재 18개교라 한다.

2) 지역센터를 통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일본의 지역 센터를 통한 예비부모교육은 중앙 내각부에 의한 육아지원센터의 저출산 방지 프로그램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건강지원센터 등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후자의 경우, 주로 조산사들을 강사로 한 경우가 많았으며, 대체로 일본의 예비부모교육은 저출산 및 아동학대의 사회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가) 미야기 육아·여성건강지원센터의 초중고생 대상 사춘기 교육 및 육아 체험 프로그램¹¹⁾

학교, 학부모회, 아동건강육성단체, 그리고 의사 등을 대상으로 강연활동을 실시하며, 조산사들 중심의 강사진을 파견한다. 구체적인 강연내용은 ‘태어난 게 행운이다’, ‘살아있다는 것’, ‘살아갈 지혜’, ‘남녀공동’, ‘영유아 학대 방지’, ‘살아 있는 것만으로 100점’ 등을 주제로 강연을 제공한다. 강연은 당 센터가 제작한 파워포인트 및 아기 인형, 임신체험 자켓 등을 사용하여 청각, 시각, 촉각을 모두 활용하는 참여식 수업

10) ① 아기와 아동들의 만남에서 생각해보자, ② 육아의 현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자, ③ 남녀협력 에 대해 생각해보자, ④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을 지키는 우리들

11) <http://www.woman-assist.sakura.ne.jp/kosodate01.html>

이다. 육아체험학습은 당 센터의 조산사의 강연과 아기 목욕시키기·안기·업기·유모차 체험학습으로 구성되며, 조산사 외에 학교 선생님, 엄마, 아빠들도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미야기) 육아·여성건강지원센터의 이 사업은 2002년에 시작하여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 등 75~80개 학교에 방문 실시하였다.

학교 외, 의사들을 대상으로도 강연을 실시, 줄어드는 산부인과 의사 수에 대한 사회적 경고와 함께 의사의 분발을 요청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검진이나 주치의 없이 출산하기, 중학생 이상에게는 임신부 사망률에 대해서도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센터에 의한 일부 주제의 강연에 대해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나) 내각부 육아지원센터

저출산(小子化)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선진적 조처 사례를 수집하여 활동내용별로 총 사례집을 구성하였는데, 이 가운데에 부분적으로 사춘기 청소년, 결혼전 예비부부, 예비부모 대상의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비부모교육에 해당하는 예들을 제시하면 <표 III-2-2>와 같다.

<표 III-2-2> 일본 육아지원센터의 저출산대책으로서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예

유형	지역	사 례
1. 상담·조언	시즈오카현	사춘기 건강지원대책
2. 정보제공·계몽	나라현	차세대육성지원의 의식계몽사업
3. 교실 강좌	구시로시	종합적인 사춘기 보건사업의 추진
4. 대인 서비스	세타가야구	산전·산후 지원의 산산서포트
5. 교류·이벤트	나라현	새로운 만남 응원사업, 결혼응원단사업, 육아응원단사업
6. 체험	사가미하라시 하마마즈시	사가미하라 중학생 체험지원사업 영유아와의 접촉 체험
7. 거점 정비	후쿠오카현 가츠시카구	청소년 ambitious광장 조성 사업 두근두근 challenge 광장
8. 시스템 구축	도야마현	아동 산산(산전·산후) 광장 추진 사업
9. 기타	쓰루오카시 이바라키현	결혼대책사업 '가정의 날' 추진 사업

출처: 저출산 사회대책에 대한 선진적 조처 사례집, 내각부 2006, 2007, 2008

다) 치바시 조산사협회의 유료 양친학급¹²⁾

치바시의 조산사협회에서는 성인대상 유료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부모되기' 클래스(나다운 출산 클래스, 임신부 요가 클래스, 즐거운 모유 육아 클래스),

이어서 출산후 가족간의 교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산후 모임' 을 제공하고 있다.

라) 커뮤니티 카운셀링 센터(CCC)의 부모준비교육 프로그램¹³⁾

2007년도에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8~9월 두달간, 4시간씩 2회, 2시간씩 1회의 지원강좌를 통해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을 교육한다.

나. 호주

호주의 경우도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부모교육(parenting)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부모교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기관도 설치를 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위의 두 가지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두고자 한다.

1)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의 예비부모교육

호주는 7개의 주(state)로 구성된 나라이므로, 각 주는 교육과정을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있어, 연방정부의 주요 지침을 따르면서 각자의 특성을 살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호주의 수도 캔버라 특별자치지역에 가까이 있고, 국내 중심도시인 시드니가 위치하고 있는 '뉴 사우스 웨일즈' 주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지역이 호주의 행정적 중심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사우스웨일즈교육청(<http://www.boardofstudies.nsw.edu.au/australian-curriculum>)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 고등학교에서는 필수적으로 '지역사회와 가족(Community and Family Studies)' 과목을 이수하고 있으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과로, 여기에 부모교육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주(state)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이 과목의 내용을 보면, 수준에 따라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다. 고등학교 이전, 즉 중학교까지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12) <http://www.chibashi-mw.net/oyakurasu.html>

13) <http://www.k5.dion.ne.jp/~c-c-c/index.html>

예비핵심과정(preliminary core),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핵심과정(HSC Core), 그리고 그와 함께 배울 수 있는 선택과정(HSC Option)이 그것이다. 이 세 단계 교육과정 중 '부모됨과 양육(Parenting and Care)'은 고등학교 핵심과정에서 배우도록 정해져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의 부모됨과 양육 교과의 학습 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은 4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 부모와 양육자(carers) 되기
- 부모됨과 양육 책임감
- 부모됨과 양육 관계
- 부모 또는 양육자를 위한 지원

보다 자세히, 교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에 제시되고 있는 <표 III-2-3>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내용을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가 되었을 경우 사회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여러 지원제도와 기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청소년기 임신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막상 일이 일어난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지원에 대한 정보일 것이므로, 매우 현실반영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모든 고등학생이 공통적이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다면,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는 개인이 해결의 방향을 보다 용이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는 더욱 필요한 내용이라고 사료된다.

<표 III-2-3> 호주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부모됨과 양육 교과의 구성(NSW state)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	수업에서 하는 과제
<p>1. 부모와 양육자 되기</p> <p>1) 생물학적 의미의 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된 임신 -계획 되지 않은 임신 ▶시험관 아기와 인공수정 <p>2) 사회적 의미의 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 ▶위탁 ▶계부모 ▶대리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어서, 생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모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검 ▶출생 기술과 사회적 양육에 대한 법적, 사회적 수행 목록 점검 ▶개별적 보호를 필요로 하거나 계획된 임신 또는 원치 않았던 상황에 대한 평가 등 환경 토론
<p>2. 양육과 보호의 책임</p> <p>1) 부모 또는 양육자가 되기 위한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체적-부모와 자녀 건강을 위한 태아기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자 사이에서 성역할의 중요성에 관한 조사 ▶부모 또는 양육자로서 현재와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	수업에서 하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 또는 양육자로서 수행해야 할 사회적 변화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에 대한 감정적 대비 ▶경제적 <p>2) 양육 관계에서 자원 활용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양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이, 양육기술, 역량, 특수한 욕구 ▶자원: 시간, 에너지, 재정, 주택 ▶이용 가능한 서비스 	<p>미래에 필요한 발달 분야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양육과 보호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효율적인 자원경영인가를 점검하고 다양한 상황에 처한 부모 및 양육자에게 전략적 양육방법 제안 ▶각 그룹끼리 그들이 양육하는 개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요인 조사
<p>3. 부모됨과 양육 관계</p> <p>1) 부모됨과 양육의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 가정의 개인적 집단적 역할 ▶위탁, 입양관계에 의한 또는 친권이 없는 부모 또는 양육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척 -교사 -유급 양육자 -그 외 (의사, 사회복지사, 이웃, 친구 등) <p>2) 부모와 양육자에 대한 역할 기대</p> <p>3) 부모됨과 양육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이, 문화 및 종교, 교육수준, 성별, 이전의 경험/ 자신의 교육태도, 사회경제적 상태, 미디어, 본질적 관계 ▶양육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위주의적/민주주의적/허용적-방관적/방임 ▶특수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화하는 사회에서, 양육과 부양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 기대에 대한 비판적 분석 ▶양육과 부양관계에 미치는 결과를 밝히기 위해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긍정적 관계가 형성된 경우를 설정한 역할극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군가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 -부양받고 있는 상황 ▶가족의 주말 스케줄 분석
<p>4. 부모 및 양육자에 대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적 서비스 ▶사회복지기관 ▶양육단체 ▶지역사회 공동체 ▶정부기관 ▶자녀 돌봄 서비스 ▶양육자 지원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에서 부모 또는 양육자가 이용 가능한 지원 서비스 조사

2) 부모교육에 대한 국가적 노력

가) 청소년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국가인 호주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호주 원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2006년 이후 정부가 놓어준 지역이나 도시에서 멀리 위치한 원주민 청소년에 대한 부모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이 처한 10대 임신 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the Core of Life(COL)” 프로그램이다(www.aifs.gov.au/cfca).

COL 프로그램은 1999년 빅토리아 주에서 개발되었으며, 초기에는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십대들을 지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주로 유려피안 백인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하였으나, 2006-2007년에 걸쳐 원주민 지역의 필요와 요구가 강하여 이들에게 다시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된 프로그램으로 재구성되었다. 이제 COL 프로그램은 원주민 청소년을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이 COL 프로그램은 주로 임신이나 부모됨과 맞닥뜨린 14-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남녀 청소년을 모두 포함한다. 10대 소년들에게도 임신과 그에 따르는 책임,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나 정보 등에 대해 가르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남녀 청소년 모두가 출산, 양육, 신생아 다루기 등 모든 부분에서 지식을 얻고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예비부모교육 정책은 임신한 10대 청소년과 가족의 상황을 개선시키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향후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COL 프로그램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육 기술 및 지식 교육
- 아동 발달
- 사회적 지원
- 긍정적 의사결정력과 자아존중감 향상

나) ‘부모됨 연구센터(Parenting Research Center)’와 ‘가족교육센터(Family Education Center)’

그 외에도 부모됨, 양육 등에 관한 국가적 자료의 생산과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국립연구기관인 ‘부모됨 연구센터’가 설치되어, 연구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특히 원주

민 가정의 양육과 미성년 부모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교육센터가 2011년까지 전국에 20여개까지 세워질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국립 '부모됨 연구센터'는 연구와 교육업무, 그리고 정부정책의 지원 역할을 모두 하는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설립 목적을 지니고 있다.

- 효과적인 부모됨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탐색과 공유
- 부모가 직면한 양육 문제에 대해 연구에 기초한 실천적 해결책의 개발
- 부모 지원을 위한 지역 사회의 역량 개발

기관의 관련자인 N. Virgona는 호주의 부모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부모됨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와 삶의 질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부모됨의 능력을 개발함으로써(부모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해를 끼치는 것을 없애고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긍정적인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2010. 10. 27. 면담 중).

부모됨 연구센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 부모를 위한 양육 정보와 자료의 개발
- 국가 부모 지원 서비스의 운영과 지원
- 관련 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평가
- 부모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 지원
- 정부에 대해 부모교육 관련 자문 및 자료 제공
- 정책입안자와 언론에 대해 정보 제공 및 자문

부모됨 연구센터는 특히 학교와 연계해서 부모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과 부모에게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다. 미국

최근 들어 예비부모교육은 서구사회의 십대 임신 증가 현상과 이에 대한 예방 대책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필수 교과과정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이은화, 김영옥, 1999).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예비부모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각성이 일기 시작해, 1972년 '부모교육'에 대한 국가적 발의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는 사회단체와 연방정부의 지원 속에서 각 급 학교에서 부모역할, 의사소통, 생활기술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으며, 통합적인 가정생활교육 즉 결혼생활에 대한 준비, 인간의 성장과 발달, 책임있는 부모역할,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이 널리 보급되었다(강기정, 배은숙, 2008).

현재 각주마다 실시되고 있는 예비부모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은 다양하며, 이중 대표적인 기관 2곳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PTP(Prepare Tomorrow's Parents),

1) 기관소개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PTP(Prepare Tomorrow's Parents)는 1996년에 설립되었다.

주요목표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다음세대의 양육의 질을 개선하고 더불어 학대, 무관심 속에 유기 당하는 아동의 수를 감소시키고 어린나이에 임신하여 미혼모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주요 활동은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 교사들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자료 제작 및 제공, 예비부모교육 중요성 및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수행, 공무원들에게 예비부모교육을 위한 법률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자와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2) 주요 프로그램¹⁴⁾

매년 65,500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고 있으며, 교육용 비디오 5,000개를 제작하여 보급, 온라인을 통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제작, 37백만 독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PTP에서 실시하는 주요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14) PTP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홈페이지(www.preparetomorrowparents.org)에 게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표 III-2-4> PTP 주요 프로그램 및 활동

기관자체 프로그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녀양육과 가족부양의 이론과 실제(가정, 학교, 청소년 프로그램) 2. 자녀양육을 위한 10가지 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의 부모로서 자녀양육 방법 학습 - 고등학교 과정을 통한 예비부모교육의 실습과 이론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 청소년 대상 외부 교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아기의 생각: 청소년에게 양육의 중요성과 책임감 교육 - 예비아버지 교육(4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강화, 비판적 사고 함양 2. 학교연계 외부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리포니아 가정경제학부, 직업 기술학부의 교육: 중학생 대상 -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고등학교 대상
홈페이지 자료 및 정보 제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모교육 관련 강연자료 제공: 2. 교육자료, 비디오, 브로셔, 교육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내용 요약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정책 입안자 등을 위한 교육자료(비디오와 함께 제공)

나. ESP(Education for Successful Parenting)

1) 기관소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ESP는 아직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방법을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자율적 인간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증진시키고자 설립되었다. ESP의 주요 목표는 10대들의 원치 않는 임신을 감소시키고, 아버지의 양육 개입을 증대시키며,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 시키고, 아동 학대와 방임을 방지하는 것이다.

2) 주요프로그램¹⁵⁾

제공되는 프로그램 종류는 크게 10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10대에 부모가 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각 프로그램은 National Standards 와 California Standards 에 맞추어 구성된 교재와 함께 제공되고 있으며, 학교에서 3~12시간 유연

15) ESP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홈페이지(www.eduparents.org)에 게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하게 적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주요 목표는 부모 역할과 책임에 대해 지각, 올바른 선택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 훌륭한 양육을 위한 기술방법론, 인성적 교육과 함께 인생계획을 세워보는 것이다.

가) 10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10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두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가족을 위한 건강 설계'로 국·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건강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실시된다. 총 3~6시간의 교육과정으로 몇 개의 반이 모여 교육도 가능하다. 프로그램에는 슬라이드, 교재, 집단토론, 비디오 등이 활용된다. 두 번째는 '양육에 대한 지식 Top 10!'으로 대안학교 학생이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총 10~1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을 위한 건강 설계' 과정의 모든 내용과 함께 영상자료와 실제적인 대화 예행 연습, 교과교제 연구 등의 실습이 추가된다.

나) 10대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부모세대에서 세대로' 프로그램은 10대에 부모가 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획된 학교 수업에 기반을 둔 교육 프로그램으로 90분간 워크숍으로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내용은 청소년 발달기, 10대 부모의 양육에 대한 실제와 시대적 흐름, 대화 전략과 적절한 화법이다. 강의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된다.

IV. 예비부모교육의 실태

본 장에서는 예비부모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고등학생, 고등학교 교사, 대학생, 일반 성인 등 4개의 집단이나, 고등학생과 교사는 동일한 시기 교육의 실태로 포함되므로 3개 발달 시기의 예비부모교육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각 시기별로 예비부모교육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수강자의 의견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조사자 특성을 살펴보면 고등학생은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77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본 보고서 I 장의 연구방법 참조), 조사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 <표 IV-0-1>과 같다. 학교계열은 인문계와 실업계, 예술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학교형태는 남녀공학,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학생이 표본에 모두 포함되었다.

<표 IV-0-1> 응답자특성(고등학생 조사)

		단위: %(명)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전체	100.0(770)		
성별		학교계열	
남학생	50.0(385)	인문계	77.9(600)
여학생	50.0(385)	실업계	20.8(160)
학년		예술계	1.3(10)
1학년	32.7(252)	학교형태	
2학년	37.9(292)	남녀공학	49.4(380)
3학년	29.4(226)	남자고등학교	25.3(195)
경제 수준		여자고등학교	25.3(195)
상	6.4(49)	종교	
중	84.4(650)	개신교	20.3(156)
하	9.2(71)	불교	10.8(83)
거주지역		천주교	6.5(50)
대도시	48.3(372)	기타종교	1.3(10)
중소도시	39.7(306)	종교없음	60.0(462)
읍·면지역	11.9(92)		

대학생조사는 전국의 78개 대학에서 98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본 보고서 I 장의 연구방법 참조), 조사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 <표 IV-0-2>과 같다. 교양과목을

주로 1, 2학년 시기에 많이 듣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런 과정을 지나간 3, 4학년들을 대상에 많이 포함시켰다. 그러다보니 군대 경험이 있는 복학생 남학생들의 비율도 상당한 수가 되어, 군대에서의 예비부모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표 IV-0-2> 응답자 특성(대학생 조사)

단위: %(명)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전체	100.0(986)	결혼여부	
성별		미혼(자녀없음)	100.0(986)
남학생	51.1(504)	청소년기 가구유형	
여학생	48.9(482)	부모+자녀	89.4(881)
학년		한부모+자녀	3.7(36)
1학년	4.6(45)	조부모+부모+자녀	6.6(65)
2학년	16.0(158)	자녀끼리	0.4(4)
3학년	43.0(424)	한부모 가정 유형	
4학년	36.4(359)	부자가정	25.0(9)
대학유형		모자가정	75.0(36)
4년제	76.0(749)	군계대 여부	
3년제	6.7(66)	군필 복학생	39.7(391)
2년제	17.3(171)	군미필	9.8(97)
설립형태		비해당	50.5(498)
국립	11.3(111)	경제 수준	
공립	2.6(26)	상	1.7(17)
사립	86.1(849)	중상	15.3(151)
전공유형		중중	55.8(550)
인문계	20.0(197)	중하	23.1(228)
사회계	23.7(234)	하	4.1(40)
이공계	37.4(369)	종교	
예체능계	5.5(54)	개신교	20.9(206)
사범계	5.2(51)	불교	17.7(175)
의약계	7.4(73)	천주교	9.8(97)
기타	0.8(8)	기타종교	2.1(21)
		종교없음	49.4(487)

성인조사는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예비부부교육을, 성당의 혼인 강좌를 수강하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 <표 IV-0-3>와 같다.

<표 IV-0-3> 응답자 인적사항(성인 조사)

단위: %(명)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전체	100.0(237)	직업	
성별		농·어·임·축산·원예업	0.4(1)
남자	41.8(99)	자영업	4.4(10)
여자	58.2(138)	판매·서비스직	6.2(14)
나이		기능·숙련공	1.8(4)
25세 미만	12.9(30)	일반작업직	0.9(2)
25-30세 미만	43.5(101)	사무·기술직	41.8(94)
30-35세 미만	33.2(77)	경영·관리직	0.9(2)
35세 이상	10.3(24)	전문·자유직	16.4(37)
학력		학생,전업주부,무직	27.1(61)
중졸이하	0.4(1)	월평균 소득수준	
고졸	11.6(27)	100만원 미만	19.0(43)
전문대졸	18.5(43)	100-200만원 미만	42.9(97)
4년제대졸	56.5(131)	200-300만원 미만	25.7(58)
대학원 이상	12.9(30)	300만원 이상	12.4(28)
거주지역		종교	
대도시	53.9(125)	개신교	39.6(90)
중소도시	38.4(89)	불교	11.5(26)
읍·면	7.8(18)	천주교	15.4(35)
결혼여부		기타종교	0.4(1)
기혼(자녀있음)	4.7(11)	종교없음	33.0(75)
기혼(자녀없음)	9.9(23)	교육기관	
미혼(자녀있음)	2.6(6)	건강가정지원센터	64.6(153)
미혼(자녀없음)	82.8(193)	종교기관	35.4(84)

1. 고등학생의 예비부모교육 실태

가. 고등학생 시기의 예비부모교육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예비부모교육은 '가정·기술' 교과목의 한 분야로, 전국 고교에서 기본 이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에 대한 현황을 담당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 교과 수업 현황

가) 예비부모교육 수강 학년

전국의 271개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현재 기술·가정 교과목이 몇 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1학년에서 배운다는 응답이 8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약 9%의 학교는 2학년에서 배운다고 응답하였다. 동일한 과목을 보다 심층적으로 배우는 심화과정 과목이 있을 수 있으나, 1, 2학년 모두에서 배운다는 비율이 2%가 채 되지 않으므로 가정·기술 심화 과목은 학교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교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인문계 고교에서 1학년에 배우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실업/예술계 고교에서는 1학년 또는 2학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반반으로 나뉘었다. 남자 고등학교에서는 모두 1학년에서 배우는 것으로, 남녀공학의 경우는 약 90%, 여자 고등학교의 경우 약 80%가 1학년에서 배우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특성에 따라 기술·가정 교과 대상학년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표 IV-1-1> 고교 기술·가정 교과목 대상 학년

단위: %(명)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과 2학년	1학년과 3학년	1,2,3학년 모두	계(수)
전체	87.9	9.1	0.0	1.9	0.4	0.8	100.0(265)
학교계열							
인문계	96.3	0.9	0.0	1.4	0.5	0.9	100.0(214)
실업/예술계	54.5	41.8	0.0	3.6	0	0.0	100.0(55)
학교특성							
남녀공학	86.3	9.2	0.0	2.6	0.7	1.3	100.0(153)
남고	100.0	0.0	0.0	0.0	0.0	0.0	100.0(42)
여고	79.4	17.6	2.9	1.4	0.0	0.0	100.0(7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사 대상 조사 결과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과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배운 시기에 대해서는 1학년 1학기가 54.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1학년 2학기가 36.6%로 대부분 1학년때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도표에 비해 학기별 현황을 볼 수 있는데, 실업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수업을 듣는 비율이 높아 보이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1학년 1학기에 대부분 수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2> 기술·가정 배운 시기

단위: %(명)

구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기타	계(수)
전체	54.6	36.6	6.3	2.2	0.3	100.0(713)
지역별						
대도시	56.2	33.1	7.7	2.4	0.6	100.0(338)
중소도시	42.9	48.1	6.3	2.8	0.0	100.0(287)
읍면	86.4	12.5	1.1	0.0	0.0	100.0(8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고등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때 교과수업에서 부모교육을 배운 시기를 질문한 결과, 전체 평균 47.3%가 1학년에 배웠고, 2학년에 배웠다는 비율은 14%로 나타났다. 여러 학년에 걸쳐 배웠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10.9% 있었으며,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다는 응답도 26.6%로 적지 않았다. 즉, 대학교 3,4학년이 응답자에 많이 포함되었음을 고려한다면, 고등학교 시기의 교육과정을 기억 못하는 면도 있을 것임을 참작해야 한다. 그럼에도 고등학생이나 교사의 응답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은 교과 내용이 주요과목으로 오래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

<표 IV-1-3> 고등학교 때 예비부모교육 내용을 학습한 시기: 대학생 응답

단위: %(명)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1~2	2~3	1,3학년	1~3	모름	계(수)
전체	47.3	14.0	1.2	7.6	1.6	0.3	1.4	26.6	1000(7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나) 기술·가정 교과 중 예비부모교육 관련 수업 시수

기술·가정 교과서 중 자녀양육관련 내용(결혼과 출산, 부모교육, 가족생활 등)의 장을 지도하는데 실제 배분된 수업 차시는 얼마인지 조사한 결과, 10~15차시가 38%로 가장 많았으며, 16~20차시가 21.6%로 그 다음이었다.

<표 IV-1-4> 고교 기술·가정 교과에 예비부모교육 관련 수업 시수

단위: %(명)

구분	10차시이하	15차시이상	16~20차시	21~25차시	26차시 이상	가정치않음	계(수)	$\chi^2(df)$
전체	18.3	38.4	21.6	11.6	9.3	0.7	100.0(268)	
학교계열								
인문계	19.3	40.6	21.2	10.8	7.5	0.5	100.0(212)	7.43(5)
실업/예술계	12.7	30.9	23.6	14.5	16.4	1.8	100.0(55)	
학교특성								
남녀공학	17.2	39.7	23.8	9.3	9.9	0.0	100.0(151)	8.55(10)
남고	21.4	42.9	16.7	11.9	4.8	2.4	100.0(42)	
여고	17.1	32.9	21.4	17.1	10.0	1.4	100.0(263)	
지역특성								
대도시	22.7	36.4	17.0	11.4	10.2	2.3	100.0(88)	15.58(10)
중소도시	18.0	41.0	18.0	12.0	11.0	0.0	100.0(100)	
군지역	12.8	29.8	38.3	14.9	4.3	0.0	100.0(4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사 대상 조사 결과임.

학교특성별로 인문계 고등학교가 실업/예술계 고등학교 보다, 남고, 그리고 중소도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자녀양육관련 수업 시수를 10~15차시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고, 실업/예술계와 여고/남녀공학, 그리고 군지역의 고등학교에서 16차시 이상을 할애하는 경향이 다소 높았다. 그러나, 학교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IV-1-4 참조).

다) 자녀양육내용 수업 진행 방법

기술·가정 교과에서 자녀양육 내용에 대한 수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강의중심'과 '시청각 자료'의 활용이 주된 수업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와 시청각 자료이용 외 다른 수업방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응답을 보였다. 교사특성별로 살펴보면,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해 시청각 자료의 사용이 더 많은 것으로, 2~30대 교사의 시청각 자료의 이용과 외국문헌의 참조, 실습 등의 수업방식 적용이 상대적으로 많고, 50대 이상 교사에게서 강의중심의 수업진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NIE, 육아서적을 활용한 독서교육, 학습활동지 중심, 연극놀이(역할극), 좋은 방법 구상하기 및 토론 등이 있었다.

<표 IV-1-5> 고교 기술·가정 교과목의 자녀양육내용 수업진행 방법 (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강의 중심	시청자료	외부강사	실습	컴퓨터 프로그램 개별학습	현장방문	외국 문헌 등 참고자료	기타
전체(271)	78.8	79.7	0.9	3.6	4.5	0.5	9.7	5.9
성별								
남	79.1	73.2	2.8	2.8	2.8	0.0	2.8	0.0
여	78.7	80.8	4.9	3.8	4.9	0.5	0.5	6.5
연령								
2~30대	78.9	82.8	0.0	6.3	4.3	2.1	20.0	6.4
40대	75.2	80.7	1.0	2.1	2.1	0.0	7.1	5.2
50대이상	83.0	75.9	1.3	3.9	7.8	0.0	6.6	5.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사 대상 조사 결과임.

학생들에게는 기술·가정 교과목에 아기돌보기 등 관련 실습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6.4%였고 실습을 한다는 응답이 3.6%였는데, 이는 교사의 응답과 정확히 일치하였다. 실업/예술계 학교에서 실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응답한 26명에게 실습횟수에 대해 질문한 결과 69.2%가 1회라고 응답하였으며, 2회가 23.1%로 대부분이 1-2회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습유형에 대해서는 안아주기와 귀저기 갈기가 각각 48.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수유가 44.0%로 나타났다(부표 12 참조).

<표 IV-1-6> 교과목 내 실습수업 포함여부

단위: %(명)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수)	$\chi^2(df)$
전체	3.6	96.4	100.0(713)	
학교계열				
인문계	2.9	97.1	100.0(553)	4.0(1)*
실업/예술계	6.3	93.8	100.0(160)	

* p<.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고등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라) 수업의 효과 지속성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목을 통해 배운 예비부모교육 수업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지 조사한 결과, 제대로 배운 기억을 갖고 있는 대학생은 전체 평균 43.4%로 과

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잘 기억하고 있었다. 한편 배운 것 같으나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 평균 31.2%로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을 회상하지 못했으며, 남학생의 경우가 더욱 그러했다. 부모교육 내용을 배운 기억이 없거나, 기술과 가정 교과목을 안 배웠다는 응답율은 전체 24.5%로 마찬가지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였다.

대학생의 기억에 근거한 고등학교 교과수업을 통한 예비부모교육의 인지효과는 전체 대학생 과반에 못 미치는 다소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술과 가정 교과목 수업이 시수와 빈도, 내용의 깊이와 양의 측면에서 교과계획안에 내실 있게 구성되고, 그것이 정규 교과수업과정 안에서 충실하게 이행되는 과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남녀 성별에 따른 인지효과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여학생보다는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적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남학생 대상 기술교과수업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남녀학생 간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표 IV-1-7> 고교 (예비)부모교육 수업 인지

단위: %(명)

구분	기억남	배웠으나 기억안남	부모교육 기억안남	기술가정 안 배움	기 타	계(수)	$\chi^2(df)$
전체	43.4	31.2	13.1	11.4	0.9	100.0(986)	
성별							
남	31.7	36.7	13.9	16.3	1.4	100.0(504)	67.13(4)***
여	55.6	25.5	12.2	6.2	0.4	100.0(482)	

***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마) 자녀양육 수업진행시의 어려운 점

자녀양육 내용이 포함된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애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청각 자료’와 ‘교재교구’의 부족에 대한 응답이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과서 내용의 불충분성’과 ‘실습교육 불가능’이 응답되었다.

효과적인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돕는 구체적인 시청각 자료와 교구의 구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기타 응답으로는 시간이 부족하다, 수업시수 부족으로 자세히 가르치기 어렵다 등의 할당된 시간 부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여교사보다 남교사의 경우가 ‘교재교구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응답했으며, 여교사는 ‘교과서 내용의 불충분함’과 ‘실습교육 불가능’에 대해 더 많이 응답하였다.

<표 IV-1-8> 고교 기술·가정 교과목의 자녀양육내용 수업진행시 어려운 점

단위: %(명)

구분	교과서 내용 불충분	시청각 자료 부족	교재 교구 부족	실습 불가능	사진 자료 부족	비전공 분야	재교육, 연수 기회 부족	학생들 흥미 부족	기 타	어려움 없음	계(수)	$\chi^2(df)$
전체	13.4	32.0	20.4	10.8	6.3	1.9	2.2	5.6	1.9	5.6	1000(269)	
성별												
남	4.7	32.6	27.9	4.7	4.7	7.0	0.0	9.3	2.3	4.3	1000(117)	287(18)*
여	14.7	32.0	19.1	12.0	6.7	0.9	2.7	4.9	1.8	1.7	1000(60)	
연령												
2~30대	13.3	23.3	21.7	16.7	10.0	3.3	0.0	5.0	5.0	1.7	1000(60)	
40대	9.4	39.3	17.1	11.1	4.3	1.7	4.3	7.7	0.9	4.3	1000(117)	287(18)*
50대이상	17.8	28.9	23.3	6.7	6.7	1.1	1.1	3.3	1.1	10.0	1000(90)	
전공												
가정비전공	8.6	25.9	27.6	5.2	6.9	8.3	1.7	8.6	3.4	-	1000(58)	26799**
가정전공	14.0	33.8	18.4	12.6	6.3	0.0	2.4	4.8	1.4	-	1000(207)	

* p<.05 ** p<.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사 대상 조사 결과임.

연령별로는 2~30대 교사에 비해 40대 교사의 '시청각자료 부족'에 대한 응답율이 높았고, 50대 이상 교사에게서는 '교과서 내용 불충분'으로 인한 어려움이 더 많이 응답되었다. 가정전공 교사의 경우, '시청각 자료의 부족'과 '교과서 내용의 불충분함', 그리고 '실습교육 불가능'에 대해 가정비전공 교사에 비해 다소 높게 응답하였다(표 IV-1-8 참조).

바) 예비부모교육 수업에 대한 흥미

수업을 통해 배운 교과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고 흥미로웠던 내용을 조사한 결과, '임신과 출산 중요성' 이 36.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가족의 이해 및 가정의 중요성' 이 13.7%, '부모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가 11.9% 순으로 가장 흥미로웠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이 가장 흥미로웠다고 응답하였으나 '가족의 이해 및 가정의 중요성' 과 '부모자녀 관계 및 의사소통' 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아동발달'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흥미로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 차이에서는 읍면지역 학생들이 도시지역 학생들보다 '임신과 출산 중요성'에 대해 흥미로웠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부모역할 및 책임

에 대한 이해' 는 대도시지역 학생들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보다 흥미로웠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IV-1-9> 흥미로운 교과목 내용

단위: %(명)

구분	가족 가정 중요성	부모 자녀 관계	부모 역할 책임	결혼관 양성 평등	임신 출산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아동 발달	아동 양육 기술	계(수)	$\chi^2(df)$
전체	13.7	9.4	11.9	7.6	36.9	5.6	9.1	5.8	100.0(713)	
성별										
남	16.9	10.0	12.6	7.7	36.1	6.0	7.7	2.9	100.0(349)	172(7)*
여	10.7	8.8	11.3	7.4	37.6	5.2	10.4	8.5	100.0(364)	
지역별										
대도시	14.2	8.9	15.7	6.2	35.2	6.8	7.4	5.6	100.0(338)	
중소도시	12.2	10.1	9.1	9.1	41.5	4.5	10.5	3.1	100.0(287)	344(14)*
읍면	17.0	9.1	6.8	8.0	28.4	4.5	11.4	14.8	100.0(88)	

* p<.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고등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대학생을 대상으로,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여 예비부모교육 내용 중 흥미 있었던 부분을 찾아보란 질문에서, '임신과 출산' (39.0%)에 관한 내용과 '가정의 구성과 부모의 역할' (29.2%)을 가장 잘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고교생들과 크게 차이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V-1-10> 고등학생 시기 예비부모 교과 중 가장 기억에 남고 흥미로웠던 내용

단위: %(명)

구분	배우자 선택	가정/부모	임신/출산	영유아 돌보기	아동발달 (인지신체)	계(수)	$\chi^2(df)$
전체	10.5	29.2	39.0	9.3	11.9	100.0(428)	
성별							
남	11.9	38.1	33.8	7.5	8.8	100.0(160)	12.31(4)*
여	9.7	23.9	42.2	10.4	13.8	100.0(268)	
대학유형							
4년제	9.3	33.1	36.0	9.0	12.5	100.0(311)	10.65(4)*
2/3년제	13.7	18.8	47.0	10.3	10.3	100.0(117)	

* p<.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성별로는 임신과 출산 및 영유아 돌보기와 아동발달에 관한 내용에 대한 인지효과는 여학생에게 더 컸으며, 가정구성과 부모역할에 관한 내용은 남학생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대학연한별로 비교하면, 가정구성과 부모역할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생이 더 잘 기억하고 흥미로워한 반면 임신/출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2·3년제 대학생이 그러하였다(표 IV-1-10 참조).

나. 예비부모교육관련 가정·기술 교과 외 학교 프로그램

학교에서 기술·가정 교과목에 의한 예비부모교육 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되기'와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약90%에 해당하는 학교에 '없음'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11>기술·가정 교과 외 부모교육 프로그램 유무

구분	있다	없다	계(수)	$\chi^2(df)$
전체	10.8	89.2	100.0(269)	
학교계열				
인문계	9.8	90.2	100.0(214)	1.12(1)
실업/예술계	14.8	85.2	100.0(54)	
학교특성				
남녀공학	10.5	89.5	100.0(153)	2.42(2)
남고	4.9	95.1	100.0(41)	
여고	14.3	85.7	100.0(7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사 대상 조사 결과임.

앞서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해, 학교에서 기술·가정 교과목 외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마련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표 IV-1-11>에서와 같이 5~13사례에 해당하는 매우 제한된 경우만이 응답되었다. 교과외 별도의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예비부모교육의 실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소수 사례에 그치긴 하였으나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경우를 살펴보면, 고3 '수능시험 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고 '재량/특활 수업'에 의한 경우가 각 5사례로 조사되었으며, '부정기 특강'은 2사례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보건수업에 의한 경우와 기타 응답이 각각 11사례, 13사례로 나타나, 학교별로 마련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의 형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1-12> 기술·가정 교과 외 부모되기 교육 프로그램 진행 실태

단위: %(명)

프로그램 형태	사례수	연간 교육 횟수	%(수)	강사	%(수)
수능후 교육 프로그램	5	0회	84.8(28)	교사	84.8(28)
		1회	12.1(4)	외부강사	6.1(2)
		2회이상	3.0(1)	기타	9.1(3)
재량/특활 수업 활용	5	0회	84.8(28)	교사	84.8(28)
		1회	9.1(3)	외부강사	12.1(4)
		2회이상	6.0(2)	기타	3.0(1)
부정기 특강	2	0회	93.8(30)	교사	90.6(29)
		1회	-	외부강사	6.3(2)
		2회이상	6.2(2)	기타	3.1(1)
보건 수업	11	0회	68.8(22)	교사	71.0(22)
		1회	9.4(3)	외부강사	22.6(7)
		2회이상	21.9(7)	기타	6.5(2)
기타	13	0회	56.3(18)	교사	56.3(18)
		1회	28.1(9)	외부강사	37.5(12)
		2회이상	15.6(5)	기타	6.2(2)
사례수	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사 대상 조사 결과임.

연간 교육 횟수와 강사진에 있어서도 '수능후 프로그램'과 '재량/특활 수업', '부정기 특강'을 통한 교과외 교육의 실시는 대개 1~2회로 제한적이었으나, '보건수업'과 학교별로 고안한 '기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연간 2회 이상의 적용과 외부강사진의 초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났다. 기타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응답으로는 학습지 작성, 창의·인성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멘토링 프로그램, 가정과학 등이 있었다(표 IV-1-12 참조).

비슷한 질문으로서, 고등학생들에게 교과 수업외 예비부모교육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98% 이상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의 응답에 비해 더 낮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교사들이 학교 전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데 비해, 본 설문지는 대부분이 2학년 이하의 학생들 대상이었으므로, 수능 후 프로그램, 특강 등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경험에 포함되지 않았으리라고 본다.

<표 IV-1-13> 교과목 수업 외 예비부모교육 경험여부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chi^2(df)$
전체	1.8	98.2	100.0(770)	
성별				
남	1.0	99.0	100.0(385)	2.6(1)
여	2.6	97.4	100.0(38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고등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고등학교 시기의 교과외 예비부모교육 경험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는 23% 정도가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을 하여, 조금의 차이를 보인다. 대학생들은 재량수업 시간에 부모나 양육 관련 수업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기술/가정 등 교과목 외에 부모교육관련 내용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계기에서였는지 (보건시간 성교육, 개인적인 인터넷 정보 활용 제외) 조사한 결과, '없었다'는 응답이 전체 77.4%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교과과정 외 예비부모교육을 고등학교에서 배운 적 있는 경우는 22.6%로, 그 경로는 고교과정내 재량수업을 통해서가 15.4%로 가장 높게, 졸업을 앞두고 수능특강을 통해서 라는 응답은 그 다음 6.0%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는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이 비교과수업을 약 7% 포인트 더 많이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4> 고교시기 교과목외 학교 내 부모교육 경험

단위: %(명)

구분	수능특강	재량수업	동아리	기타	없음	계(수)	$\chi^2(df)$
전체	6.0	15.4	0.9	0.3	77.4	100.0(986)	
성별							
남	5.2	12.7	1.2	0.2	80.8	100.0(504)	8.88(4)
여	6.8	18.3	0.6	0.4	73.9	100.0(482)	
전공							
인문	5.4	15.6	0.6	0.4	78.0	100.0(482)	4.52(8)
이공	7.0	15.2	1.4	0.2	76.2	100.0(442)	
예체능	3.2	16.1	0.0	0.0	80.6	100.0(6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다. 학교 밖 예비부모교육 수강

고등학생에게 학교 밖 어떤 장소에서 예비부모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을 때 99.6%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을 하였다(부록표 참조). 그러므로 고등학생들이 학교 이외의 곳에서 부모교육 관련 내용을 접하는 경우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생 시기 부모교육관련 내용을 학교 밖에서 배운 적이 있는 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계기에서였는지 다시 조사한 결과, '없었다'는 응답이 전체 89.0% 정도로만 나타나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인다. 대학생의 회상에 의한 것이긴 하나, 학교에 다니는 시기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IV-1-15> 고교시기 학교 외 부모교육 현황

단위: %(명)

구분	종교단체	사회단체	캠프	기 타	없음	계(수)	$\chi^2(df)$
전체	3.1	6.1	1.4	0.3	89.0	100.0(986)	
성별							
남	3.6	6.7	1.0	0.6	88.1	100.0(504)	5.64(4)
여	2.7	5.4	1.9	0.0	90.0	100.0(482)	
경제수준							
상	4.2	9.5	3.6	1.2	81.5	100.0(168)	23.74(8)**
중	3.1	6.7	1.1	0.2	88.9	100.0(550)	
하	2.6	2.6	0.7	0.0	94.0	100.0(268)	
종교유무							
있음	5.4	7.2	1.4	0.2	85.8	100.0(499)	20.21(4)***
없음	0.8	4.9	1.4	0.4	92.4	100.0(487)	

** p<.01 ***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고등학교 시절 학교 밖에서 예비부모교육을 배운 적이 있다는 응답은 11.0%로, 그 제공경로는 사회단체 6.1%, 종교단체 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종교를 가진 경우일수록 학교 밖에서 예비부모교육을 배운 경험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학생의 예비부모교육 실태

가. 대학교내 예비부모교육

1) 예비부모교육 경험 유무

지금껏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유무를 살펴본 결과, 전체 77.1%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22.9%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학년, 성별, 거주 지역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응답자 대부분이 대학생이므로 고등학교 가정교과목에서 예비부모교육을 배운 경험이 있기에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IV-2-1> 예비부모 교육 경험 유무

단위: %(명)

구분	경험있음	경험없음	계(수)	$\chi^2(df)$
전체	77.1	22.9	100.0(986)	
성별				
남	70.2	29.8	100.0(504)	27.31(1)***
여	84.2	15.8	100.0(482)	
거주지역				
수도권	79.0	21.0	100.0(486)	8.91(5)
충청권	78.4	21.6	100.0(97)	
전라권	69.8	30.2	100.0(106)	
경북권	68.2	31.8	100.0(88)	
경남권	79.2	20.8	100.0(183)	
강원권	80.8	19.2	100.0(26)	

***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어디를 통해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97.9%가 고등학교에서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대학교에서는 8.3%, 군대에서는 1.3%, 종교시설에서는 0.9%, 사회교육기관 또는 상담기관에서는 0.8%, 병원에서는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로도 90% 이상이 고등학교에서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순으로 가장 많은 경로는 대학교로, 학년유형에서는 1학년이 3.1%인 반면에 4학년이 11.4%로 학년이 높을수록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대상이 많음을 알 수 있었고, 성별에서도 남성이 6.2%인 반면에 여성은 10.1%로 남

성보다는 여성이 예비부모교육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유형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인문/사회/사범계열은 10.8%, 이공/의학계열이 6.4%, 예체능/기타계열에서는 2.3%로 인문/사회/사범계열에서 비교적 더 많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소재지별로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수도권은 5.3%, 대전/충청권은 6.0%, 광주/전라권은 15.7%, 대구/경북권은 6.2%, 부산/경남권은 10.0%, 강원권은 21.6%로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학교 별로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관심도에 차이가 다른 것으로 보여 대학교 내에서도 예비부모교육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강좌를 개설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예비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 IV-2-2> 예비부모교육 수강 경로(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고등학교	대학교	종교 시설	사회교육/상담기관	온라인 강좌	군대	병원	계(수)
전체	97.9	8.3	0.9	0.8	0.4	1.3	0.1	100.0(760)
성별								
남	98.6	6.2	0.8	0.8	0.6	2.8	0.3	100.0(354)
여	97.3	10.1	1.0	0.7	0.2	0.0	0.0	100.0(406)
전공								
인문/사회/사범	97.3	10.8	1.1	0.3	0.5	1.3	0.0	100.0(371)
이공/의학	98.6	6.4	0.6	1.4	0.3	1.4	0.3	100.0(345)
예체능/기타	97.7	2.3	2.3	0.0	0.0	0.0	0.0	100.0(44)
학교소재지								
수도권	99.1	5.3	0.9	0.6	0.0	3.1	0.0	100.0(384)
충청권	98.3	6.0	0.9	1.7	0.0	0.0	0.0	100.0(117)
전라권	95.5	15.7	1.1	1.1	1.1	0.0	1.1	100.0(89)
경북권	98.8	6.2	0.0	0.0	1.2	0.0	0.0	100.0(81)
경남권	97.4	10.3	1.7	0.9	0.9	0.0	0.0	100.0(116)
강원권	91.9	21.6	0.0	0.0	0.0	0.0	0.0	100.0(37)
종교								
개신교	97.0	9.7	2.4	0.0	0.0	0.6	0.0	100.0(165)
불교	96.2	8.4	0.0	0.8	0.0	0.8	0.0	100.0(131)
천주교	100.0	5.6	2.8	4.2	0.0	0.0	0.0	100.0(72)
기타종교	100.0	11.8	5.9	0.0	0.0	0.0	5.9	100.0(17)
종교없음	98.4	8.0	0.0	0.5	0.8	2.1	0.0	100.0(37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2) 예비부모교육 강의 수강

대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수강횟수에 대해 물어본 결과 1회가 전체 68.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3회이상으로 20.3% 이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남학생들이 1회 수강한 비율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여학생은 3회이상 수강한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권은 3회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지역은 절반이상이 1회 수강을 한 경우이었다. 그러나 지역별 구분에서는 사례수가 매우 적어 비교의 타당성이 떨어진다. 대학유형과 전공유형에 관계없이 1회 수강이 가장 많았다. 전공에 있어서는 인문/사회/사범 계열이 3회이상인 경우가 다른 전공에 비해 많았으며, 예체능 전공은 1회 수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 IV-2-3> 수강 횟수

단위: %(명)

구분	1회	2회	3회이상	계(수)	$\chi^2(df)$
전체	68.8	10.9	20.3	100.0(64)	
성별					
남	73.9	13.0	13.0	100.0(23)	1.2(2)
여	65.9	9.8	24.4	100.0(41)	
지역					
수도권	82.4	0.0	17.6	100.0(17)	23.1(10)*
충청권	100.0	0.0	0.0	100.0(6)	
전라권	12.5	12.5	75.0	100.0(8)	
경북권	55.6	22.2	22.2	100.0(9)	
경남권	70.0	20.0	10.0	100.0(10)	
강원권	66.7	22.2	11.1	100.0(9)	
전공					
인문/사회/사범	62.5	10.0	27.5	100.0(40)	n/a
이공/의학	78.3	13.0	8.7	100.0(23)	

* $p < .05$ n/a 교차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대학교에서 받은 예비부모교육의 수강시기는 2학년이 53.9%로 절반이상이었으며, 그 다음은 1학년이 29.7% 이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학생은 1학년과 2학년 수강시기가 비슷한 반면, 여학생은 2학년이 경우가 1학년보다 높아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1학년, 경북권은 4학년 수강시기가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충청권, 전라권, 경남권, 강원권은 2학년때 수강한 경우가 약간의 차이를 나타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사범계열은 1학년과 2학년이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이공/의학계열은 2학년이, 예체능 계열은 1학년때 가장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IV-2-4> 수강 시기

단위: %(명)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수)	$\chi^2(df)$
전체	29.7	53.9	15.6	18.8	100.0(64)	
성별						
남	34.8	34.8	13.0	17.4	100.0(23)	0.5(3)
여	29.7	35.9	15.6	18.8	100.0(41)	
지역						
수도권	41.2	23.5	11.8	23.5	100.0(17)	12.9(15)
충청권	16.7	66.7	16.7	0.0	100.0(6)	
전라권	12.5	50.0	25.0	12.5	100.0(8)	
경북권	33.3	11.1	11.1	44.4	100.0(9)	
경남권	30.0	40.0	20.0	10.0	100.0(10)	
강원권	33.3	44.4	11.1	11.1	100.0(9)	
전공						
인문/사회/사범	32.5	35.0	12.5	20.0	100.0(40)	n/a
이공/의학	21.7	39.1	21.7	17.4	100.0(23)	

n/a 교차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수강한 과목명은 크게 (예비)부모교육과 관련 과목명이 38.3%로 가장 많았다. 부모교육관련 과목명으로는 ‘부모교육’, ‘예비부모교육’, ‘미래사회와 부모교육’ 이었다. 결혼관련 과목명(20.0%)은 ‘결혼과 가족’, ‘결혼과 부모역할’, ‘결혼학개론’, ‘결혼준비교육’ 등이었다. 가족관련 과목명(13.3%)은 ‘한국가족론’, ‘가족과 젠더’, ‘인간과 가족생활’ 등이었다. 기타과목으로는 ‘교육심리학’, ‘인간학’, ‘아동상담’, ‘모성간호’, ‘성과사회’ 등으로 나타났다.

<표 IV-2-5> 수강 과목명

단위: %(명)

구분	부모교육	결혼	가족	기타	특강	계(수)
전체	38.3	20.0	13.3	23.3	5.0	100.0(60)

수강한 수업형태는 교양선택이 57.8%로 가장 많았으며, 전공필수(15.6%)와 전공선택(14.1%)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이나 지역별 비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대학유형에서는 4년제 대학은 교양선택이 68.6%로 절반이상이었으며, 그 다음은 전공선택으로 11.8%이었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전공에 관계없이 교양선택이 50%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업종류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2-6> 수업형태

단위: %(명)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필수	교양선택	기타	계(수)	$\chi^2(df)$
전체	15.6	14.1	7.8	57.8	4.7	100.0(64)	
성별							
남	8.7	13.0	4.3	65.2	8.7	100.0(23)	3.25(4)
여	19.5	14.6	9.8	53.7	2.4	100.0(41)	
전공							
인문/사회/사범	17.5	17.5	7.5	52.5	5.0	100.0(40)	n/a
이공/의학	13.0	8.7	8.7	65.2	4.3	100.0(23)	

n/a 교차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교양으로 과목을 선택한 경우(37명)에 과목을 선택한 동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모교육 내용을 배우고 싶어' 선택한 경우가 32.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수업이 쉽고 학점받기 용이할 거 같아' 선택했다는 경우(27.0%)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강좌개설 시기가 적절하여' 선택한 경우와 '부모교육 내용을 배우고 싶어' 선택하는 경우가 동일하게 제일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부모교육을 배우고 싶어' 선택한 경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수업이 쉽고 학점받기 용이할 거 같아' 선택 한 경우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표 IV-2-7> 교양선택 동기

단위: %(명)

구분	강좌 시간 적절	선배 동료 추천	교육 내용 배움	학점 받기 쉬움	담당 강사 선호	수강 과목 관련	전공 관련	재미 있어서	필요성 느껴서	계(수)	$\chi^2(df)$
전체	10.8	8.1	32.4	27.0	2.7	5.4	8.1	2.7	2.7	100(37)	
성별											
남	26.7	13.3	26.7	20.0	0.0	0.0	6.7	0.0	6.7	100(15)	11.69(8)
여	0.0	4.5	36.4	31.8	4.5	9.1	9.1	4.5	0.0	100(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다루어지는 수업내용에 대해 알아본 결과, '부모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가 64.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현대가족의 이해 및 가정의 중요성'이 51.6%, '동발달에 관한 지식'이 48.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8> 수업내용(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가족이해 가정중요성	가족간 의사소통	부모 역할책임	결혼관 평등의식	임신평임 태교	이동사회적 책임	이동발달 지식	이동양육 기술	사례수
전체	51.6	18.4	64.1	37.5	46.9	40.6	48.4	35.9	64
전공									
인문/사회/사범	52.5	45.0	80.0	40.0	47.5	45.0	52.5	32.5	40
이공/의학	47.8	52.2	39.1	34.8	47.8	34.8	43.5	43.5	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수업방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강의를 통해 진행되는 방식이 90.3%로 대부분이었으며, 그 다음은 영화/비디오 관람이 31.3%, 발표/토론수업이 20.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전공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IV-2-9> 수업방식(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강의	영화/ 비디오 관람	실습	온라인 강의	발표/ 토론	사례수
전체	90.3	31.3	4.7	6.3	20.3	64
전공						
인문/사회/사범	90.0	30.0	5.0	10.0	22.5	40
이공/의학	91.3	34.8	4.3	0.0	17.4	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향후 받고 싶은 수업내용에 대해서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의견이 26.6%로 가장 많았으며, 그와 비슷하게 '부모역할 및 책임'에 대한 내용이 21.9% 이었다. 그에 비해 '현대가족의 이해 및 가족의 중요성',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아동양육기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은 '부모역할 및 책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성/임신 출산, 태교의 중요성', '아동발달에 대한 내용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응답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 선호도가 다양한 반면, 여학생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부모

역할 및 책임'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선호도가 뚜렷한 편이었다.

<표 IV-2-10> 향후 바라는 수업내용

단위: %(명)

구분	가족 이해 중요성	가족간 의사 소통	부모 역할 책임	결혼관 평등 의식	임신 피임 태교	아동 사회적 책임	아동 발달 지식	아동 양육 기술	기타	계(수)	$\chi^2(df)$
전체	3.1	26.6	21.9	9.4	14.1	4.7	10.9	7.8	1.6	100.0(64)	
성별											
남	0.0	17.4	26.1	13.0	17.4	0.0	17.4	4.3	4.3	100.0(23)	8.73(8)
여	4.9	31.7	19.5	7.3	12.2	7.3	7.3	9.8	0.0	100.0(4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표 IV-2-11> 적정 수업기간

단위: %(명)

구분	한 학기	두 학기	계(수)	$\chi^2(df)$
전체	62.5	37.5	100.0(64)	
성별				
남	65.2	34.8	100.0(23)	0.11(1)
여	61.0	39.0	100.0(41)	
전공				
인문/사회/사범	57.5	42.5	100.0(40)	1.52(2)
이공/의학	69.6	30.4	100.0(23)	
예체능/기타	100.0	0.0	10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적정한 수업기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한학기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62.5%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3학기 이상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없었다. 이런 경향은 성별, 전공에 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IV-2-11 참조).

나. 학교 밖 예비부모교육

1) 학교 외 예비부모교육 경험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학교수업 이외에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교육을 받게 된 계기에 대해 살펴본 결과, 종교시설의 경우는 주변권유, 동아리나 교

회특강형식으로 듣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사회교육기간은 강의 필요성을 느끼거나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온라인강좌는 강의의 필요성 이외에 정보검색으로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군대는 의무교육이라 들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병원에서는 주변권유로 듣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IV-2-12> 타 기관에서 교육 받은 계기

종교시설	사회교육기관	온라인강좌	군대	병원
주변권유 동아리통해 교회특강	강의필요성 느낌 학점취득	강의 필요성느낌 정보검색으로 우연히	의무교육	주변권유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학교수업 이외에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수강시기와 교육기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수강시기는 대부분 20-22세로 20대 초반이었으며, 교육시기는 온라인 강좌를 제외하고 3시간내외이었다. 온라인 강좌는 10시간 이상이였다.

<표 IV-2-13> 타기관 교육 수강시기 및 교육기간

단위: 세, 시간

구분	수강시기(세)		교육기간(시간)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종교시설	20.6	5	3.0	5
사회교육기관	22.0	2	3.0	2
온라인강좌	22.1	3	12.3	3
군대	20.8	10	3.3	10
병원	21.0	1	2.0	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학교수업 이외에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교육을 담당 한 사람은 종교시설은 상담사, 종교인, 사회교육기관은 상담사, 온라인강좌는 전문강사, 군대는 상담사와 의사, 병원은 의사가 교육을 담당 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교육내용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비슷하며 내용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 중 군대와 병원에서는 '성, 임신 출산 피임, 태교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IV-2-14> 타 기관 교육담당 및 교육내용

단위: 명

구분	종교시설	사회교육기관	온라인강좌	군대	병원	
교육담당	상담사	1	2	-	7	-
	전문강사	-	-	3	-	-
	의사	-	-	-	3	1
	종교인	4	-	-	-	-
	계	5	2	3	10	1
교육내용	가족이해	-	1	2	2	-
	의사소통	1	1	1	-	-
	부모역할	2	-	3	2	-
	결혼관	2	1	1	2	-
	성/임신	2	1	2	8	1
	양육기술	1	-	-	-	-
	사례수	8	4	9	14	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2) 학교 외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의견

고등학교 졸업이후 지금까지 즉 대학교 수업 이외에 받았던 예비부모교육(총 21사례¹⁶⁾)에 대한 소감을 5개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첫째 내용의 유익성에 대해 '그렇다'(약간+매우)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80.9%, 5점척도 평균 3.90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남자보다는 여자 대학생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대학생이, 4년제보다는 2-3년제 대학생이, 이공계 전공보다는 인문계 전공 대학생에게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율이 높았으나, 적은 사례수로 인해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경제수준과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 경제수준 높을수록,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예비부모교육의 긍정적 효과에 높은 응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6) 적은 사례수로 인해 인구학적 특성별 차이에 대한 유의미성 조사에 한계가 있음.

<표 IV-2-15> 학교 외 예비부모교육 내용의 유익성 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않음	별로 그렇지않음	보통 이다	조금 유익함	매우 유익함	계(수)	평균
전체	0.0	9.5	9.5	61.9	19.0	100.0(21)	3.9
성별							
남	0.0	12.5	6.3	62.5	18.8	100.0(16)	3.8
여	0.0	0.0	20.0	60.0	20.0	100.0(5)	4.2
학교소재							
수도권	0.0	15.4	15.4	53.8	15.4	100.0(14)	3.6
비수도권	0.0	0.0	0.0	75.0	25.0	100.0(7)	4.2
대학유형							
4년제	0.0	12.5	12.5	56.3	18.8	100.0(16)	3.8
2/3년제	0.0	0.0	0.0	80.0	20.0	100.0(5)	4.0
전공							
인문/사회	0.0	0.0	10.0	70.0	20.0	100.0(10)	4.1
이공/의학	0.0	20.0	10.0	60.0	10.0	100.0(10)	3.6
종교유무							
있음	0.0	15.4	15.4	61.5	7.7	100.0(8)	4.3
없음	0.0	0.0	0.0	62.5	37.5	100.0(13)	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3. 성인의 예비부모교육 실태

가. 성인의 예비부모교육 현황

1) 예비부모교육 경험 유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성당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지금껏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90.0%가 경험이 없었고, 10.0%만이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유형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II-11 참조).

<표 IV-3-1>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chi^2(df)$
전체	10.0	90.0	100.0(230)	
성별				
남	7.3	92.7	100.0(96)	1.34(1)
여	11.9	88.1	100.0(134)	
나이				
25세 미만	3.4	96.6	100.0(29)	n/a
25-30세 미만	17.2	82.8	100.0(99)	
30-35세 미만	3.9	96.1	100.0(76)	
35세 이상	4.8	95.2	100.0(21)	
교육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13.4	86.6	100.0(149)	5.50(1)*
성당	3.7	96.3	100.0(81)	

* p<.05 n/a 교차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성인 대상 조사 결과임.

예비부모교육을 받았다면, 어떤 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질문한 결과 38.1%가 국가나 지자체 관련 기관이었고, 28.6%가 직장 내 교육, 23.8%는 사회교육/기관 상담기관과 대학교, 19.0%는 병원 또는 보건소, 4.8%는 고등학교라고 응답하였다. 대부분 예비부모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국가나 지자체 기관 또는 직장 내 교육을 통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교 시절 가정 교과목을 통해서 예비부모교육이 실시되었음에도 응답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이를 예비부모교육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 진다.

<표 IV-3-2> 예비부모교육 받은 경로(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고등학교	대학교	종교시설	사회교육/ 상담기관	군대	직장 내 교육	병원 보건소	국가 지자체 기관	기타	사례수
전체	4.8	23.8	-	23.8	-	28.6	19.0	38.1	9.5	21
성별										
남	-	60.0	-	20.0	-	20.0	-	20.0	-	5
여	6.3	12.5	-	25.0	-	31.3	25.0	43.8	12.5	1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성인 대상 조사 결과임.

2) 성인의 예비부모교육 강의 수강 사항

다음으로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부분 항목에서 약 25세~30세 정도에 교육을 받았고 교육회수는 크게 15회에서 적게는 1회로 대부분 1회 정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강사로는 전문 강사가 대부분 이었고, 상담사나, 의사도 있었다. 교육 내용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성, 임신, 출산, 피임, 태교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 받았고, 부모역할책임 및 이해,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가정이해 및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내용에 대한 평가로는 5점 만점에 4점 이상으로 비교적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

<표 IV-3-3> 성인의 예비부모교육 수강 현황

단위: 명

구분	수강 시기 (연령)	교육 회수 (회)	교육담당			교육내용(중복응답)			
			전문 강사	상담사	의사	가정해 및 중요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모역할책임 및 이해	성,임신,출산 피임태교중요성
고등학교	-	-	-	-	-	-	-	-	-
대학교	31	15.7	5	-	-	1	2	4	3
종교시설	33	1.5	2	-	-	-	1	-	-
사회교육기관(상담기관)	29	1.0	1	1	-	-	-	-	1
정부기관	26.6	1.4	4	1	-	-	2	2	2
군대	27.0	2.0	-	-	-	-	-	-	1
직장내교육	30.3	4.3	3	-	-	1	1	1	3
병원,보건소	38.0	1.0	1	-	1	-	-	1	1
기타	26.0	1.0	1	-	-	-	-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성인 대상 조사 결과임.

나. 현재 수강 중인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성인 참여자에게 현재 수강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성당에서의 예비부부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1)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

먼저 각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IV-3-5>와 같다.

예비배우자를 통해서가 25.3%로 가장 많았고, 지인의 소개가 24.4%로 그 뒤를 이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는 16.4%,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는 14.7%, 홍보물을 보고는 8.0%, 관련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음으로는 5.3%, 기타는 5.8%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예비배우자나, 지인의 소개로 예비부모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유형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48.4%가 예비배우자를 통해서 참여하게 되었고, 여성은 25.4%가 지인의 소개로, 23.1%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여 남성보다는 여성이 교육을 받고자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25세 미만은 지인의 소개로 교육을 받은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예비배우자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참여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교육기관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인의 소개가 가장 많았고, 성당은 예비배우자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종교기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종교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IV-3-4> 교육 프로그램 알게 된 경로

단위: %(명)

구분	지인의 소개	예비 배우자	유사프로그램참여	인터넷 검색	홍보물	관련 직업	기타	계(수)	$\chi^2(df)$
전체	24.4	25.3	14.7	16.4	8.0	5.3	5.8	1000(225)	
성별									
남	23.2	48.4	12.6	7.4	6.3	1.1	1.1	1000(95)	56.0(6)***
여	25.4	8.5	16.2	23.1	9.2	8.5	9.2	1000(130)	
나이									
25세 미만	48.3	6.9	13.8	13.8	6.9	3.4	6.9	1000(29)	n/a
25-30세 미만	21.9	21.9	11.5	19.8	9.4	9.4	6.3	1000(96)	
30-35세 미만	24.7	31.5	17.8	12.3	5.5	1.4	6.8	1000(73)	
35세 이상	9.1	45.5	13.6	22.7	4.5	4.5	0.0	1000(22)	
교육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30.3	18.6	6.2	17.9	12.4	8.3	6.2	1000(145)	50.19(6)***
성당	13.8	37.5	30.0	13.8	0.0	0.0	5.0	1000(80)	

*** p<.001 n/a 교차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성인 대상 조사 결과임.

2) 참여 동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39.9%가 앞으로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고, 15.2%는 (예비)배우자가 원해서, 14.8%는 앞으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성당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20.6%가 종교적 필요성(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다른 유형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IV-3-5 참조).

교육프로그램에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 되었다는 40.2%, 포함 되어 있지 않다는 58.9%로 절반 정도만이 포함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각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거주 지역에서 읍·면의 경우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1.3%로 나타나 예비부부교육이라 할지라도 대도시 보다 읍·면이 예비부모교육을 다루는 비중이 더 적은 것으로 보인다(표 IV-3-6 참조).

<표 IV-3-5>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

단위: %(명)

구분	(예비) 배우자가 원해서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좋은부모 되려고	교양	타인의 권유	종교적 필요성	계(수)	$\chi^2(df)$
전체	15.2	39.9	14.8	4.9	4.5	20.6	1000(223)	
성별								
남	28.7	39.4	11.7	2.1	2.1	16.0	1000(94)	26.74(5)**
여	5.4	40.3	17.1	7.0	6.2	24.0	1000(129)	
나이								
25세 미만	17.2	20.7	10.3	20.7	13.8	17.2	100.0(29)	n/a
25-30세 미만	8.3	43.8	14.6	4.2	3.1	26.0	100.0(96)	
30-35세 미만	22.5	43.7	14.1	-	4.2	15.5	100.0(71)	
35세 이상	22.7	40.9	18.2	-	-	18.2	100.0(22)	
교육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15.3	39.6	20.8	7.6	4.9	11.8	1000(144)	31.51(5)***
성당	15.2	40.5	3.8	-	3.8	36.7	1000(79)	

***p<.001 n/a 교차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성인 대상 조사 결과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성당에서 예비부부교육을 받은 소감을 어떠한지 질문 하였는데, 모르던 것을 많이 알게 되어 매우 유익했음이 54.2%,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34.1%, 대부분 알고 있던 내용이었으나 그런대로 좋았다는 8.4%, 새로운 내

용이 없어 별로 흥미롭지 않았다는 3.3%인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유익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IV-3-7 참조).

<표 IV-3-6> 프로그램 상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 포함 여부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chi^2(df)$
전체	40.2	58.9	100.0(212)	
성별				
남	35.6	64.4	100.0(87)	1.49(1)
여	44.0	56.0	100.0(125)	
거주지역				
대도시	34.9	65.1	100.0(109)	9.42(2)**
중소도시	52.4	47.6	100.0(82)	
읍·면	18.8	81.3	100.0(16)	
교육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40.4	59.6	100.0(141)	0.00(1)
성당	40.8	59.2	100.0(71)	

**p<.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성인 대상 조사 결과임.

<표 IV-3-7> 교육 프로그램 참여 소감

단위: %(명)

구분	매우 유익했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음	그런대로 좋았음	별로 흥미롭지 않음	계(수)	$\chi^2(df)$
전체	54.2	34.1	8.4	3.3	100.0(214)	
성별						
남	51.6	38.5	7.7	2.2	100.0(91)	n/a
여	56.1	30.9	8.9	4.1	100.0(123)	

n/a 교차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성인 대상 조사 결과임.

4.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성인에 대한 예비부모교육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실었다. 먼저 고등학생 시기의 예비부모교육은 대부분 학교의 교과 즉,

「기술·가정」이라는 과목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교과 이외에 학교내 다른 관련 경험이나 학교 밖 사회적 체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수업은 1학년 1학기과 2학기를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연간 4~6주간(10~20차시)에 걸쳐 자녀양육과 부모교육 관련 내용을 지도한다. 수업 방식은 시청각자료 활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교사들은 시청각 자료와 교재교구가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교과목 중 영아다루기 등 실습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96.4%), 학생들은 '임신과 출산' 관련 내용에 가장 많은 흥미를 보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시기 교과 수업에 대해 질문하면 기억나지 않거나 배우지 않았다는 응답이 57%에 이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성인들 대상 설문에서 고등학교에서 관련 내용을 배웠다는 응답이 5%에 지나지 않음은 주의할 바이다.

대학생들은 77%가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응답자 대부분은 고등학교 시절의 수업을 떠올린 경우이고, 실제로 대학이후 시절에 교육을 받은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8.7% 이하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는 6.4%였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매우 적은 수의 대학생이 예비부모교육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교에서 부모교육 수강시기는 1~2학년기이며, 주로 교양선택 수업으로 수강하고 있다. 교양필수는 전체 7.8%에 지나지 않았다. 수업내용은 '부모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대학생들은 한 학기 수강이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외 학교 밖의 사회기관 등에서 예비부모교육을 받는 경우 매우 드물어, 전체 중 2%로 나타났다. 그나마 군대나 종교시설이 다수 교육기관으로 꼽혔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90%가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대학생 집단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부모교육이 대학에서 교양강좌로 개설된 것이 그리 오래지 않은 일임을 생각하고, 4년제 대학을 다니지 않은 성인들이 많음을 감안하면, 더구나 부모교육을 받는 데 관심이 많은 프로그램 참여자임을 생각하면 실재는 이보다 더 낮은 수치일 것으로 사료된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약간 높았고, 국가지원기관에서 부모 관련 교육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물을 보는 비율은 매우 낮아 참여율을 저조하게 하는 원인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은 예비부모교육을 받기 위해 별도로 학교 밖의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거의 가능하지 않으므로, 교육은 학교 안에서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

다. 고등학생의 경우, 첫째, 교사들이 시청각 자료의 부족을 지적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가정교사가 아닌 기술전공 교사가 대부분인 남자 교사가 수업을 담당하는 학교에서는 자료의 보완이 더 많이 필요하다. 남학생들에 대한 부모교육의 기회가 그 만큼 더 적은 점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이므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이를 부모의 역할과 아동의 발달 관련 부분까지 연결하여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함께 교육된다면 더욱 활기찬 수업이 될 것으로 본다.

둘째, 관련 수업을 단기에 완성하기보다 일부분씩 간헐적으로 고등학교 기간 동안 계속 지도할 필요가 있다. 많은 수의 학교가 1학년 1학기 초기에 부모교육관련 수업을 1개월여에 걸쳐 진행하고 있어, 이 때 획득한 지식이 고교 졸업까지도 지속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학생들은 고교에서 배웠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며, 특히 남학생들을 배우지 않았다는 비율도 높았다. 1학년 초기는 중학생에 가까운 초기 청소년기이며, 이 시기에 부모가 되는 일에 대한 고려는 학생들과 너무도 거리가 먼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학년 이후에 수능 교과목이 아닌 교양 교과목을 가르치는 일은 어려운 선택이므로, 정식 교과 이수의 형태가 아닌 다른 방식의 해결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은 고등학생들보다 '부모되기'를 현실에 가까운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게는 부모역할 및 책임, 아동발달 등을 교양으로 가르칠만하며, 수업을 선택한 학생들은 내용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더 많은 학교에서 개설을 하여 선택지를 넓혀 준다면 수강자가 흥미롭게 들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 학기 정도의 과목으로 적정하며 1회 수강에 그치는 현상은, 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다양한 과목을 설치하여 장기간에 걸쳐 수업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제기시킨다. 즉, 아동발달과 양육, 가족의 이해와 의사소통, 부모와 부부로서의 역할 등 주요 내용을 2~3개 과목으로 세분하여 학생들의 선택지를 높여주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남학생에 대해서는 군대에서의 교육시간을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인들은 학교가 아닌, 사회기관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교육기관을 통해 예비부모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커 보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참여가 더욱 저조해지므로,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함께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쪽으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V.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에 대한 탐색

본 장에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예비부부 또는 예비부모인 성인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 부모됨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신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예비부모교육이 청소년과 성인에게 어떤 방향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를 줄 수 있다. 다양한 연령층과 남녀 모두의 의식을 비교함으로써 예비부모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고등학생

가. 결혼하기에 대한 계획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래에 결혼을 할 계획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770명 중 결혼을 할 거라는 응답이 89.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남학생은 91.9%로 86.5%인 여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V-1-1> 고등학생의 결혼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결혼한다	결혼하지 않는다	잘모르겠다	계(수)	$\chi^2(df)$
전체	89.2	4.8	6.0	100.0(770)	
성별					
남	91.9	2.3	5.7	100.0(385)	10.5(2)**
여	86.5	7.3	6.2	100.0(385)	
지역별					
대도시	90.6	4.0	5.4	100.0(372)	7.4(4)
중소도시	87.3	6.9	5.9	100.0(306)	
읍면	90.2	1.1	8.7	100.0(92)	
학교형태					
남녀공학	88.4	5.0	6.6	100.0(380)	8.9(4)
남고	92.3	1.5	6.2	100.0(195)	
여고	87.7	7.7	4.6	100.0(195)	

** p<.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고등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장래에 결혼계획에 대해 결혼을 희망하지 않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81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결혼생활과 개인적인 자유를 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라는 응답이 74.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결혼으로 인한 출산과 육아의 부담, 결혼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부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성별, 지역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V-1-2> 결혼을 희망하지 않거나 불확실한 이유(고등학생) 단위: %(명)

구분	결혼과 개인자유 병행 어려움	출산과 육아 부담	결혼으로 인간관계 부담	기타	계(수)	$\chi^2(df)$
전체	74.1	16.0	8.6	1.2	100.0(81)	
성별						
남	70.0	16.7	13.3	0.0	100.0(30)	1.9(3)
여	76.5	15.7	5.9	2.0	100.0(51)	
지역별						
대도시	73.5	11.8	14.7	0.0	100.0(34)	6.8(6)*
중소도시	78.9	15.8	2.6	2.6	100.0(38)	
읍·면	55.6	33.3	11.1	0.0	100.0(9)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고등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희망하는 장래 결혼연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3%가 25-29세에 결혼하길 원한다고 답하였고, 다음 순으로는 30-34세가 40.9%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부분이 25-35세에 결혼하길 원하고 있었다.

<표 V-1-3> 고등학생의 희망 결혼연령 단위: %(명)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계(수)	$\chi^2(df)$
전체	3.8	53.3	40.9	1.9	0.1	100.0(687)	
성별							
남	2.8	45.5	49.4	2.3	0.0	100.0(354)	24.7(4)***
여	4.8	61.6	31.8	1.5	0.3	100.0(333)	
학교계열							
인문계	3.0	53.6	41.2	2.2	0.0	100.0(534)	9.1(4)
실업/예술계	6.5	52.3	39.9	0.7	0.7	100.0(153)	

** $p < .01$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고등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성별, 지역별로 결과를 비교해보면, 먼저 성별에서는 남성은 30대 초·중반, 여성은 20대중·후반에 결혼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지역이나 학교계열에는 상관없이 25-29세에 결혼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표 V-1-3 참조).

나.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계획

장래에 자녀를 낳아 키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89.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5.8%,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4.9%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자녀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93.2%로 여학생 응답인 85.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V-1-4> 고등학생의 장래 자녀계획 유무

단위: %(명)

구분	낳을 것임	낳지 않을 것임	모름	계(수)	$\chi^2(df)$
전체	89.2	4.9	5.8	100.0(770)	
성별					
남	93.2	2.9	3.9	100.0(385)	13.1(2)***
여	85.2	7.0	7.8	100.0(385)	

***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고등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자녀를 낳아 키울 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인적인 자유로운 삶이 희생될 거 같다는 응답이 35.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출산 및 육아 등이 힘들고 어려울 거 같다는 응답과 경제적 부담이 클 것 같다는 응답이 각각 26.8%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은 개인적인 자유로운 삶의 희생과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36.0%로 동일하게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개인적인 자유로운 삶의 희생이 35.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출산 및 육아의 고충이라는 응답이 29.8%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에서는 개인적인 자유로운 삶의 희생이 36.0%로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는 개인적인 자유로운 삶의 희생과 출산 및 육아의 고충이 동일하게 32.4%로 나타났다. 반면 읍면지역은 경제적 부담이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높아 차이를 보였으며,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V-1-5> 자녀 키울 계획이 없거나 불확실한 이유

단위: %(명)

구분	개인적 자유로운 삶의 희생	출산 및 육아의 고충	경제적 부담	직업과 병행하기 어려움	나 같은 아이를 낳을까 두려움	기형아 출산우려	계(수)	$\chi^2(df)$
전체	35.4	26.8	26.8	8.5	1.2	1.2	100.0(82)	
성별								
남	36.0	20.0	36.0	8.0	0.0	0.0	100.0(25)	2.6(5)
여	35.1	29.8	22.8	8.8	1.8	1.8	100.0(57)	
지역별								
대도시	44.7	23.7	21.1	7.9	2.6	0.0	100.0(38)	19.5(10)*
중소도시	32.4	32.4	27.0	8.1	0.0	0.0	100.0(37)	
읍면	0.0	14.3	57.1	14.3	0.0	14.3	100.0(7)	
학교계열								
인문계	40.0	25.0	26.7	5.0	1.7	1.7	100.0(60)	5.6(5)
실업/예술계	22.7	31.8	27.3	18.2	0.0	0.0	100.0(22)	

* p<.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고등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결혼을 한다면 미래에 희망하는 자녀수가 몇 명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2명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전체 65.6%로 가장 높았고, 3명이 16.4%, 1명이 1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 지역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V-1-6> 희망 자녀수(고등학생)

단위: %(명)

구분	1명	2명	3명	4명이상	계(수)	$\chi^2(df)$
전체	11.4	65.6	16.4	6.6	100.0(687)	
성별						
남	10.6	70.5	15.3	3.6	100.0(359)	13.5(3)**
여	12.2	60.4	17.7	9.8	100.0(328)	
지역별						
대도시	9.0	68.6	16.2	6.3	100.0(334)	7.1(6)
중소도시	13.1	65.3	15.3	6.3	100.0(268)	
읍면	15.3	55.3	21.2	8.2	100.0(85)	

** p<.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고등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첫아이를 가지고 싶은 연령에 대해 물어본 결과, 30-34세가 61.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25-29세가 31.9%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30-34세라는 응답이 각각 71.0%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30-34세라는 응답이 51.5%, 25-29세는 42.7%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V-1-7> 첫 아이 출산 적정연령(고등학생)

단위: %(명)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세이상	계(수)	$\chi^2(df)$
전체	1.2	31.9	61.7	4.8	0.4	100.0(687)	
성별							
남	0.8	22.0	71.0	5.8	0.3	100.0(359)	36.4(4) ^{***}
여	1.5	42.7	51.5	3.7	0.6	100.0(328)	
지역별							
대도시	0.3	32.6	62.9	3.6	0.6	100.0(334)	13.3(8)
중소도시	2.2	28.0	63.8	5.6	0.4	100.0(268)	
읍면	1.2	41.2	50.6	7.1	0.0	100.0(85)	

***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고등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장래에 자녀를 갖고자 하는 경우, 선호하는 성별은 상관없다는 응답이 63.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여아가 20.8%, 남아가 15.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상관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남학생은 남아와 여아를 선호하는 비율이 비슷한 반면 여학생은 여아를 선호하는 비율이 남아를 선호하는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차이를 보였다.

<표 V-1-8> 선호하는 자녀 성별

단위: %(명)

구분	남아	여아	상관없음	계(수)	$\chi^2(df)$
전체	15.3	20.8	63.9	100.0(687)	
성별					
남	17.8	17.5	64.6	100.0(359)	7.1(2) [*]
여	12.5	24.4	63.1	100.0(328)	

* p<.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고등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다. 결혼과 양육에 대한 인식

고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결혼의 중요성,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중요성, 양육을 국가가 책임져야한다에 대해서는 전체의 70%이상 이 그렇다(약간+ 매우)고 응답하였으며, 5점척도에서 평균 3.9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적 성공은 더 중요하다와 자녀양육의 책임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더 부여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낙태는 법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의견은 대체적으로 전체의 40-60%가 그렇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평균 3점대로 나타났다. 결혼 후 무자녀로 지내는 것과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평균 2점대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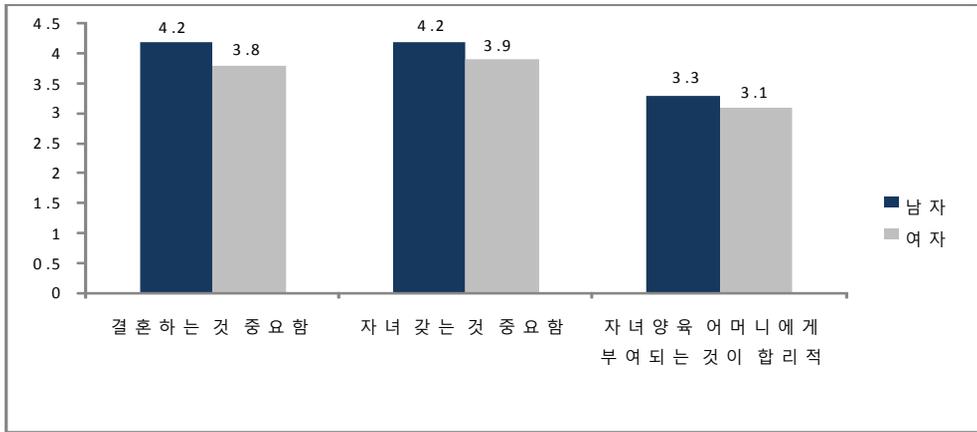
<표 V-1-9> 고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결혼하는 것은 중요함	2.3	7.7	16.9	49.1	24.0	100.0(770)	3.8
자녀 갖는 것은 중요함	1.8	6.0	18.3	46.4	27.5	100.0(770)	3.9
자녀양육보다 직업적 성공이 더 중요함	1.4	7.5	27.1	40.3	23.6	100.0(770)	3.7
자녀양육책임은 어머니에게 더 부여함이 합리적임	5.5	20.4	31.9	34.2	8.1	100.0(770)	3.1
양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함	0.3	2.1	15.7	47.8	34.2	100.0(770)	4.1
결혼없이 자녀출산·양육	23.6	38.3	18.2	17.0	2.9	100.0(770)	2.3
결혼후 무자녀 괜찮음	12.3	33.8	30.9	20.9	2.1	100.0(770)	2.6
낙태는 법적으로 허용될 필요 있음	9.2	17.1	32.7	35.5	5.5	100.0(770)	3.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고등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성별에 따른 비교는 차이가 유의미한 내용만 그래프로 제시하였다(그림 V-1-1 참조). 결혼에 대한 필요성, 미래에 자녀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 자녀양육의 책임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더 부여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V-1-1] 고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성별비교

라. 좋은 부모 되기에 대한 의식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소양과 지식이 따로 있는 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다(약간+매우)는 응답이 전체 76.0%로 절반 이상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소양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패턴은 성별, 지역별에 따른 비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V-1-10 참조).

<표 V-1-10> 좋은 부모됨의 소양과 지식이 따로 있음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chi^2(df)$
전체	1.7	6.5	15.8	56.0	20.0	100.0(770)	
성별							
남	2.6	8.3	13.8	54.3	21.0	100.0(385)	10.6(4)*
여	0.8	4.7	17.9	57.7	19.0	100.0(385)	
지역별							
대도시	1.6	7.3	16.1	57.8	17.2	100.0(372)	10.5(8)
중소도시	2.3	6.2	17.0	51.3	23.2	100.0(306)	
읍면	0.0	4.3	10.9	64.1	20.7	100.0(92)	

* p<.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고등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경제적 능력이 전체 중에서 36.4%로 가장 높았으며,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26.0%, 타고난 성품이 22.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별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경제적 능력을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보는 것은 동일하였으나 타고난 성품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표 V-1-11 참조).

<표 V-1-11> 좋은 부모됨에 필요한 능력

단위: %(명)

구분	양육지식 및 기술	경제적 능력	타고난 성품	양육 가치관	기타	계(수)	$\chi^2(df)$
전체	15.3	36.4	22.2	26.0	0.1	100.0(770)	
성별							
남	15.1	34.5	26.0	24.2	0.3	100.0(385)	7.6(4)**
여	15.6	38.2	18.4	27.8	0.0	100.0(385)	

** p<.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고등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2. 대학생

가. 대학생의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1) 대학생의 희망결혼연령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장래 결혼연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3%가 30-34세에 결혼하길 원한다고 답하였고, 다음 순으로는 25-29세가 45.0%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이 25-35세 정도에 결혼하기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결과를 비교해보면, 먼저 성별에서는 남성의 경우 30-34세에 결혼하겠다는 응답이 61.7%로 가장 많았고, 여성의 경우 25-29세에 결혼하겠다는 응답이 58.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간에 희망하는 결혼 연령대가 남성은 30대 초·중반, 여성은 20대중·후반으로 남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결혼 생각 없음에 대한 문항에서는 남성은 0.0%이고, 여성은 0.8%인 것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이 결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V-2-1 참조).

<표 V-2-1> 희망하는 결혼연령

단위: %(명),세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결혼생각 없음	계(수)	$\chi^2(df)$	평균
전체	1.3	45.0	49.3	3.7	0.3	0.4	100.0(986)		29.5
성별									
남	0.6	32.5	61.7	4.8	0.4	0.0	100.0(504)	76.9(4)***	30.1
여	2.1	58.1	36.3	2.5	0.2	0.8	100.0(482)		29.3

*** p<.001 n/a 교차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2) 자녀 양육에 대한 이미지

장래 부모가 되어 자녀를 기르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몇 번 있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높았고, 여러 번 있음은 2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없다는 응답은 14.2%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자녀를 기르는 모습에 대한 경험에 대해 몇 번 있다는 응답이 각각 57%, 여러 번 있다는 응답에서도 약 27~29%인 것으로 나와 남녀 모두 기르는 모습에 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2-2> 자녀를 기르는 자신의 모습 생각해 본 경험

단위: %(명)

구분	전혀 없음	몇 번 있음	여러 번 있음	계(수)	$\chi^2(df)$
전체	14.2	57.5	28.3	100.0(986)	
성별					
남	15.1	57.7	27.2	100.0(504)	1.03(2)
여	13.3	57.3	29.5	100.0(482)	
거주지역					
수도권	14.6	60.9	24.5	100.0(486)	11.9(10)
충청권	15.5	58.8	25.8	100.0(97)	
전라권	12.3	50.9	36.8	100.0(106)	
경북권	14.8	58.0	27.3	100.0(88)	
경남권	13.7	52.5	33.9	100.0(183)	
강원권	11.5	50.0	38.5	100.0(2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3) 영유아 돌본 경험

영유아(만0-5세)기 아동을 일정 기간(반나절 이상) 혼자서 돌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살펴보면, 전체 59.1%는 경험이 없었고, 40.9%는 돌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38.3%, 여자는 43.6%가 돌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V-2-3> 영유아기 아동을 혼자서 돌본 경험

단위: %(명)

구분	없음	있음	계(수)	$\chi^2(df)$
전체	59.1	40.9	100.0(986)	
성별				
남	61.7	38.3	100.0(504)	2.84(1)
여	56.4	43.6	100.0(4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만일 '있음'에 답하였다면, 돌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88.8%가 가족/친지라고 응답하였고, 그 외 대상은 자원봉사관련이 6.5%, 아르바이트관련이 2.5%, 학교 실습에 관련해서는 2.0%가 아동을 돌봐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로도 별 차이가 없었다(표 V-2-4 참조).

<표 V-2-4> 영유아 돌본 경험의 대상

단위: %(명)

구분	가족/친지	baby-sitter/ 아르바이트 관련	자원 봉사 관련	학교 실습	직장체험 프로그램	계(수)	$\chi^2(df)$
전체	88.8	2.5	6.5	2.0	0.2	100.0(401)	
성별							
남	90.1	2.1	6.8	1.0	0.0	100.0(192)	2.97(4)
여	87.6	2.9	6.2	2.9	0.5	100.0(20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4) 희망하는 자녀 수

결혼을 한다면 미래에 희망하는 자녀수가 몇 명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2명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전체 56.8%로 가장 높았고, 3명이 22.4%로 그 다음 순이었다. 반면 낳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4.4%인 것으로 나타나 결혼 생각이 없다는 응답의 0.4%비해 높은 것으로 보아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아이를 원치 않는 대학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녀 모두 2명이 각각 58.9%, 5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낳고 싶지 않다가 남성의 경우 3.0%, 여성의 경우 5.8%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5> 대학생의 미래 희망 자녀 수

단위: %(명)

구분	1명	2명	3명	4명 이상	낳고 싶지 않음	계(수)	$\chi^2(df)$
전체	11.2	56.8	22.4	5.3	4.4	100.0(986)	
성별							
남	11.1	58.9	21.8	5.2	3.0	100.0(504)	5.55(4)
여	11.2	54.6	23.0	5.4	5.8	100.0(482)	
거주지역							
수도권	12.8	58.4	20.2	3.1	5.6	100.0(486)	32.43(20)*
충청권	9.3	46.4	30.9	8.2	5.2	100.0(97)	
전라권	7.5	55.7	23.6	11.3	1.9	100.0(106)	
경북권	10.2	60.2	21.6	5.7	2.3	100.0(88)	
경남권	12.0	56.8	21.9	6.0	3.3	100.0(183)	
강원권	0.0	57.7	34.6	3.8	3.8	100.0(26)	

* p<.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5) 대학생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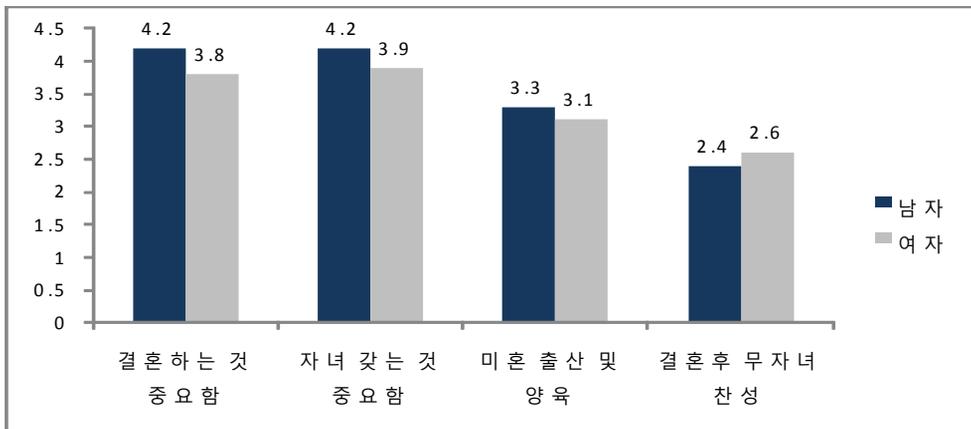
대학생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결혼의 중요성과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70%이상이 그렇다(약간+ 매우)고 응답하였으며, 5점척도에서 평균 4점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양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과 혼전출산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낙태는 개인적인 문제로 법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전체의 40-50%가 그렇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평균 3점대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은 부부가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점과 결혼후 무자녀로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평균 2점대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표 V-2-6> 대학생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결혼하는 것은 중요함	2.5	8.1	15.0	34.9	39.5	100.0(986)	4.0
자녀 갖는 것은 중요함	2.5	6.7	17.5	32.5	40.8	100.0(986)	4.0
자녀양육책임 어머니에게 더 부여함이 합리적임	12.9	25.1	30.6	22.4	9.0	100.0(986)	2.9
양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함	1.5	10.2	34.8	33.2	20.3	100.0(986)	3.6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아 기름	8.4	22.4	23.4	31.6	14.1	100.0(986)	3.2
결혼 후 무자녀 괜찮음	20.1	34.0	29.1	13.7	3.1	100.0(986)	2.5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될 필요 있음	9.1	12.3	34.4	31.9	12.3	100.0(986)	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그림 V-2-1] 대학생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성별비교

성별에 따른 비교는 차이가 유의미한 내용만 그래프로 제시하였다(그림 V-2-1 참조). 결혼에 대한 필요성, 미래에 자녀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후 무자녀로 지내는 것이 괜찮

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그렇다는 응답이 조금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그림 V-2-1 참조).

나. 좋은 부모 됨에 대한 의견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소양과 지식이 따로 있는 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전체 91.1%로 대다수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소양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이나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V-2-7> 대학생의 좋은 부모됨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전혀	조금	약간	매우	모르겠음	계	평균	t/F
전체	2.1	5.7	35.0	56.1	1.1	100.0(986)		
성별								
남	3.6	5.2	34.3	55.2	1.8	100.0(504)	3.5	0.25
여	0.6	6.2	35.7	57.1	0.4	100.0(482)	3.5	
거주지역								
수도권	2.1	4.9	36.0	56.4	0.6	100.0(486)	3.5	0.85
충청권	2.1	5.2	37.1	54.6	1.0	100.0(97)	3.5	
전라권	0.9	11.3	34.0	50.9	2.8	100.0(106)	3.6	
경북권	2.3	5.7	23.9	65.9	2.3	100.0(88)	3.7	
경남권	3.3	4.4	36.6	55.2	0.5	100.0(183)	3.5	
강원권	0.0	7.7	38.5	50.0	3.8	100.0(26)	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소양과 지식을 기르는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45.9%가 가치관 형성 시기인 청소년기부터 예비부모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다음 순으로는 32.0%가 임신과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 중심의 부모준비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 순으로 15.7%가 영유아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별도의 교육보다는 양육경험과 연륜이 있는 조부모 세대의 가족 내 지원과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은 6.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 거주 지역유형에서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학생들은 부모가 되기 이전인 시기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소양과 지식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비부모교육이 필요한 분야임을 알 수 있다.

<표 V-2-8>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의 적정 시기와 형태

단위: %(명)

구분	청소년기	신혼부부기	영유아 부모기	불필요	계(수)	$\chi^2(df)$
전체	45.9	32.0	15.7	6.3	100.0(986)	
성별						
남	48.0	30.2	14.9	6.9	100.0(504)	3.28(3)
여	43.8	34.0	16.6	5.6	100.0(482)	
거주지역						
수도권	45.9	31.3	14.6	8.2	100.0(486)	23.26(15)
충청권	41.2	36.1	20.6	2.1	100.0(97)	
전라권	48.1	30.2	16.0	5.7	100.0(106)	
경북권	37.5	45.5	10.2	6.8	100.0(88)	
경남권	50.3	26.8	19.1	3.8	100.0(183)	
강원권	53.8	30.8	11.5	3.8	100.0(2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표 V-2-9>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

단위: %(명)

구분	양육 지식 및 기술	경제적 능력	타고난 성품	양육 가치관	계(수)	$\chi^2(df)$
전체	28.2	21.3	18.6	31.9	100.0(986)	
성별						
남	25.2	23.2	21.4	30.2	100.0(504)	10.66(3)*
여	31.3	19.3	15.6	33.8	100.0(482)	
거주지역						
수도권	27.6	21.8	18.9	31.7	100.0(486)	20.39(15)
충청권	24.7	24.7	15.5	35.1	100.0(97)	
전라권	33.0	20.8	11.3	34.9	100.0(106)	
경북권	17.0	18.2	29.5	35.2	100.0(88)	
경남권	34.4	20.2	18.0	27.3	100.0(183)	
강원권	26.9	19.2	19.2	34.6	100.0(26)	

* p<.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

에 양육의 가치관이 전체 중에서 31.9%인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 지식 및 기술이 28.1%, 경제적 능력이 21.3%, 타고난 성품이 18.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거주지역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V-2-9 참조).

3. 성인

가.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1) 성인의 결혼 및 출산 계획

교육을 받은 예비부부들의 결혼 예정 개월 수는 6개월 미만이 66.8로 가장 많았고, 2~3년 미만이 1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5.6%가, 여자는 59.8%가 6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해 남녀 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관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두 기관 모두 6개월 미만이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3년 미만의 경우 성당은 0%인 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30.5%가 응답한 것으로 보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당장 결혼을 앞두지 않았지만 앞으로 결혼을 염두에 둔 커플들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V-3-1> 결혼 예정 개월 수

단위: %(명)						
구분	6개월 미만	6~1년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계(수)	$\chi^2(df)$
전체	66.8	8.2	7.6	17.4	100.0(184)	
성별						
남	75.6	6.1	4.9	13.4	100.0(82)	5.26(3)
여	59.8	9.8	9.8	20.6	100.0(102)	
거주지역						
대도시	70.0	8.2	6.4	15.5	100.0(110)	n/a
중소도시	56.1	8.8	10.5	24.6	100.0(57)	
읍·면	84.6	7.7	-	7.7	100.0(13)	
교육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43.8	12.4	13.3	30.5	100.0(105)	59.39(3)***
성당	97.5	2.5	-	-	100.0(79)	

*** p<.001 n/a 교차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성인 대상 조사 결과임.

2) 영유아 돌본 경험

영유아기 아동을 일정기간(반나절 이상) 혼자서 돌본 적이 있는 경우는 40.2%, 없다는 59.8%로 약간의 차로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29.5%, 여자는 47.8%가 있다고 응답하여 성별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2> 영유아를 일정 기간 혼자서 돌본 경험

단위: %(명)

구분	없음	있음	계(수)	$\chi^2(df)$
전체	59.8	40.2	100.0(229)	
성별				
남	70.5	29.5	100.0(95)	7.73(1)*
여	52.2	47.8	100.0(134)	
거주지역				
대도시	60.0	40.0	100.0(120)	2.02(2)
중소도시	54.7	45.3	100.0(86)	
읍·면	72.2	27.8	100.0(18)	
교육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57.8	67.4	100.0(147)	0.68(1)
성당	63.4	36.6	100.0(229)	

* p<.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성인 대상 조사 결과임.

<표 V-3-3> 돌본 영유아와의 관계

단위: %(명)

구분	가족/친지	baby-sitter	자원봉사 관련	기타	계(수)	$\chi^2(df)$
전체	82.6	2.2	6.5	8.7	100.0(92)	
성별						
남	88.9	-	3.7	7.4	100.0(27)	n/a
여	80.0	3.1	7.7	9.2	100.0(65)	
거주지역						
대도시	91.5	-	6.4	2.1	100.0(47)	n/a
중소도시	75.0	5.0	7.5	12.5	100.0(40)	
읍·면	60.0	-	-	40.0	100.0(5)	
교육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77.8	3.2	7.9	11.1	100.0(63)	n/a
성당	93.1	-	3.4	3.4	100.0(29)	

n/a 교차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성인 대상 조사 결과임.

돌본 경험이 있다면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 질문한 결과 82.6%가 가족 또는 친지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유형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V-3-3 참조).

그렇다면, 아이를 돌본 소감이 어떠했는지 질문한 결과 55.6%가 힘들지만 해볼만하다고 응답하였고, 23.3%는 어려운 일, 17.8%는 재미있는 일, 3.3%는 남의 아기 돌보기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V-3-4> 아기 돌본 소감

단위: %(명)

구분	재미있었음	힘들지만 해볼만 함	어려운 일	다시 하고 싶지 않음	계(수)	$\chi^2(df)$
전체	17.8	55.6	23.3	3.3	100.0(90)	
성별						
남	26.9	46.2	26.9	-	100.0(26)	n/a
여	14.1	59.4	21.9	4.7	100.0(64)	
거주지역						
대도시	21.7	54.3	23.9	-	100.0(46)	
중소도시	15.4	56.4	20.5	7.7	100.0(39)	n/a
읍·면	-	60.0	40.0	-	100.0(5)	
교육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19.4	56.5	19.4	4.8	100.0(62)	n/a
성당	14.3	53.6	32.1	-	100.0(28)	

n/a 교차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성인 대상 조사 결과임.

3) 결혼 후 희망하는 자녀수

결혼을 한다면 희망하는 자녀수에 대해 질문한 결과 2명이 53.4%로 가장 많았고, 3명이 27.6%, 1명이 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녀 모두 2명이 가장 많았으나, 2순위로는 3명은 남자가, 1명은 여자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거주지역별로도 2명이 가장 많았으나 3명부터는 연령이 낮을수록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지역에서도 대도시 보다는 중소도시, 읍·면으로 갈수록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서 2명이 가장 많았지만, 3명부터는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V-3-5> 결혼 한다면 희망하는 자녀수

단위: %(명)

구분	1명	2명	3명	4명	남고 싶지 않음	계(수)	$\chi^2(df)$
전체	11.6	53.4	27.6	5.2	2.2	100.0(232)	
성별							
남	7.2	52.6	32.0	8.2	-	100.0(97)	10.61(4)*
여	14.8	54.1	24.4	3.0	3.7	100.0(135)	
거주지역							
대도시	12.3	57.4	23.0	5.7	1.6	100.0(122)	n/a
중소도시	10.3	49.4	32.2	4.6	3.4	100.0(87)	
읍·면	11.1	38.9	44.4	5.6	-	100.0(18)	
교육기관							
간강가정지원센터	8.6	51.0	32.5	5.3	2.6	100.0(151)	n/a
성당	17.3	58.0	18.5	4.9	1.2	100.0(81)	

* p<.05 n/a 교차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성인 대상 조사 결과임.

4)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성인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결혼의 중요성과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중요성, 자녀양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의 80% 이상이 그렇다(약간+ 매우)고 응답하였으며, 5점척도에서 평균 4점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양육보다는 자신의 직업적 성공이 먼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으로 중립적인 대답을 한 경우가 42.9%로 제일 많았으며, 낙태는 개인적인 문제로 법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전체의 49.4%가 그렇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척도에서 평균 3점대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은 어머니의 역할로써 더 합리적이다와 결혼후 무자녀로 지내는 것은 괜찮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괜찮다는 질문에서는 5점척도에서 평균 1-2점대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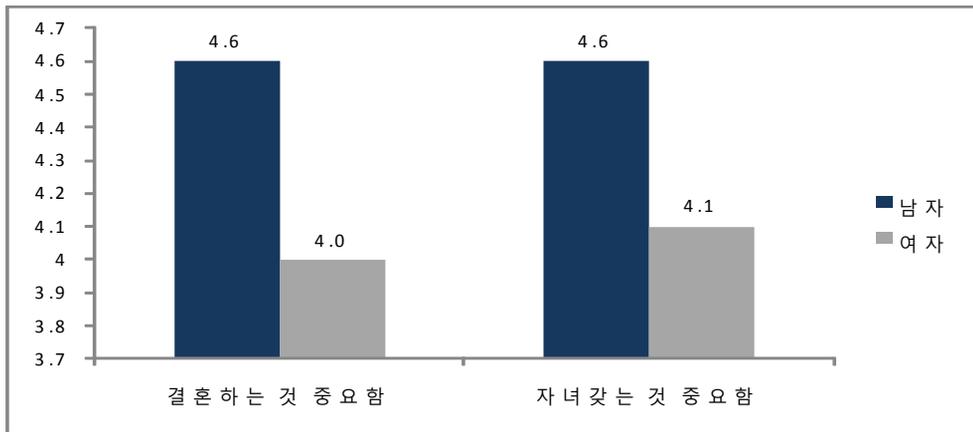
<표 V-3-6> 성인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전혀 불필요	조금 불필요	보통	약간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결혼하는 것은 중요함	0.9	5.5	13.2	23.4	57.0	100.0(235)	4.3
자녀 갖는 것은 중요함	0.9	3.8	11.9	24.7	58.7	100.0(235)	4.3
자녀양육보다 직업적 성공 먼저임	1.7	25.8	42.9	17.6	12.0	100.0(233)	3.1
자녀양육책임은 어머니에게 더 부여됨이 합리적임	13.3	36.9	20.2	25.3	4.3	100.0(233)	2.7
양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함	0.4	3.4	12.0	28.6	55.6	100.0(234)	4.3
결혼 없이 자녀출산·양육	44.0	31.6	12.0	10.3	2.1	100.0(234)	1.9
결혼후 무자녀 괜찮음	34.3	33.5	22.7	6.9	2.6	100.0(233)	2.0
낙태는 법적으로 허용될 필요 있음	11.6	9.4	29.6	34.8	14.6	100.0(233)	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성인 대상 조사 결과임.

성별에 따른 비교는 차이가 유의미한 내용만 그래프로 제시하였다(그림 V-3-1 참조). 결혼에 대한 필요성, 미래에 자녀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는데, 두 문항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과 미래에 자녀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3-1] 성인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성별비교

나. 좋은 부모 됨에 대한 의견

장래 부모가 되어 자녀를 기르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49.1%가 여러 번 있다고 응답하였고, 37.1%가 몇 번 있음, 6.9%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 한 번 이상은 자녀를 기르는 모습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3-7> 미래에 자녀 양육하는 모습 생각해 본 경험

단위: %(명)

구분	전혀 없음	몇 번 있음	여러 번 있음	현재 임신 중	계(수)	$\chi^2(df)$
전체	6.9	37.1	49.1	6.7	100.0(232)	
성별						
남	7.2	38.2	44.3	9.3	100.0(97)	2.38(3)
여	6.7	35.6	52.6	5.2	100.0(135)	
거주지역						
대도시	5.8	36.9	51.6	5.7	100.0(122)	4.50(6)
중소도시	9.2	33.3	48.3	9.2	100.0(87)	
읍·면	5.6	50.0	44.4	-	100.0(18)	
교육기관						
간강가정지원센터	8.0	35.3	48.0	8.7	100.0(150)	3.13(3)
성당	4.9	40.2	51.2	3.7	100.0(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성인 대상 조사 결과임.

성인의 좋은 부모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본인이 장래에 자녀를 낳아 키우면 좋은 부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다(약간+매우)가 68.6%로 절반이상이었으며, 5점척도에서 평균 3.9점으로 나타났다.

<표 V-3-8> 성인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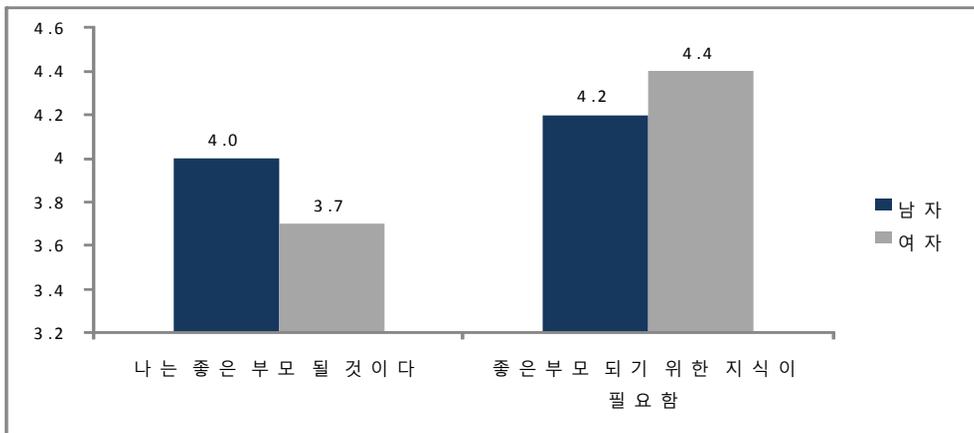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나는 좋은 부모가 될 것이다	0.9	3.9	26.6	41.6	27.0	100.0(233)	3.9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소양이 따로 있다	0.9	2.6	7.8	34.9	53.9	100.0(232)	4.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성인 대상 조사 결과임.

다음으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88.8% 5점척도에서 평균 4.8로 대부분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강하였다(표 V-3-8 참조).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는 본인이 좋은 부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인 인식이 강하였으며,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지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3-2] 성인의 좋은 부모됨에 대한 인식 성별비교

다음으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필요한 능력이나 요건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56.9%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능력이 14.7%, 타고난 성품 13.8%, 양육지식 및 기술이 12.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V-3-9> 좋은 부모됨의 필요능력

단위: %(명)

구분	양육지식 및 기술	경제적 능력	타고난 성품	양육 가치관	기타	계(수)	$\chi^2(df)$
전체	12.5	14.7	13.8	56.9	2.2	100.0(232)	
성별							
남	9.2	19.4	10.2	58.2	3.1	100.0(98)	6.36(4)
여	14.9	11.2	16.4	56.0	1.5	100.0(13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성인 대상 조사 결과임.

4.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결혼과 부모됨에 대한 의식을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실었다. 대체적으로 연령대와 상관없이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이나 자녀에 대해 중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출산과 육아의 고충을 상대적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이 결혼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희망하는 자녀 수에 있어서는 집단 간에 차이를 많이 보이지는 않았고, 자녀양육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더 책임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는 성인보다는 대학생이, 대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더 전통적인 입장을 따르고 있었다. 결혼하지 않는 출산에 대해서는 대학생이 비교적 허용적인 반응을 보였고 성인들이 가장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과 지식이 따로 있어 이를 길러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찬성하는 편이었으나, 집단에 따라 좋은 부모 되기를 위한 필요 요건은 다르게 인지하고 있었다. 고등학생들은 경제적 능력을 가장 우선시한 반면, 대학생은 양육가치관과 양육지식 및 기술을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성인들은 양육가치관을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고 경제적인 능력은 우선 순위가 낮았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더 커졌다는데 모든 층이 동의하였으나 성인의 요구가 가장 컸다. 마지막으로 부모교육의 적정시기에 대해 대학생들은 인생의 다른 어느 시기보다 청소년기에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위와 같은 조사 결과가 연구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을 제고와 발맞추어, 양육의 즐거움과 결혼의 이점을 여고생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반면,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남학생들에게 인식시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양성간의 차이를 줄여가야 할 것이다. 고등학생 시기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는 출산, 양육 부담은 만혼과 저출산율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둘째, 결혼하지 않는 임신,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십대 청소년들이 제대로 인식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허용적 입장이 더 크기는 하지만 고등학생도 성인보다는 허용적이므로, 부모로서의 책임을 고등학생들이 절실히 알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10대 임신이 이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모교육이 강조해야 할 한 가지 주요 사항이 된다.

셋째, 각 시기별로 강조해야 할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들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생 집단에서 조금 낮아지고 성인에서는 매우 낮고 양육가치관을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대학생은 양육지식과 기술의 필요성을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흥미를 역으로 생각하면, 가치관 형성이 초기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바람직한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가치교육이 필요하다.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내용이 기술·가정 교과에 실려야 할 것이고, 대학생들에게는 그와 더불어 이제 실제 양육기술이나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성인에게는 그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적절한 지식과 정보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모든 연령 집단에 대해 부모로서 취할 수 있는 국가의 재정적, 인적 지원과 인프라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조사 참여자들은 모두 국가가 많은 부분 육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물론 정책적으로 더 많은 육아 지원 노력이 필요하지만,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예비부모가 되는 모든 청소년, 성인들에게 국가가 현재 하고 있는 지원정책, 그리고 육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 자원의 출처, 네트워크 등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사태에 임박하여 정보를 찾게 하기보다, 어떠한 노력들을 정부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특히 일반 다수 국민이 거쳐 가는 고등학생 시기에 예비부모교육이 학교를 통해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그 시기를 거처온 대학생들이 제안하는 바이다. 제도적으로 현재의 교육을 좀 더 보완하여 한 시기 단기성 교육으로 그쳐질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가치관에까지 영향을 줄 있는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VI. 예비부모교육의 개선: 인식 및 요구 분석

앞서 예비부모교육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나, 그에 대해 고등학생과 교사, 대학생 및 일반인은 얼마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흥미가 있는지, 또 개선에 대한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본 장에서 살펴보하고자 한다.

1. 고등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의 개선

가. 필요성 및 유용성

1)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

대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생의 예비부모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의 66.5%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여 많은 수가 고등학교 시기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26.1%가 조금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고등학교시기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비율은 7.4%에 지나지 않았다.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보통'의 응답 선택지가 없긴 했지만) 필요하다는 응답이 98.4%가 나와 절대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4점 척도에서 3.72점을 획득하였다.

<표 VI-1-1> 고등학생 예비부모 교육의 필요성 인식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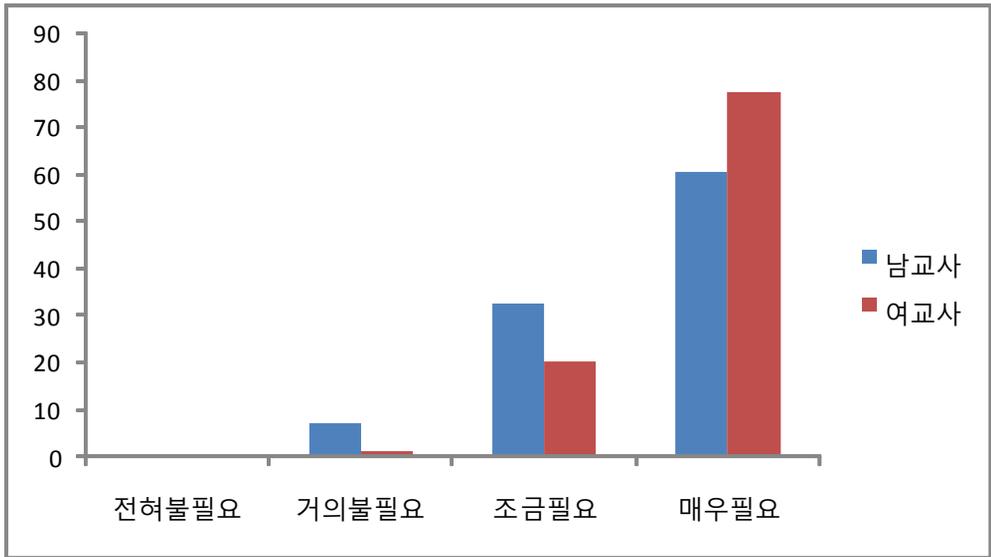
구분	전혀 불필요	불필요한 편	보통	필요한 편	매우 필요	계	평균
교사 ^주	0.4	2.2	--	22.3	75.1	100.0(269)	3.72
대학생	0.5	6.9	26.1	41.7	24.8	100.0(978)	3.83

* $p < .05$

주: 교사에 대한 질문은 4점 리커드 척도로, 5점 척도인 대학생용과 비교할 때 '보통이다' 항목이 없음.

교사특성에 의하면 남선생님보다는 여선생님이, 경력 30년 이상의 교사보다는 30

년 미만 교사에게서, 가정비전공 교사보다는 가정전공교사에게서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매우 필요하다)에 대한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특성별로는 인문계보다는 실업/예술계 고등학교에서, 남고에 비해 여고와 남녀공학의 교사들이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1-1] 고등학생에 대한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 교사 성별 비교

고등학생 예비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인성교육'의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성의식과 부모-자녀 관계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35%로 나타나, 고교 현장의 담당교사들은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이 구체적인 성지식의 전달 및 성의식 형성에 국한되기보다는 '청소년기 인성교육'으로서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예비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이유로는 (맞벌이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교육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부모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됨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때 교과시간외에 부모 교육을 학습할 기회가 전혀 없어서, 장래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가정은 사회구성의 최초 집단이므로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 VI-1-2>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이 필요 또는 필요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필요한 이유		필요하지 않은 이유	
97.4		2.6	
인성교육의 기회 제공	62.7	부모되기를 생각하기엔 너무 어렵	(2)
졸업 후 곧 부모가 될 가능성 생각	20.1	학교에서 지도하기 적절한 내용이 아님	(0)
일부 학생에게는 최종 교육기회	14.6	현 입시제도하에선 가르칠 의지 없음	(2)
교양으로서 필요	11.7	학생들이 흥미 없어 하는 내용임	(2)
성의식, 부모-자녀관계에	34.5	학생들은 이미 성의식/지식 충분	(1)
어려움이 많으므로			
기타	4.8	기타	(0)
계(수)	100.0(262)	계(수)	100.0(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교사 대상 조사 결과임.

대학생을 대상으로, 좋은 부모가 되는데 고등학교 대상 예비부모 교육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의 67.6%가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6.9%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다. 성별을 나누어 살펴보면 여자는 68.1%, 남자는 67.1%의 응답비율을 보여 차이가 거의 없으며, 지역별로 보면, 강원권(71.6%), 경북권(70.5%), 경남권(70.4%)이 수도권에 비해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표 VI-1-3> 고등학생 대상 교육이 '좋은 부모되기'에 도움이 됨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chi^2(df)$	평균
전체	0.5	6.4	25.6	42.2	25.4	100(978)		3.85
성별								
남	0.8	7.1	25.0	40.9	26.2	100(499)	3.42(4)	3.85
여	0.2	5.6	26.1	43.6	24.5	100(479)		3.87
대학유형								
4년제	0.5	6.4	25.2	44.3	23.5	100(743)	7.78(4)	3.84
2/3년제	0.4	6.3	26.6	35.4	31.2	100(235)		3.9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대학유형별로 나누어보면, 4년제 대학생은 67.8%, 2/3년제 학생은 66.6%가 '그렇'

다라고 응답했고, 전공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사범 계열의 경우 70.1%가 좋은 부모가 되는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 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이공/의학 계열은 65.4%, 예체능/기타 계열은 62.9% 순으로 나타나, 여전히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기 예비부모교육의 효용성을 더 크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표 VI-1-3 참조).

나. 학교 교과를 통한 예비부모교육 개선

1) 양육실습의 필요성

고등학교 대상 예비부모 교육 중 아기 돌보기 실습이 필요한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의 52.1%가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보통'이라는 응답도 33.7%를 차지하였다. 성별을 나누어 살펴보면 여자는 55.4%로 절반 이상이 아기 돌보기 실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남자는 49.4%가 '그렇다', 33.9%가 '보통'이라고 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절반 이상이 아기 돌보기 실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경남권은 43.8%가 '그렇다', 40%가 '보통'이라고 하였다. 대학유형별로 살펴본 결과는 2/3년제 대학생이 59.4%, 4년제 대학생이 50%로 2/3년제 학생들이 아기 돌보기 실습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고, 전공별로 살펴보면, 예체능/기타 계열이 54.8%, 인문/사회/사범 계열이 54%, 이공/의학 계열 50.3% 순으로 아기 돌보기 실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VI-1-4> 고등학생 대상 아기 돌보기 실습의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불필요	거의 불필요	보통	조금 필요	매우 필요	계	$\chi^2(df)$	평균
대학생	2.0	12.0	33.7	31.6	20.7	100.0(978)		3.57
성별								
남	2.6	14.1	33.9	30.6	18.8	100.0(499)	7.51(4)	3.49
여	1.5	9.8	33.4	32.8	22.6	100.0(479)		3.65
교사	0.7	8.1	17.4	31.5	42.2	100.0(270)		4.06
성별								
남	4.7	14.0	23.3	30.2	27.9	100.0(43)	16.12(4)**	3.63
여	0.0	7.1	16.4	31.4	45.1	100.0(226)		4.15

** p<.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과 기술·가정 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임.

교사들에게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에서 영유아돌보기 '실습교육의 필요성'과 그 '실시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우선 영유아돌보기, 수유, 목욕시키기 등과 같은 (마네킹) 실습 교육과 어린이집·보육원 방문을 통한 체험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74%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필요하다(매우+약간)'고 응답하였다 (표 VI-14).

실습 및 체험학습이 현실적으로 실시 가능한지 질문한 결과,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이 약60%로 높게 나타나, 필요성(평균 4.1점/5점)과 교육현장의 실현가능성(평균 2.4점/5점)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 가능하다는 응답은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교사특성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교사연령이 많고 경력연한이 긴 교사의 경우가, 그리고 가정비전공 교사보다는 가정전공 교사에게서 현실적으로 실시가능성이 '적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교사의 경력과 연령 특성은 실습 및 체험학습의 필요성 인식과 실시 가능성이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면, 교사의 가정전공여부에 따라서는 역의 경향이 드러나, 가정전공교사의 경우 실습 및 체험학습의 중요성에 비해 현실적으로 일선 학교현장에서의 실습/체험학습의 실시가 어려운 상황 인식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VI-1-5>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의 영유아돌보기 실습의 가능성

단위: %(명)

구분	전혀 아님	별로 아님	보통	약간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평균	t/F
교사전체	28.7	29.9	22.8	9.8	8.7	100.0(254)	2.40	
연령								
2~30대	10.2	25.4	30.5	13.6	20.3	100.0(59)	3.08	
40대	31.5	34.3	22.2	8.3	3.7	100.0(108)	2.19	12.64***
50대이상	37.6	27.1	18.8	9.4	7.1	100.0(85)	2.21	
교사경력								
10년미만	10.6	23.4	31.9	14.9	19.1	100.0(47)	3.09	
10-19년	25.0	36.4	25.0	6.8	6.8	100.0(44)	2.34	6.56***
20-29년	33.3	29.9	18.8	11.1	6.8	100.0(117)	2.28	
30년이상	39.5	27.9	23.3	4.7	4.7	100.0(43)	2.07	

***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교사 대상 조사 결과임.

2) 적정 교육기간

고등학교 대상 예비부모 교육의 적정기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의 54.3%가 한 학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하였고 다음으로 두 학기가 31.8%이었다. 8.3%는 세 학기 이상 예비부모교육 수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5.6%는 고등학교 시기 부모교육의 실시가 부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남녀 성별 응답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수도권(63.5%), 전라권(56.1%), 충청권(50.9%)은 '한 학기'가 가장 적당하고 응답한 반면, 경북권은 '두 학기'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47.3%로 많았다. 대학 유형별로 보면, 4년제(55.5%)가 2년제(50.2%)에 비해 높았고, 전공별로 비교해 보면, 이공/의학(54.8%), 인문/사회/사범(54.4%), 예체능/기타(50%) 계열 순으로 '한 학기'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VI-1-6>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 교육의 적정기간

단위: %(명), 점

구분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이상	필요없음	계	$\chi^2(df)$
전체	54.3	31.8	8.3	5.6	1000(978)	
성별						
남	53.0	31.7	8.3	6.9	1000(499)	3.77(3)
여	55.6	32.0	8.3	4.1	1000(479)	

***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3) 교육 내용

고등학교 대상 예비부모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 대학생 전체의 24.2%가 '성/임신/출산/피임'을, 23.9%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라고 응답하였고, 반면에 '아동양육기술'은 1.7%만이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28.4%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꼽은 반면, 여자는 26.6%가 '성/임신/출산/피임'을 꼽아 남녀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권(34%), 경북권(27.7%), 수도권(22%)은 '성/임신/출산/피임'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이라고 응답하였으나, 경남권(31%), 충청권(30.1%), 전라권(28.8%)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중요한 내용으로 꼽았다. 대학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4년제는 24.4%가 '성/임신/출산/피임'을, 2/3년제는 26.6%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라고 응답하였고, 전공별로 보면, 예체능/기타 계열의 경우 46.8%, 인문/사회/사범 계열은 24.1%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고등학교 대상 예비부모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라고 하였고, 이공/의학 계열은 26.5%가 ‘성/임신·출산·피임’을 꼽았다.

<표 VI-1-7>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

단위: %(명), 점

구분	가족 이해 및 중요성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역할 양육의 어려움	결혼관 양성평등의식	성/임신·출산·피임	아동에 대한 책임	아동 발달 지식	아동 양육 기술	계	$\chi^2(df)$
전체	14.4	23.9	17.7	7.9	24.2	3.4	6.6	1.7	1000(978)	
성별										
남	16.1	28.4	16.5	7.5	22.0	2.8	5.0	1.8	1000(499)	19.23(7)**
여	12.7	19.3	19.1	8.3	26.6	4.1	8.3	1.7	1000(479)	
전공										
인문/사회/사범	15.4	24.1	16.6	9.5	23.0	3.3	6.6	1.5	1000(477)	
이공/의학	14.0	20.6	18.6	7.0	26.5	4.1	7.0	2.3	1000(441)	31.10(14)**
예체능/기타	9.7	46.8	21.0	1.6	17.7	0.0	3.2	0.0	100.0(60)	

** p<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표 VI-1-8> 고교 예비부모교육 강화시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

단위: %(명)

응답	1순위	2순위
가족의 이해 및 가정의 중요성	19.2	7.1
부모자녀 관계 및 가족간 의사소통	11.2	18.4
부모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	34.8	23.6
결혼관 및 양성평등의식	6.0	8.6
성, 임신·출산·피임, 태교의 중요성	23.6	23.2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1.6	4.1
아동발달(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에 관한 지식	2.0	8.6
아동양육지식	1.6	6.4
계(수)	100.0(250)	100.0(26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기술 교사 대상 조사 결과임.

교사들에게 정책적으로 예비부모교육을 강화하고자 할 때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1, 2 순위로 응답하게 한 결과, 1순위에서 ‘성, 임신·출산·피임, 태교의 중요성’과 ‘가족의 이해 및 가정의 중요성’ 부분을 가장 중

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 응답에서는 ‘부모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와 ‘성, 임신·출산·피임, 태교의 중요성’ 순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성교육과 이를 통한 올바른 성가치관의 형성이 강화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조사되었다(표 VI-1-8 참조).

4) 교육 방식

대학생들에게 고등학교 대상 예비부모 교육 실시의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체의 39.7%가 ‘학교 교과 수업’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재량수업 등 특별활동’이 29.1%, ‘전문기관’이 35.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이와 상이한 응답을 하였던 바, 학교교과수업을 지적한 비율이 66.7%로 매우 높은 반면, 나머지 다른 방식을 낮은 비율로 선택하였고, 전문기관이나 지역센터를 19.2% 정도 꼽았다.

<표 VI-1-9>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

단위: %(명), 점

구분	학교 교과 수업	재량수업 등 특별활동	종교, 사회 단체 강의	전문기관, 지역센터	계	$\chi^2(df)$
대학생	39.7	29.1	5.3	25.6	100.0(978)	16.23(3)***
교사	66.7	11.9	1.9	19.2	100.0(270)	

*** p<.001

<표 VI-1-10>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수업 방법 (중복응답)

단위: %(명)

응답	% (수)
재량수업 시간 활용	29.5 (234)
특별활동 시간 활용	8.8 (226)
특강 실시	30.9 (233)
가정기술 교과목 내 육아관련내용 분량의 확대	70.9 (247)
체육, 윤리 등 타교과목 수업 활용	4.1 (221)
기타	4.1 (222)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	5.0 (2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가정·기술 교사 대상 조사 결과임.

학교에서의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응답에서 더 나아가, 교사들은 학교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지를 조사하였다. 즉, 예비부모 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이 가능한 지 물어본 결과, 70% 이상의 교사

가 기술·가정 교과목 내에서 '육아관련내용 분량의 확대'가 가장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특강의 실시'와 '재량수업 시간의 활용'이 응답되어, 교과수업 내에서의 내용 및 분량의 확대가 고등학교 예비부모교육 강화의 우선순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VI-1-10 참조)

5)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배우고 싶은 예비부모교육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대학생들에게 개방형으로 응답을 받은 결과, 내용면에서 '아동의 성장에 따른 올바른 양육방식(19.0%)', '부모가 갖추어야할 양육자세와 태도'(5.1%), '바람직한 대화법'(5.0%) 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예비부모교육 내용은 부모의 양육방식과 태도, 양육기술 등 부모의 '양육자로서의 자질'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임신·출산·태교와 아동발달에 관한 교육 등 양육지식에 대한 요구도가 그 다음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표 VI-1-11> 배우고 싶은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시기

예비부모교육 요구도 조사	%
전 체 (사례수)	(986)
내용	
시기별 올바른 양육방식	19.0
임신·출산·태교	6.3
부모가 갖추어야할 자세 및 태도	5.1
자녀와의 바람직한 대화법	5.0
아동발달에 관한 교육	3.8
시기	
고등학교 때	5.4
대학교 때	4.8
결혼 전 후	4.1
중학교 때	2.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응답한 경우만 비율을 산출한 경우이므로 전체 합계가 100%에 미치지 않음.

예비부모교육의 최적의 시기에 대한 응답은 고등학교(5.4%) - 대학교 (4.8%) - 결혼 전후 (4.1%) - 중학교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비부모교육의 형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교과과정 중에 정규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수업과 강의의 형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I-1-7).

6) 교과내용구성에 대한 의견

고등학교때 배웠던 부모교육관련 교과내용에 대한 의견을 (1)교과구성, (2)흥미도, (3)유용성의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 첫째, 보충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과 현재 적정하다는 의견이 각각 49.0%, 43.6%로 나타나, 보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더 많았다.

<표 VI-1-12> 고교 부모교육 교과구성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보충될 필요가 있음	적당한 것으로 생각됨	줄일 필요가 있음	유용성 없어 보임	주입식 교육 탈피	시기가 부적절 하다	모름	계	$\chi^2(df)$
전체	49.0	43.6	5.4	0.3	0.1	0.1	1.4	100(736)	
성별									
남	48.4	43.8	5.8	0.3	0.3	0.0	1.4	100(345)	2.28(6)
여	49.6	43.5	5.1	0.3	0.0	0.3	1.3	100(391)	
대학유형									
4년제	50.4	41.7	5.6	0.4	0.2	0.2	1.6	100(552)	5.36(6)
2/3년제	45.1	49.5	4.9	0.0	0.0	0.0	0.5	100(18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고등학교 부모교육 교과내용에 대한 흥미도를 조사한 결과, '흥미로웠다'(매우+조금)는 의견이 전체 35.3%, '보통' 49.7%, '흥미롭지 않았다'(별로+전혀) 12.0%로 나타나, 흥미도 면에서 보통이라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 남녀 성별에 따른 흥미도 차이는 남자 대학생 33.1%, 여자 대학생 37.3%로 비율면에서 여학생이 좀 더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전공계열별로는 예체능 전공 학생이, 가정경제수준 상층 대학생들의 흥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VI-1-9 참조).

<표 VI-1-13> 고등학교 부모교육 내용의 흥미 정도

단위: %(명)

구분	매우 흥미로움	조금 흥미로움	보통	별로 흥미없음	전혀 흥미없음	계	평균	t(df)
전체	3.9	31.4	49.7	11.7	3.0	100.0(736)	2.78	
성별								
남	3.8	29.3	49.9	12.8	4.3	100.0(345)	3.15	-1.98(732)*
여	4.1	33.2	49.6	10.7	1.8	100.0(391)	3.27	

* p<.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고등학교 부모교육 교과내용의 장래 유용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유용할 것이라는 긍정 응답이 유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에 비해 약 15% 높게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서, 4년제 보다는 2-3년제 대학유형에서 상대적으로 유용성이 더 크다는 의견을 보였다.

<표 VI-1-14> 고등학교 부모교육의 향후 유용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유용할 것임	유용 안함	계	$\chi^2(df)$
전체	57.5	42.1	100.0(736)	
성별				
남	55.4	44.6	100.0(345)	4.13(1)
여	59.3	39.9	100.0(391)	
대학유형				
4년제	54.3	45.1	100.0(552)	9.44(1)**
2/3년제	66.8	33.2	100.0(184)	

** p<.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7)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 전반에 대한 의견

기술·가정 교과 선생님들에게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의 '중요성'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확대/강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우선 고등학교에서의 예비부모교육이 장차 학생들의 부모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5점 척도로 평정하게 한 결과, '중요하다(매우+약간)'는 응답이 94%로 거의 모든 교사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표 VI-2-5 참조).

또한 고등학교에서 '기술·가정 교과목을 통한' 예비부모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는 약 30%에 그쳤다. 42%의 교사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잘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가 약 28%로, 5점 만점에 평균 3.1점으로 '보통'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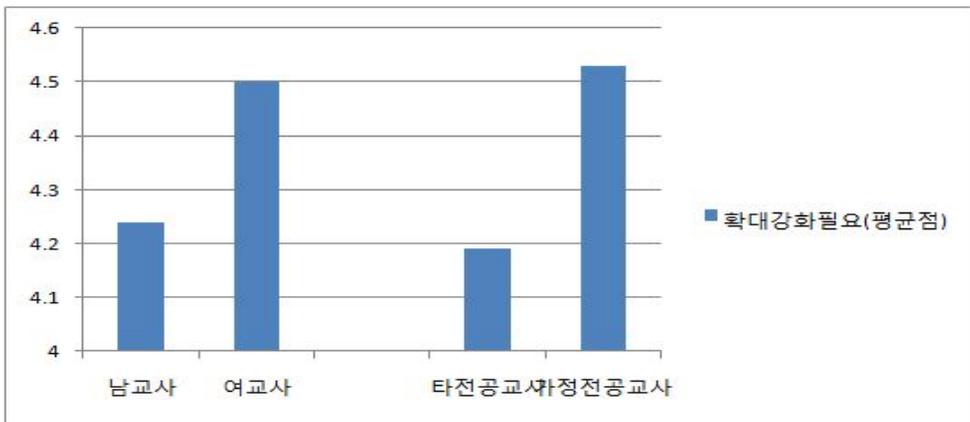
한편, 고등학교에서의 예비부모교육이 지금보다 확대,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약88%로 현재 대비 '확대/강화'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역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교사보다는 여교사가, 가정비전공 교사보다는 가정전공 교사의 예비부모교육 확대/강화의 필요성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I-1-2 참조).

<표 VI-1-15> 고등학생 예비부모교육 전반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전혀 아님	별로 아님	보통	약간 그리함	매우 그리함	계(수)	평균
부모됨에 중요한 역할	0	0	6.4	23.0	70.6	100.0(265)	4.64
현재 잘 실시되고 있음	3.1	25.2	42.0	22.1	7.6	100.0(262)	3.06
확대 강화 필요함	-	1.5	10.2	29.7	58.6	100.0(266)	4.4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술·가정 교사 대상 조사 결과임.



[그림 VI-1-2] 교사 성별/전공별 기술·가정 교과내 예비부모교육 확대강화 필요성 인식

8) 교과목 외 예비부모교육 실시 시 담당자

기술·가정 교과목 이외에 예비부모교육 실시 담당자로 누가 가장 효과적인지를 묻는 질문에, 비교과 교육일지라도 '교과 담당교사'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27%로 나타난 가운데, '외부전문강사'가 60%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비교과활동에 의 외부 강사의 초빙이 교사들에게도 효과적인 교육 방식의 하나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표 VI-1-16> 교과목 외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 담당자

단위: %(명)

응답	%
학교 교과목 담당 선생님	27.4
외부 전문 강사	60.0
상담사 또는 상담교사	6.3
부모님	5.2
상관없다	1.1
계(수)	100.0(27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술·가정 교사 대상 조사 결과임.

다.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예비부모교육 시작 시기

예비부모교육은 언제부터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고등학교(46%)·중학교(33%)의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기’ 예비부모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 수 있었으며, ‘유치원/어린이집’ 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는 생애적 관점의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의견도 11%로 나타났다.

<표 VI-1-17> 예비부모교육 시작 시기

단위: %(명)

응답	%
유치원/어린이집 과정에서부터	11.1
초등학교	5.9
중학교	33.0
고등학교	45.9
대학교	1.5
성인기 이후 사회교육	1.5
기타	1.1
계(수)	100.0(27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술·가정 교사 대상 조사 결과임.

2) 기술가정 교과 지도 교사의 제언

우리나라 예비부모교육 실시 및 향후 정책과 관련된 제언을 개방형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내에서 학교교과수업을 통한 예비부모교육의 내용과 시간의 확대라는 학교교육 중심의 제언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배포, 예비부모교육의 제도적 의무화에 대한 의견이 각 10%로 응답되어 구체적 내용과 프로그램, 제도적 여건의 마련에 대한 의견 또한 중요하게 제언되었다.

<표 VI-1-18>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 관련 교사 제언

단위: %(명)

응답	%
1) 학교 교과수업의 내용과 시수 강화 (수능/입시 위주의 교육방식 수정)	38.2
2)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배포	17.8
3) 예비부모교육의 의무화 및 제도화	9.9
4) 외부강사, 강연, 전문 프로그램의 도입 (학교와 전문기관의 연대)	9.9
5)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평가 시스템 구축	6.6
6) 가정에서 기본적인 부모교육 강화	5.3
7) 출산, 육아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홍보	4.6
8) 교사의 전문성 제고 (재교육, 연수 등)	3.3
9)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2.0
10)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봉사활동 기회 제공	1.3
11) 기타	1.3
계(수)	100.0 (15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술·가정 교사 대상 조사 결과임.

3) 현행 교과 수업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배운 기술·가정 교과목 수업을 통한 예비부모교육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내용의 유익성에 대해서는 그렇다(약간+매우)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54.9%, 5점 척도 평균 3.49점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패턴은 성별, 지역별, 학교계열, 학교 형태에 따른 비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내용의 진부성에 대해서는 그렇다(약간+매우)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43.2%, 그렇

지 않다(전혀+별로)가 23.0%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어서 진부한 면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되었다.

다음은 수업내용을 지금 꼭 배워야 하는지 의문스럽게 생각이 되는 정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8.1%로 그렇다는 응답인 27.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수업내용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남학생은 30.7%, 여학생은 24.2%가 의문이 든다고 응답해 남학생이 좀 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였다.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을 좀더 심층적으로 배우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그렇다(약간+매우)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40.7%로 그렇지 않다는 17.0%보다 높게 나타나 예비부모교육을 좀더 깊이 배우고 싶어하는 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VI-3-4 참조).

예비부모교육 수업을 통해 부모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약간+매우)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53.1%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5점 척도 평균은 3.50이었다. 수업을 통해 현재의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약간+매우)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44.2%로 절반가까이 되었으며, 그렇지 않다는 15.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교과목 수업을 통해 배우는 예비부모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44.8%, 5점 척도 3.37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표 VI-1-19> 현행 예비부모 교과 수업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전혀 없음	거의 없음	보통임	약간 있음	매우 큼	계	평균
내용의 유익함	1.0	9.5	34.6	49.1	5.8	100.0(713)	3.49
내용의 진부함	2.7	20.3	33.8	36.5	6.7	100.0(713)	3.24
교과 교육의 시의적절성	6.7	31.4	34.5	24.1	3.2	100.0(713)	2.86
심층교육 필요성	0.7	16.3	42.4	34.4	6.3	100.0(713)	3.29
내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상승	1.0	8.4	37.4	45.4	7.7	100.0(713)	3.50
나 자신 이해에 도움	1.3	14.0	40.5	38.4	5.8	100.0(713)	3.33
수업 관심도	5.3	23.4	37.0	31.4	2.8	100.0(713)	3.03
다양한 수업방식 필요성	0.6	5.6	34.1	50.2	9.5	100.0(713)	3.63
채량·특별활동 포함 필요성	0.8	9.7	34.5	46.4	8.6	100.0(713)	3.52
수업내용 만족도	1.7	8.0	45.4	41.2	3.6	100.0(713)	3.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고등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4) 예비부모교육 전반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

예비부모교육 전반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의견을 총 7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예비부모교육이 좋은 부모의 소양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약간+매우)가 63.2%로 절반 이상이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6.3%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두번째는 향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예비부모교육이 있다면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약간+매우)는 응답이 49.4%, 5점척도 평균은 3.42로 나타났다. 앞으로 대학교에 간다면 부모교육 관련 강의를 들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약간+매우)는 응답이 36.8%, 그렇지 않다는 21.8%, 보통이 41.3%로 다소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향후 직장인이 되어서 부모교육 수업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다(약간+매우)가 51.7%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태도차이는 성별, 학교계열, 학교형태에 따른 비교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부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VI-1-20>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고등학생의 의견

단위: %(명)

구분	전혀 없음	별로 없음	보통	약간 있음	매우 큼	계	평균
좋은 부모 소양함양에 도움	0.5	5.8	30.5	52.9	10.3	100.0(770)	3.66
앞으로 수업을 더 받을 의향	0.9	15.1	34.7	39.9	9.5	100.0(770)	3.42
대학에서 관련 강의 들을 의향	1.8	20.0	41.3	28.4	8.4	100.0(770)	3.22
직장인이 되어 교육받을 의향	1.6	12.5	34.3	43.1	8.6	100.0(770)	3.45
실습포함의 필요성	1.4	10.3	29.5	44.8	14.0	100.0(770)	3.60
특강에 대한 수요	1.6	10.6	42.2	39.7	5.8	100.0(770)	3.38
상담시간을 통한 교육 기회수요	1.3	9.4	44.2	40.6	4.5	100.0(770)	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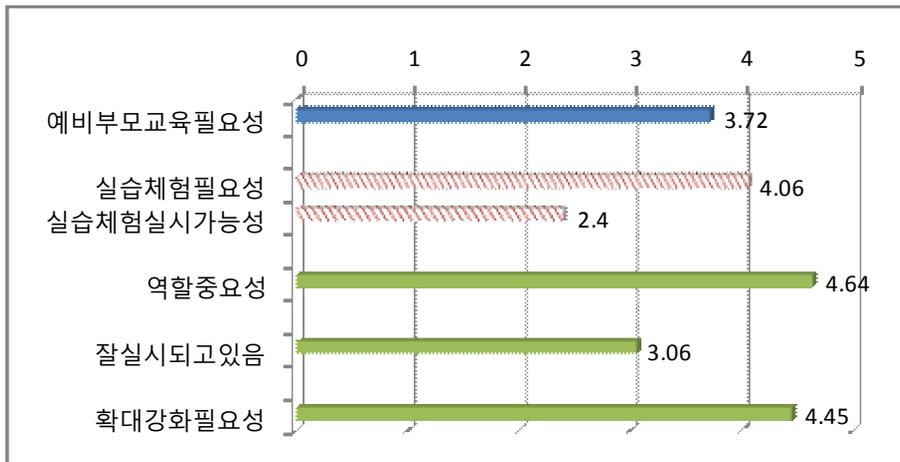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고등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아기를 돌보는 방법에 대한 실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다(약간+매우)가 58.8%로 절반 이상이였으며, 5점척도 평균은 3.60로 나타났다. 예비부모교육 특강을 많이 하면 좋을 거 같은지에 대해서는 그렇다(약간+매우)가 45.5%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가 42.2%로 긍정적인 태도와 중립적인 태도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패턴은 성별, 학교계열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없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상담시간을 통해 개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약간+매우)

가 45.1%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44.2%로 긍정적인 태도와 중립적인 태도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VI-1-20 참조).

라. 요약 및 시사점

교사 응답에 기초한 우리나라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의 「현황」은, 대부분 1학년에 10~15차시 동안 자녀양육관련 교과내용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요약되며, 주로 '강의'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교과담당교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가정 교과 이외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은 10%의 학교(약 30여 사례)에서만 '있다'고 응답하여, 학교에서 교과수업 이외에 마련된 별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교사들은 자녀양육관련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시청각 자료'와 '교재교구'의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을 가장 크게,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교과서 내용의 불충분'과 '실습 불가능'을 어려움으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VI-1-3]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에 관한 교사 의견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 전반에 평정 의견을 알아본 결과, 예비부모교육의 중필요성(4점만점), 중요성(5점만점)과 향후 확대/강화의 필요성(5점만점)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교사들이 동의하는 긍정 응답을 보였고, 구체적인 실습 및 체험학습의 필요성(5점만점)에 대해서도 평균 4.0이상의 높은 응답을 보인 반면, 실습 및 체험학습의 현실적인 실시가능성에 대해서는 보통에 못 미치는 부정적 응답을 나타내었다.

전반적인 실시 현황에 대한 평가도 5점만점에 평균 3.1로 보통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현재 학교현장 일선에서 담당 교사들이 느끼는 예비부모교육의 중요성 인식과 실제 상황간의 괴리감은 적지않은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학교 '정규교과과정'을 통한 '수업시간의 확대'와 우선적으로 '부모역할과 책임'과 '성교육'의 내용 중심으로의 강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구체화되었다. 교사용답에 기초할 때, 전반적으로 현재 고등학교 학내 교과과정을 통한 예비부모교육의 수업이 내용과 시간, 방식의 충분성과 구체성에서 대체로 부족한 것으로 해석되며, 비교과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별도 프로그램의 마련은 더욱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본 교과과정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비교과 또는 학교 밖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발이 함께 연동되고, 학교 안과 밖의 다양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체험과 실습교육, 풍부한 자료,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구비한 선진 교육과정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2. 예비부모교육에 관한 대학생의 의견

1) 적정 시작시기

적정한 예비부모 교육 시작 시기를 알아본 결과, 전체의 38.6%가 '고등학교', 26.4%가 '중학교'라고 응답해 절반 이상이 중·고등학교 시절 예비부모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표 VI-2-1> 적정한 예비부모 교육 시작 시기

단위: %(명), 점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 전후	계	$\chi^2(df)$
전체	2.8	6.9	26.4	38.6	16.2	8.8	1000(978)	
성별								
남	3.6	7.2	22.0	40.3	18.0	8.8	1000(499)	12.91(5)*
여	2.1	6.7	31.3	37.0	14.2	8.8	1000(479)	
전공								
인문/사회/사범	3.4	7.3	27.3	34.2	19.5	8.4	1000(477)	20.11(10)*
이공/의학	2.5	6.1	24.7	44.4	12.5	9.8	1000(441)	
예체능/기타	1.7	10.0	35.0	31.7	16.7	5.0	100.0(60)	

* p < .05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전공별로 살펴보면, 이공/의학(44.4%), 인문/사회/사범(34.2%) 계열은 ‘고등학교’를, 예체능/기타 계열은 ‘중학교’를 적절한 시기로 꼽았다(표 VI-2-1 참조).

2) 교육기회의 충분성에 대한 의견

예비부모 교육기회 제공에 대한 의견으로 프로그램화된 형식적 예비부모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체의 49.7%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형식적 예비부모 교육의 충분성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 응답을 비교해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여학생(15.8%)에 비해 남학생(20.7%)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외의 결과를 보였다.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수도권에 비해 다른 타 지역의 대학생들이 교육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유형별로 보면 2/3년제에 비해 4년제 대학생들이 더 많은 비율로 프로그램화된 형식적 예비부모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VI-2-2> 프로그램화된 형식적 예비부모교육 기회의 충분성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충분	불충분한 편	보통	충분한 편	매우 충분	계	$\chi^2(df)$	평균
전체	8.8	40.9	32.0	16.2	2.0	100(978)		2.62
성별								
남	10.1	40.7	28.6	18.7	2.0	100(499)	9.60(4)*	2.62
여	7.5	41.1	35.7	13.7	2.1	100(479)		2.62
지역								
수도권	5.8	38.1	27.8	25.2	3.1	100(380)	65.33(20)***	2.82
충청권	12.3	37.4	40.5	8.6	1.2	100(159)		2.49
전라권	11.4	40.9	34.1	11.4	2.3	100(132)		2.52
경북권	15.2	41.1	31.3	10.7	1.8	100(110)		2.43
경남권	4.8	47.6	32.4	14.5	0.7	100(144)		2.59
강원권	11.3	52.8	32.1	3.8	0.0	100(53)		2.28
대학유형								
4년제	8.3	44.1	31.2	14.7	1.7	100(743)	15.30(4)**	2.58
2/3년제	10.5	30.8	34.6	21.1	3.0	100(235)		2.75

* p<.05 ** p<.01 ***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예비부모 교육 기회 제공에 대한 의견으로 부모님, 가족, 친지를 통한 비형식적 예비부모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체의 42.3%가 '보통', 30.6%가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비형식적 예비부모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강원권에서 불충분하다는 의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매우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고, 대학유형별로는 2/3년제 대학생들이 4년제 대학생보다 비교적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VI-2-3> 가족 내 예비부모교육 기회의 충분성 정도

단위: %(명),점

구분	매우 불충분	불충분한 편	보통	충분한 편	매우 충분	계	$\chi^2(df)$	평균
전체	4.8	30.6	42.3	19.4	2.9	1000(978)		2.85
성별								
남	6.9	28.0	42.9	18.7	3.6	1000(499)	14.37(4)**	2.84
여	2.5	33.4	41.7	20.1	2.3	1000(479)		2.86
지역								
수도권	3.9	24.4	44.6	23.4	3.7	1000(380)	34.94(20)*	2.98
충청권	7.4	30.1	41.7	19.6	1.2	1000(159)		2.77
전라권	3.0	37.1	42.4	13.6	3.8	1000(132)		2.78
경북권	7.1	33.0	35.7	19.6	4.5	1000(110)		2.81
경남권	2.1	35.9	44.1	15.9	2.1	1000(144)		2.80
강원권	9.4	41.5	35.8	13.2	0.0	100.0(53)		2.53
대학유형								
4년제	4.1	33.5	41.9	18.3	2.1	1000(743)	19.87(4)***	2.81
2/3년제	6.8	21.5	43.5	22.8	5.5	1000(235)		2.99

* p<.05 ** p<.01 ***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예비부모 교육의 기회 제공에 대한 의견으로 생애주기별 예비부모 교육의 지속적 인 수강이 의무화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체의 53.1%가 생애주기 별 예비부모 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자의 54.4%, 여자의 51.9%가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고, 지역별로 보면, 강원권(73.6%), 전라권(64.4%), 충청권(52.5%)은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수도권 과 경북권, 경남권은 지속적 수강이 필요하다는 데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강원권은 '매우 찬성'이라는 응답이 24.5%에 이르러, 강한 동의를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VI-2-4> 예비부모교육의 지속적 수강 의무화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반대	조금 반대	보통	약간 찬성	매우 찬성	계	$\chi^2(df)$	평균
전체	1.3	10.8	34.8	39.2	13.9	100.0(978)		3.54
성별								
남	1.8	11.5	32.3	39.3	15.1	100.0(499)	5.07(4)	3.54
여	0.8	10.0	37.3	39.2	12.7	100.0(479)		3.53
지역								
수도권	1.3	14.2	35.2	39.6	9.7	100.0(380)	54.34(20)***	3.42
충청권	2.5	6.1	39.3	35.6	16.6	100.0(159)		3.58
전라권	0.0	8.3	27.3	44.7	19.7	100.0(132)		3.76
경북권	3.6	11.6	35.7	28.6	20.5	100.0(110)		3.51
경남권	0.0	11.0	39.3	42.1	7.6	100.0(144)		3.46
강원권	0.0	3.8	22.6	49.1	24.5	100.0(53)		3.94
대학유형								
4년제	1.2	10.7	35.1	39.0	14.0	100.0(743)	0.52(4)	3.54
2/3년제	1.7	11.0	33.8	40.1	13.5	100.0(235)		3.53

***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3) 예비부모교육의 형태

효과적인 예비부모 교육의 형태를 살펴본 결과, 전체의 53.9%가 '프로그램화된 형식적 예비부모 교육'을 꼽았다. 즉, 부모나 가족, 친지 등에게서 비공식적으로 받는 교육이나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한 부모교육보다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규정화된 정식 예비부모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우세함으로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미디어나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부모교육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강원권(64.2%)과 충청권(63.5%)의 경우 '프로그램화된 형식적 예비부모 교육'에 대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수도권 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형식적 교육기회에 대한 요구가 낮고 인터넷 등 미디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응답율의 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5> 효과적인 예비부모 교육의 형태

단위: %(명)

구분	프로그램화 된 형식적 예비부모 교육	부모, 가족, 친지를 통한 예비부모교육	친구, 미디어, 인터넷을 통한 예비부모교육	계	$\chi^2(df)$
전체	53.9	34.7	11.1	100.0(978)	
성별					
남	53.9	37.3	8.8	100.0(499)	5.91(2)
여	54.5	32.4	13.2	100.0(479)	
지역					
수도권	48.2	38.2	13.7	100.0(380)	21.80(10)*
충청권	63.5	27.0	9.4	100.0(159)	
전라권	59.8	31.1	9.1	100.0(132)	
경북권	56.4	36.4	7.3	100.0(110)	
경남권	49.3	41.7	9.0	100.0(144)	
강원권	64.2	22.6	13.2	100.0(53)	

* p<.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3. 성인을 위한 예비부모교육의 개선

1)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 방법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VI-3-1> 예비부모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 필요 사항

단위: %(명)

구분	프로그램 다양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접근성 확대	홍보 강화	교육대상 확대	교육기관 확충	기타	계
전체	16.3	17.8	33.7	22.1	2.9	5.8	1.4	100.0(208)
성별								
남	16.3	15.1	33.7	25.6	2.3	5.8	1.2	100.0(86)
여	16.4	19.7	33.6	19.7	3.3	5.7	1.6	100.0(122)
나이								
25세 미만	30.8	15.4	15.4	19.2	7.7	11.5	-	100.0(26)
25-30세 미만	12.5	14.8	40.9	20.5	3.4	6.8	1.1	100.0(88)
30-35세 미만	16.2	17.6	33.8	25.0	1.5	4.4	1.5	100.0(68)
35세 이상	14.3	33.3	28.6	23.8	-	-	-	100.0(21)

구분	프로그램 다양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접근성 확대	홍보 강화	교육대상 확대	교육기관 확충	기타	계
전체	16.3	17.8	33.7	22.1	2.9	5.8	1.4	100.0(208)
거주지역								
대도시	11.9	22.0	34.9	16.5	4.6	7.3	2.8	100.0(109)
중소도시	16.5	15.2	35.4	29.1	-	3.8	-	100.0(79)
읍·면	53.3	-	26.7	20.0	-	-	-	100.0(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성인 대상 조사 결과임.

전체의 33.7%가 교육의 기회 확대 및 접근성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22.1%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17.8%는 전문교육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16.3%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응답하였다(표 VI-3-1 참조).

2) 예비부모 관련 프로그램 재수강 희망 정도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성당에서 예비부부, 예비부모 관련 주제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I-3-2> 부모교육 프로그램 재수강 희망 여부

단위: %(명)

구분	반드시 참여하고 싶음	여건이 허락한다면 참여함	더 이상 참여 않음	계	$\chi^2(df)$
전체	20.7	75.6	3.7	100.0(217)	
성별					
남	18.5	77.2	4.3	100.0(92)	-
여	22.4	74.4	3.2	100.0(125)	
나이					
25세 미만	16.7	73.3	10.0	100.0(30)	
25-30세 미만	18.7	79.1	2.2	100.0(91)	
30-35세 미만	24.6	71.0	4.3	100.0(69)	-
35세 이상	27.3	72.7	.0	100.0(22)	
거주지역					
대도시	20.4	75.2	4.4	100.0(113)	
중소도시	25.3	71.1	3.6	100.0(83)	-
읍·면	6.3	93.8	-	100.0(16)	
교육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25.9	70.6	3.5	100.0(143)	
성당	10.8	85.1	4.1	100.0(74)	6.73(2)*

*p<.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성인 대상 조사 결과임.

전체의 75.6%가 여건이 허락한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20.7%는 반드시 참여하고 싶다고 하였다. 대부분 응답자들이 재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재참여하겠다'는 응답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았고, 연령은 높을수록 응답률이 높았으며, 농어촌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재참여 의사를 많이 밝혔다. 응답자 소속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인 경우가 상당소속으로 응답한 사람들보다 재참여 의지가 높았는데, 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의무성이 전혀 없이 자발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이어서 더욱 그러한 결과를 보였을 것으로 추측된다(표 VI-3-2 참조).

3) 정부지원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지역 센터에서 예비부부,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질문의 결과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지원 지역 센터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73.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보통이다는 25.1%, 그렇지 않다는 1.4%에 불과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지역 센터에서 하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을 현재보다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80.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보통은 18.3%, 그렇지 않다는 1.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센터보다는 수요자들이 개별적으로 병원이나 상당기관, 종교시설 또는 사회단체를 통해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는 27.8%였고, 보통이다는 43.9%, 그렇지 않다는 28.3%인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병원이나, 종교시설, 사회단체 보다는 정부지원 센터를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3-3>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효과적임	0.5	0.9	25.1	36.7	36.7	100.0(215)	4.0
지역센터 프로그램 확대, 강화 필요	0.5	0.9	18.3	31.0	49.3	100.0(213)	4.2
병원, 종교기관에서 수강 희망	5.2	23.1	43.9	16.5	11.3	100.0(212)	3.0

* p<.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성인 대상 조사 결과임.

4)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성인의 의견

성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소양과 성품, 지식을 기르는데 예비부모교육과 같은 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94.0%로 압도적으로 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유형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VI-3-4 참조).

<표 VI-3-4> 예비부모교육의 유용성 인식: “좋은 부모됨에 도움이 된다”

단위: %(명)

구분	매우 반대	조금 반대	보통	조금 찬성	매우 찬성	계	평균	t/F
전체	0.4	-	5.7	38.3	55.7	100.0(230)	4.4	
성별								
남	1.0	-	5.2	42.7	51.0	100.0(96)	4.4	-1.19
여	-	-	6.0	35.1	59.0	100.0(134)	4.5	
나이								
25세 미만	-	-	10.0	43.3	46.7	100.0(30)	4.3	0.38
25-30세 미만	-	-	5.1	40.4	54.5	100.0(99)	4.4	
30-35세 미만	1.4	-	4.1	35.1	59.5	100.0(74)	4.5	
35세 이상	-	-	9.1	31.8	59.1	100.0(22)	4.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성인 대상 조사 결과임.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예비부모교육의 기회가 얼마나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먼저 학교, 종교 단체, 전문상담소, 정부 단체 등을 통한 체계적 예비부모교육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67.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일상생활을 통해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를 통해 접하는 넓은 의미의 예비부모교육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9.2%에 불과했고, 대부분 55.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가정 내에서도 예비부모교육이 제공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겠다.

<표 VI-3-5> 교육기회의 충분성에 대한 성인의 인식

단위: %(명)

구분	전혀불충분	거의불충분	보통	조금충분	매우충분	계	평균
기관을 통한 교육	15.3	52.0	26.2	4.4	2.2	100.0(229)	2.2
부모, 친지 등 가정내 교육	13.1	42.8	34.9	6.6	2.6	100.0(229)	2.4
TV, 인터넷 통한 교육	15.4	46.5	30.3	6.6	1.3	100.0(228)	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성인 대상 조사 결과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을 통해 TV, 인터넷 등을 통해 접하는 넓은 의미의 예비부모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61.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표 VI-3-5 참조).

생애주기별로 볼 때, 각각의 교육내용을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지 질문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의 이해 및 가정의 중요성은 25.9%가 초등학교 시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도 26.6%가 초등학교 시기라고 응답하였다. 부모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는 결혼직후 임신이전 신혼기가 17.4%로 가장 많았고, 결혼관 및 양성평등의식은 17.4%가 고등학생이, 18.7%가 대학생이 이 시기부터 교육받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성, 임신, 출산, 피임, 태교의 중요성은 24.2%가 중학교 시절부터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19.0%가 대학교 시절, 아동발달에 관한 지식은 27.6%가 임신기, 아동양육기술은 21.9%가 결혼직후 임신이전 신혼기에 받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표 VI-3-6 참조).

<표 VI-3-6> 예비부모교육의 내용별 적정 시기

단위: %(명)

구분	영유 아기	초등 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	대학생	군 복무기	2,30대 미혼	결혼전 교제기	임신전 신혼기	임신기	계
가족의 이해 가정의 중요성	17.7	25.9	12.7	6.8	5.0	2.3	13.2	8.6	6.8	0.9	100(22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17.9	26.6	20.6	5.5	4.1	-	4.1	3.2	8.7	8.3	100(218)
부모역할 및 책임에대한이해	6.8	7.3	11.4	9.6	11.4	2.7	13.7	6.8	17.4	12.8	100(219)
결혼관 및 양성평등의식	2.7	11.9	11.4	17.4	18.7	1.8	16.9	16.9	1.4	0.9	100(219)
성,임신,출산,피임 태교 중요성	1.4	17.4	24.2	21.9	10.0	1.4	5.9	8.2	7.8	1.8	100(219)
아동에 대한 사회적책임	6.0	9.7	11.1	13.0	19.0	0.5	15.3	6.0	8.8	10.6	100(216)
아동발달에 관한 지식	10.6	4.6	7.4	8.8	11.1	0.5	7.4	3.2	18.9	27.6	100(217)
아동양육기술	3.7	0.9	3.2	5.5	8.2	0.5	9.1	2.3	21.9	44.7	100(21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성인 대상 조사 결과임.

예비부모교육 형태 중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58.3%가 학교, 종교/사회단체, 전문상담소, 지역 센터 등을 통한 체계적 예비부모교육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27.4%는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님, 가족 등을 통해 접하는 넓은 의미의 예비부모교육이라고 응답하였다. 각각의 유형별로도 학교, 종교 단체 등에서의 교육을 가장 많이 응답하여 우리의 생활 권역 내에서 예비부모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VI-3-7> 예비부모교육 형태 중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

단위: %(명)

구분	학교, 지역센터 등 기관중심	부모님, 가족을 통해	TV, 인터넷 등을 통해	군대, 직장 등 소속기관에서	기타	계
전체	58.3	27.4	5.4	7.6	1.3	100.0(223)
성별						
남	50.5	32.3	6.5	9.7	1.1	100.0(93)
여	63.8	23.8	4.6	6.2	1.5	100.0(130)
나이						
25세 미만	41.4	34.5	6.9	13.8	3.4	100.0(29)
25-30세 미만	60.4	28.1	1.0	8.3	2.1	100.0(96)
30-35세 미만	63.9	22.2	8.3	5.6	0.0	100.0(72)
35세 이상	50.0	31.8	13.6	4.5	0.0	100.0(22)
거주지역						
대도시	52.6	33.6	8.6	5.2	0.0	100.0(116)
중소도시	64.7	18.8	2.4	11.8	2.4	100.0(85)
읍·면	76.5	17.6	0.0	5.9	0.0	100.0(1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성인 대상 조사 결과임.

4.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은 적정 시작 시기로 인식되고 있는 고등학생에 대한 예비부모교육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는 방법을 대학생 및 교사, 그리고 고등학생 조사 결과를 통해 찾아보고자 하였고, 성인 교육에 대한 개선점도 함께 살펴보았다.

고등학생에 대한 예비부모교육에 대해 대학생과 교사들은 모두 높은 비율로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고, 교육내용도 좋은 부모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양육 실습으로 아기돌보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나 실제 실습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였다. 적절한 교육기

간으로는 한 학기 정도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대학생은 성/임신/출산/피임에 관한 내용, 교사는 부모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질 주제로 꼽았다. 예비부모교육 실시의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학교 교과수업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교사들은 고등학교에서 교과목을 통한 예비부모교육이 별로 잘 되고 있다는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더욱 확대하고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방법으로서, 교과목내 육아관련 내용 분량을 확대하고 특강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시수를 늘이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할 것을 주장하였다.

성인에 대한 예비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접근성이 증대되어야 하며, 특히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현재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 중인 사람들도 앞으로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싶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정부지원이 있는 지역센터 등에서 개최되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므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예비부모교육은 고등학교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현재의 교육기회나 프로그램은 충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온라인이나 비형식적 교육보다는 프로그램화된 형식적 예비부모교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하였으며, 학교나 지역센터, 종교, 사회단체 등 일정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바람직하게 보았다.

결론적으로, 고등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은 그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 학교에서 제대로 지도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과 지도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 성인을 위해서는 정규화된 프로그램을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예비부모교육을 강화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VII. 예비부모교육의 내실화 방안

본 보고서는 앞에서 다양한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접, 외국 문헌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예비부모교육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해왔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결론짓고 우리나라 예비부모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성인 등 세 필요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1. 예비부모교육의 적기: 고등학생

예비부모교육은 인생의 어느 발달 시점에서든 필요한 과정이지만, 특히 고등학교 시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발달적으로 청소년기의 막바지에 이르러 성인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러하기도 하고, 10대의 임신 증가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처라는 측면에서 그러하기도 하고, 출산율 제고 의식을 청소년기부터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국가적 요구이기도 하며, 예비부모교육이 모두가 접해야 하는 주요한 과정임을 생각한다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교육을 받는 기회를 갖는 보편적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사회인이 되기 전 이를 충실히 다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기도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면접조사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고등학생은 예비부모교육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부모를 보며, 현재 가정 내 가족관계를 개선해가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 부모가 되기 훨씬 전인 고등학생기의 예비부모교육은 청소년에 대한 인성교육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등학생 시기에 대한 예비부모교육의 내실화는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가. 교육방법의 측면

입시가 가장 중요한 과업인 고등학생 시기는 예비부모교육을 받기 위해 별도로 학교 밖의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거의 가능하지 않으므로, 교육은 기본적으로 학교 안에서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교사들은 예비부모교육이 적절히 체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교과 내용의 확충과 수업시수의 연장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제안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현 입시 제도를 고려한다면 시수를 늘이는 일은 쉽지 않고 교과서 내용을 늘이는 일도 고등학생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격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장 먼저 제안하는 것은, 현재 1학년 1학기에 대부분 배정된 부모교육관련 수업을 2학년 1학기, 또는 최소한 1학년 2학기 후반기에 배정을 하여 학생들이 보다 성숙하고 성인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높아진 시기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학생들이 고등학생 시기에 배운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결정적인 시기를 잡지 못했고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는 교육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이므로, 교육의 시기에 대한 조절을 제안하는 바이다.

더불어, 예비부모교육은 단기간 내 한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일회성으로 마감해버리는 형태로는 부족하므로, 고등학교 시기 동안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교육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과목을 매학기 다시 지도하거나 시수를 늘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학교의 재량 수업이나 보강 수업, 또는 특강 등을 활용하여 부정기적으로 학기 당 1~2회를 예비부모교육에 할당할 필요가 있다. 이 때에는 가정·기술 담당 교사가 수업을 맡을 수도 있고 외부 강사가 강연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예비부모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많이 확보하고 이를 적시에 공급하며, 수업에 대한 풍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일이다. 여기에는 부모교육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각 지역 교육청이나 유아교육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 혹은 지역 대학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셋째, 교사들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교과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시청각 자료를 풍부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 양육과 관련한 실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아들인다면, 그 대안로서 수업을 입체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양한 교육매체이며, 많은 교사들이 의존하고 있는 시청각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풍부하게 공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관련 기관과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넷째, 예비부모교육이 포함된 기술·가정 과목은 교사의 배경에 따라 수업의 내용과 형태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특히 남자교사가 지도하는 남학생에 대해 더 섬세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즉, 기술을 전공한 남교사는 가정교육을 전공한 여교사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인근 학교간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자료 교환 및 필요한 경우 교사의 교환 수업 등을 통해, 남

녀 학생들이 동일한 비중으로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교육내용의 측면

고등학교 시기의 예비부모교육 내용은, 아직은 묘원해 보이는 구체적인 양육기술이나 방법과 관련한 것보다는 청소년들이 가진 흥미를 충족시키고 의식을 자극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의 결과에서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고등학생들이 가장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내용은 임신, 출산과 관련한 부분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되 부모의 역할과 이로 인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함께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등학생들은 현재 교과목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 유용한 반면, 진부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지닌 지식의 정도와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 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소한 임신과 출산, 피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심층적인 모든 지식이 청소년기에 가르쳐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10대 임신의 위험성과 부정적 결과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교육적 기능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임신과 양육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미혼 및 10대에 한정된 것임을 분명히 인식토록하고, 부모됨에 대한 근본적인 충족감, 생산성으로 인한 성취감, 인생에서의 자녀의 의미 등 정상적 출산에 따르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자녀 출산의 의의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향후 국가 출산율 제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등학교의 예비부모교육은 부모되기의 중요함, 양육의 어려움 등을 동시에 이해하는 기회가 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인격적 성숙을 유도하여 인성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는 데 궁극적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자신의 위치와 자아의 발달을 이해하고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 개선에도 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면서 추구해야 할 올바른,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며, 바르게 성장한다는 것, 올바른 인격체로 교육한다는 것의 의미 등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이 풍부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비단 기술·가정 교과목에만 의존하기보다 도덕, 윤리, 국어, 사회, 영어 등 통합교과적인 측면에서 부모되기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 현재 기술·가정 교과목이 입시 과목이 아니어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이 적고 기억에 오래 남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할 때, 입시과목인 윤리나 국어, 사회 분야에서 부모됨에 대한 일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면, 보다 효과가 클 것이다. 예를 들면, 10대 임신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읽을 거리를 국어나 영어에서 제시한다든지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윤리적 내용, 여성취업과 저출산의 관계 및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영향, 육아의 남녀간 분담 등을 사회 과목에서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됨과 관련한 몇 가지 인식에서 남녀 성별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이 육아의 측면에서 다르지 않고 동일한 책임을 나눠져야 할 평등한 주체임을 자각케 하는 내용이 교과에서 강조되어야 하며, 특히 남학생들이 출산에 대한 책임성을 깨닫고 육아의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도록 남학생들에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 영아돌보기 실습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나, 최소한 남학생들에게는 연간 1회이더라도 재량수업, 특별활동, 또는 봉사활동 점수를 활용해서라도 보육시설 방문이나 교구를 활용한 실습을 가능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남학생들에게는 육아와 부모됨이 자신의 일임을, 어머니 역할에만 맡겨진 일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적 환경이 고등학교에서 시작하여 대학교, 군대, 사회에까지 연결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측면은 남자 고등학생을 지도하는 남자 선생님에게 특히 인식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르쳐지고 있는 교과목의 내용에 대해 보완적으로 시급히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양육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복지혜택,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과 그것에 대한 접근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관련 정책과 제도는 해마다 변화하며 예산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육을 국가가 얼마나 중요하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인식케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등 정보에 익숙해지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래에 부모가 될 청소년을 준비시키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중대 사업으로서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예비부모교육의 우선적 확대: 대학생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공교육의 마지막 단계인 고등학교 시기가 예비부모교육의 본격적 실시를 시작하는 때라고 본다면, 대학생시기는 보다 심화되고 구

체화된 예비부모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기와는 다르게 모든 대학생이 예비부모교육을 접하지는 않고,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53%정도(4년제일 경우)의 학교가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학생의 8%정도만이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소수의 대학생만이 예비부모교육을 이 시기에 받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대학생에 대한 예비부모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방법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가. 교육방법의 측면

대학생들은 고등학생들보다 '부모되기'를 현실에 가까운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게는 부모역할 및 책임, 아동발달 등을 교양으로 가르칠만하며, 수업을 선택한 학생들은 내용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더 많은 학교에서 개설을 하여 선택지를 넓혀 준다면 수강자가 흥미롭게 들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 학기 정도의 과목으로 적정하며 1회 수강에 그치는 현상은, 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다양한 과목을 설치하여 장기간에 걸쳐 수업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제기시킨다. 즉, 아동발달과 양육, 가족의 이해와 의사소통, 부모와 부부로서의 역할 등 주요 내용을 2~3개 과목으로 세분하여 학생들의 선택지를 높여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많은 수의 대학에서 부모교육 관련 과목은 교양 선택형으로 구분되어 있어, 학생들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고, 5개 4년제 대학에서만(주로 국립대) 필수 교양과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교양 선택과목의 특징은 주로 1학년 때 한 학기 수강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많은 경우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부모교육이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더욱 자신의 현실과 가까이 느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절실히 질 수 있는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고학년에서 수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단일 학기로 종결하기보다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제도적으로 넓힘으로써 2~3학기에 걸쳐 심화과정 또는 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즉, 현재 부모교육 교양과목을 주로 주도하고 있는 '가정' 관련 학과(예, 생활과학대학 등)에서도 개론, 심화 과정 등으로 개설할 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인문대학(철학과 등), 사회과학대(심리학과 등), 사범대학(유아교육과 등) 등에서도 협동 계획 하에 폭넓은 과정 개설이 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교육 과목을 최소 2~3학점에 대해 교양필수나 핵심교양 등으로

선정하여 의무 수강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대학생이 앞으로 부모가 될 것이며, 바르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자질을 기르도록 하고, 이러한 학습의 과정은 결국 국가의 장래와도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되므로, 많은 학생이 교양과정으로서 필수적으로 거쳐 가도록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인문이나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것 못지않게 부모됨에 대한 지식은 국가뿐 아니라 개인사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한편,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대학생 시기 동안 2년여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군대 시기를 활용하여 예비부모교육이 군에서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 군대 내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양한 정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하나의 교육 주제로서 '부모교육'을 선택하고, 일회성보다는 일련의 과정을 수료하여 수료증을 발부할 수 있다면, 향후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에 임박한 경우에도 부모로서의 자격을 언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방안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방부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나. 교육내용의 측면

대학생 시기는 고등학생 시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심화된 아동발달 지식, 부모-자녀 관계, 양육 기술 등을 다루는 편이 더욱 흥미로울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한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응답을 보면, 구체적인 양육 기술이나 돌보기 테크닉 보다는 아동발달이론이나 지식적인 측면의 심층 내용에 대한 흥미가 높다고 하여,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발달과 자녀-부모관계 이론 등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고등학생 시기에 가치관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학과목간 통합 교육을 강조했던 데에서 좀 벗어나, '양육'이라는 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영유아를 돌보는 방법, 부모의 영향력, 결혼과 가정의 영유 등 현실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대학생은 결혼과 출산이 바로 자신의 현실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남학생의 경우 양육에 대해 낯설지 않은 주제가 되도록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양육 실습을 포함하는 것을 장려할 필요도 있다. 입시 위주인 고등학생 시기에 비해, 보다 자유롭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하여, 영아돌보기 등 모델을 활용할 수도 있고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자원봉사를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일에는 대학교육과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나,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계를 지원할 만하다.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내용으로 특히 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방법을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 국가가 자녀 출산과 양육, 교육에 대해 미래인적자원적인 시각에서 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한다. 이를 위해 대학생이나 미혼 성인을 위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 등을 안내하는 책자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3.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접근성의 제고: 성인

본 연구의 조사에 참여하였던 성인 응답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은, 예비부모교육에 참여해보니 유용하고 좋은 경험이었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접한 적이 별로 없어 이전에는 잘 알지 못했으며, 현재에도 참여 프로그램 외에는 다른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물론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한정적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개설되고 있지 못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자리잡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도시 지역에서 '교육접근성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특히 중소도시에서 '홍보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이에 비해 농어촌지역은 접근성과 홍보강화와 더불어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향후 예비부모교육을 더 받고 싶다는 희망은 도시지역에서 매우 높게 나왔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가 많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예비부모교육을 내실화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25세 이상 35세 미만의 성인의 경우, 지역센터 등 기관 중심의 교육이 인터넷이나 직장 등을 통한 교육보다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여, 이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가 지원하는 센터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선호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센터를 중심으로한 직접 교육 프로그램은 미디어나 인터넷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에서도 더욱 수요가 높았다. 결론적으로, 가장 부모교육이 절실한, 결혼을 눈 앞에 둔 젊은 성인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많은 홍보를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황을 살펴보면, 성인에 대해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예비부모교육을 실시

하고 있는 곳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유일하지만, 그나마도 예비부부교육의 일부로서 부모교육을 가미하는 정도이고 아예 부모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주요 정책 사업인 '출산과 육아 장려'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에 결혼 및 부부 준비뿐 아니라, 부모되기를 위한 교육내용을 강화하며,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일정기간 홍보를 할 수 있다면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달라질 것이다. 이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을 통해 배운 부모되기 교육의 연장선 상에 있고, 계속 교육, 평생 교육의 측면에서도 촉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만으로는 접근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온라인 교육을 강조하기에는 그 효과성이 의문시되며, 많은 성인 응답자가 정부지원 기관 교육을 선호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예비부모교육과 비슷한 내용을 지역내 대학이나 기업 등과 연계하여 정부의 지원 하에서 지역민은 지역내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 내에서 파견된 강사를 통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강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익숙하여 동일한 능력을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또한 국가 기관, 즉, 교육청이나 육아정책연구소, 교육과학기술부, 우수 대학 등의 검증과 승인을 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위와 같이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습자인 교육 참여자들에게 동인(動因, motivation)을 부여하는 방법이 제도화되는 것도 중요하다. 만일 예비부모교육 이수자에게 사회복지적 우대를 부여할 수 있다면, 참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즉, 예비부모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 자녀 출산시 또는 인공수정 시술시 건강보험 급여 상향의 혜택을 줄 수 있고, 출산 물품 구입시 국가 지원을 통해 가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예비부모교육은 고등학교에서 올바른 임신과 출산에 대한 태도를 가지게 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성별에 따른 불편부당한 자세를 가지도록 하며, 대학교육을 비롯한 청년 후기 및 성인 교육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양육 기술과 지식을 접하게 하여 부모로서의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여 접근성을 제고하며, 예비부모교육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강기정·배은숙(2008). 시설보호청소년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모교육 연구**, 5(1), 23-42
- 김경희(2009). **부모교육프로그램, 부모 양육태도-민주-자율적부모, 애정-수용적부모**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영옥(2007). **현대사회와 부모교육, 부모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 고양: 공동체
- 김성자·이미숙 (2003). 유치원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자녀양육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생활과학연구논집**, 23(1), 73-88
- 김은설·최진·조혜주·김경미(2009). **육아지원기관 부모교육·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최혜선(2008).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김정미(2004a).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정미(2004b).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적용효과. **유아교육학회지**, 8(4), 65-85.
- 김중서·이영덕·정원식(1995). **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 김지신·김민정·김은혜·이유리·최정희(2008). 영아기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요구도 조사. **한국아동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46-147
- 나은경(1993). **고등학생의 부모기에 대한 이해와 유아기 자녀교육에 관한 태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왕호(1997). 자기성장중심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12, 77-100
- 문수경(2004).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필요성. **강남대학교 인문과학논집**, 13, 253-274
- 박성연·김상희·김지신·박응임·전춘애·임희수(2003). **부모교육의 본질 부모교육의 개념**. 교육과학사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5).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배영사.
- 서울방송(SBS). 2010. 7. 11. 뉴스보도
- 안혜준·송승민(2007). 대학 예비부모교육 강좌의 수강 전후에 나타나는 대학생들의 자녀교육관 및 자녀양육태도의 차이. **한국생활과학회지**, 16(6), 1119-1130.
- 우재현(2001). **심성개발을 위한 교류분석(TA) 프로그램**. 정암서원.
- 원성희·유영달(2006).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D. W. Winnicott의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1), 1-33.
- 유인숙·유영달(2006). 대상관계이론에 따른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이 자존감 및 부모 자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253-281.
- 이병래(1991). **결혼 전 여성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병래(2003). 대학생들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유아교육연구**, 23(1), 133-152.
- 이원영(1992). **부모교육론**. 서울: 교문사.
- 이원영 ·김정미 (2007)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서울북카페
- 이은화·김영옥(1999). **부모교육**. 서울: 동문사
- 이상희(2009). 치료놀이를 적용한 대학생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이 대인관계 및 자기 의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4(4), 293~311.
- 이순형 · 민하영 · 권혜진 · 정윤주 · 한유진 · 최윤경 · 권기남(2010). **부모교육**. 학지사.
- 이재연, 김경희(1993). **부모교육**. 서울: 양서원.
- 장미경·임원신(2004). 부모놀이치료를 이용한 대학생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13(2), 215-224
- 전선영(2001). 대학생들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6(3), 73-95.
- 전춘애 · 이미숙 (2003)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수행에 관한 연구경향분석**. **한국가족관계 학회지**, 8(3) 1-29
- 통계청(2009).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 한세영 · 김연화 · 김기원 · 김주연 · 김지윤 · 안수희 (2008).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도 조사연구- 첫 자녀를 임신한 예비어머니를 중심으로. **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144-145
- 황윤세(2005). 대학생들의 부모됨에 대한 이해와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도 조사. **삼척대학교 학생생활상담실 학생생활연구**, 11, 89-107
- Abartz, K. W. (1980). Parenting education for youth. In M. J. Fine (E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Ainsworth, R. W. , Hawtin, P. , Ralph, J. C. , Roberts, D. N. (1980)*Heat and Mass Transfer to the Cooled Roof and Walls of a Short Air-Filled Cylinder from Two Concentric Pools of Water* 800401(2) 14-30-14-37.
- Akinbami, L.J., Cheng, T.L., & Kornfeld, D.(2001). A Review of Teen-Top Programs: Comprehensive Clinical Care for Young Parents and Their Children, *Adolescence*, 36(142), 381-393.
- Berk, L. E.(1997). *Child Development (4th Ed.)*. New York: Allyn and Bacon.
- Bowlby. J.(1969). Attachment. London: Hogarth Press.
- Caron. S.L. & Wynn, R.L.(1992). The Intent to Parent among Young, Unmarried College Graduates,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480-487.
- Doetsch, Patricia (1990). Reducing the risk for child abuse by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 parenting program for tee age mothers. Ed.D. *Practicum*, Nova University.
- Estelle, W., Rosen, & Efrem, R.(1994). Decreasing sex bias through education for parenthood or prevention of adolescent pregnancy. *Adolescence*, 29(115).
- Flynn, L.(1999). The Adolescent Parenting Program: Improving Outcomes Through Mentorship. *Public Health Nursing*, 16(3), 182-189.
- Frank, M. et al.(1992). *Teaching Children about Parenting*.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00th, Washington, DC, August 16, 1-14.

- Groom, P. D. (1999). *Prediction of parenting attitudes and behaviors among adolescents*.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ulsa.
- Guernsey(1964). *Filial therapy* 28(4)
- Haskin, R. & Adams, D. (1983). *Parent Education and Public Policy*. NJ: Ablex Publishing Co.
- <http://www.eduparents.org/>
- <http://www.preparentomorrowparents.org/>
- Landreth, Garry L (1991). *Children, Client Characteristics (Human Services), Counseling Techniques, Counselor Client Relationship, Counselor Role, Play Therapy in Indiana*
- Masterpasqua, F. 외 (1992). *Teaching Children about Parentin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hilliber, S., Brooks, L., Lehrer, L.P., Oakley, M., & Waggoner, S.(2003). Outcomes of teen parenting programs in New Mexico. *Adolescence*, 38, 535-553.
- Roundtree, D. J. (1987). *Implementing parenting workshops with SOLVE adolescent mothers*. Practicum paper, Nova University.
- Sangalang, B. B., Barth, R.P., & Painter, J.S.(2006). First-Birth Outcomes and Timing of Second Birth: A Statewide Case Management Program for Adolescent Mothers. *Health & Social Work*, 31(1), 54-63.
- Weinstein, Estelle, Rosen, Efrem (1994). Decreasing sex bias through education for parenthood or prevention of adolescent pregnancy: A developmental model with integrative strategies. *Roslyn Heights*, v.29.

부 록

1. 대학생 조사 설문지
2. 고등학생 조사 설문지
3. 성인 조사 설문지
4. 고등학교 교사 조사 설문지
5. 추가 분석표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의견 조사(대학생)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관련 정책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2010도 연구과제로 「예비부모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장래 부모가 될 '예비부모'에 해당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받고 있는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내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음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와 개인정보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이오니, 정확한 응답과 솔직한 의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연구소 「예비부모교육 연구팀」

OOO 부연구위원 ☎ 02) 398 - 0000

OOO 부연구위원 ☎ 02) 398 - 0000

설문작성일

2010년 6월 일

다음은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1.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도에 √표 해주십시오.

항 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나는 미래에 결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나는 미래에 자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 자녀양육의 책임은 부와 모, 두 사람에게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4) 자녀양육의 역할은 부모 중 어머니에게 더 부여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5) 자녀양육의 역할은 부모 중 아버지에게 더 부여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6) 부모의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					
7)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문제가 된다.					
8)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고 부부끼리만 살고 싶다.					
9) 낙태는 법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낙태는 개인의 문제이다)					

2. (미혼인 경우) 귀하가 희망하는 장래 결혼연령은 대략 몇 세입니까? 세
(기혼인 경우) 귀하는 몇 세에 결혼하였습니까? 세

3. 귀하는 장래 부모가 되어 자녀를 기르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음 ② 몇 번 있음 ③ 여러 번 있음

4. 귀하는 영유아(만0-5세)기 아동을 일정 기간(반나절 이상) 혼자서 돌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없음 (5번으로 바로 가세요) ② 있음 (4-1번에 답한 후 5번으로 가세요)

4-1. 만일 "있음"에 답하였다면, 누구를 얼마동안 돌보았습니까?

대상: _____ 횟수: _____ 회

5. 귀하가 결혼을 한다면 미래에 희망하는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이상 ⑤ 낳고 싶지 않다

다음은 부모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6.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소양과 자질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7번으로 가세요) ② 별로 그렇지 않다 (7번으로 가세요)
 ③ 약간 그렇다(6-1번으로 가세요) ④ 매우 그렇다(6-1번으로 가세요) ⑤ 모르겠다((7번으로 가세요)

6-1. (6번에서 ③, ④번에 응답한 경우만 답해 주십시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소양과 자질을 기르기 위한 교육은 다음 중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1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① 가치관 형성시기인 청소년기부터 예비부모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임신과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 중심의 부모준비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③ 영유아자녀(만0-5세)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④ 별도의 교육보다는 양육경험과 연륜이 있는 조부모 세대의 가족 내 지원과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다.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_____

7.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① 양육지식 및 기술 (자녀의 성장을 돕기 위해 필요한 각종 관련 지식과 정보, 부모로서의 행동방식 등)
 ② 양육태도 및 자녀양육 가치관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키워야하는가에 관한 기본적인 신념과 생각)
 ③ 의사소통능력 (실제 자녀의 눈높이에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능력과 기술)
 ④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_____

다음은 '예비부모교육'의 경험과 의견입니다.

예비 부모교육이란?

▶ 예비부모교육의 개념

예비부모교육이란 장차 자녀를 키우게 될 사회구성원(청소년, 미혼 성인 등)이 부모로서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하고 실제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돕는 교육 활동을 의미합니다.

▶ 예비부모교육의 내용

예비부모교육은 성교육, 임신과 출산,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 자녀양육기술, 부모됨의 준비와 책임감, 부모역할수행,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예비부모교육의 종류

협의의 예비부모교육이 학교나 종교/사회단체, 전문상담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과과정에 의한 교육 등 '형식적(formal) 교육'을 가리킨다면, 넓은 의미의 예비부모교육은 TV, 인터넷, 쉽게 접하는 책자와 매체, 가족이나 친지와 지인, 또래 집단을 통해 접하는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 본 설문에서 의미하는 '예비부모교육'은 위의 예비부모교육의 종류 중 협의의 부모교육 즉, **학교나 종교/사회단체, 전문상담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과과정에 의한 '형식적(formal) 교육'을 가리키는 바이니, 이에 유의하여 답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대학에서 개설된 과목 중 결혼과 성, 가정과 부부 등의 관련 과목은 부모교육이라 볼 수 있으나 인간발달, 아동발달 등 아동이해를 위한 교육학, 심리학 계열의 발달심리학 과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8. 귀하는 지금껏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아래의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없다 (8-1, 9와 10은 건너뛰고 **11번** 질문으로 바로 가십시오)

8-1.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어디에서 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고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② 대학교 |
| <input type="checkbox"/> ③ 종교시설 | <input type="checkbox"/> ④ 사회교육기관 또는 상담기관 |
| <input type="checkbox"/> ⑤ 온라인 교양 강좌 | <input type="checkbox"/> ⑥ 군대 |
| <input type="checkbox"/> ⑦ 직장 내 교육 | <input type="checkbox"/> ⑧ 병원 |
|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_____ | |

9. **대학교에서 강의를** 통해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다음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해당사항이 없다면 **10번** 질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여러 번 있었다면 모든 경우를 다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9-1. 시기: _____학년 때

9-2. 과목명: _____

9-3 수업종류: ① 전공필수 ② 전공선택 ③ 교양필수 ④ 교양선택(9-3-1번에도 답해 주십시오)
⑤기타:_____

(위의 9-3)에서 ④번에 응답한 경우만 아래의 9-3-1에도 답해 주십시오.

9-3-1. 교양과목으로 부모교육을 선택하였다면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강좌개설 시기가 적절하여
- ② 선배나 동료의 추천으로
- ③ 학과 교수님의 추천으로
- ④ 부모교육 내용을 배우고 싶어서
- ⑤ 수업이 쉽고 학점받기가 용이할 것 같아서
- ⑥ 담당 강의자가 좋아서
- ⑦ 기존 수강과목과 관련이 있어서
- ⑧ 전공과 관계가 있어서
- ⑨ 기타: _____

9-4.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하세요)

- ① 현대 가족의 이해 및 가정의 중요성
- ②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 ③ 부모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
- ④ 결혼관 및 양성평등의식
- ⑤ 성, 임신 출산 피임, 태교의 중요성
- ⑥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양육관, 양육태도 등)
- ⑦ 아동발달(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등)에 관한 지식
- ⑧ 아동양육기술(수유, 영양 및 건강관리 등)
- ⑨ 기타:(_____)

9-5. 다음 중 앞으로 수업에서 특히 더 많이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어느 것입니까?

- ① 현대 가족의 이해 및 가정의 중요성
- ② 가족 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 ③ 부모역할 및 책임
- ④ 결혼관 및 양성평등의식, 부부 생활
- ⑤ 성, 임신 출산 피임, 태교의 중요성
- ⑥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 ⑦ 아동발달(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등)
- ⑧ 아동양육기술(수유, 영양 및 건강관리 등)
- ⑨ 기타: _____

9-6. 부모교육 수업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까?

- ① 한 학기
- ② 두 학기
- ③ 세 학기이상
- ④ 기타: _____

9-7. 수강한 부모교육 수업의 수업방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하세요)

- ① 강의
- ② 영화/비디오 관람
- ③ 실습(견학, 방문)
- ④ 온라인 강의: _____
- ⑤ 발표/토론
- ⑥ 기타 : _____

9-8. 부모교육 관련 과목 수강에 대한 소감 (해당항목에 √표 해주십시오.)

항 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					
2) 대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3) 이미 알고 있는 진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4) 관련 과목을 더 수강하고 싶다					
5) 부모교육은 교양 필수로 정해져서 모든 학생이 수강토록 해야 한다					
6) 대학 시기의 부모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7) 대학 졸업 후에도 사회교육기관에서 부모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다					
8) 기타 의견이 있다면? ()					

10. **(학교 이외 장소에서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학교수업 이외에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질문에 답해주시시오. **(고등학교 이후 지금까지 모든 기간에 대한 질문임)**

10-1. 어떤 계기로 받게 되었나요? _____

10-2. 시기: (나이)_____세

10-3. 교육기간: _____

10-4. 주최: ① 종교시설 ② 사회교육기관/상담기관 ③ 온라인강좌 ④ 군대 ⑤ 기타:_____

10-5. 교육담당: ① 상담사 ② 전문강사 ③ 의사 ④ 종교인 ⑤ 기타:_____

10-6. 내용(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하세요)

- ① 현대 가족의 이해 및 가정의 중요성
- ② 가족 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 ③ 부모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
- ④ 결혼관 및 양성평등의식
- ⑤ 성, 임신 출산 피임, 태교의 중요성
- ⑥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 ⑦ 아동발달(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등)에 관한 지식
- ⑧ 아동양육기술(수유, 영양 및 건강관리 등)
- ⑨ 기타:_____

10-7. 학교수업 이외에 받은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소감 (해당항목에 √표 해주십시오.)

항 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					
2) 이미 알고 있는 진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3) 지금 시기에 꼭 배워야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웠다					
4) 예비부모교육을 더 많이 받고 싶다					
5) 본인이 받은 교육 방식의 특장이 학교 내에서도 개설 되었으면 좋겠다					
5) 기타 의견이 있다면? ()					

11. 귀하가 배우고 싶은 예비부모교육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11-1. 언제, 어떠한 형식으로 받으면 좋을지 의견을 주신다면 무엇입니까?

()

다음은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에 관한 의견 조사입니다.
※자신의 고등학생 시기를 떠올리며 적절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2. 현행 고등학교의 기본교과에 '기술과 가정' 과목이 있습니다. 교과서의 한 장(chapter)은 '부모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결혼, 가정, 임신과 출산, 아동발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고등학교 시기에 이러한 내용을 배웠습니까?

- ① 배웠고 내용도 일부 기억이 남 (12-1번부터 응답하세요)
- ② 배운 것 같으나 내용이 전혀 기억나지 않음 (12-2번부터 응답하세요)
- ③ 교과목은 있었으나 부모교육은 배운 기억이 없음(13번부터 응답하세요)
- ④ 기술과 가정 교과목을 전혀 배우지 않았음(13번부터 응답하세요)
- ⑤ 기타 (13번부터 응답하세요)

14. 귀하는 고등학교 시기, 부모교육 관련한 내용을 **학교외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보건시간의 성교육, 개인적인 인터넷 정보활용 등은 제외함) 있다면, 어떤 계기였습니까?

- ① 종교단체의 활동
- ② 사회단체의 교육이나 활동 참여
- ③ 캠프 등 모임에서
- ④ 기타: _____
- ⑤ 없음

15.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적절히 나타내는 항목에 √표 해주십시오.

항 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은 꼭 필요하다					
2) 좋은 부모가 되는데 고등학생대상 예비부모교육은 도움이 될 것이다					
3) 기저귀 갈기, 아이 젖먹이기, 안아주는 법 등 아기 돌보기 실습시간이 필요하다					

16.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의 적정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한 학기
- ② 두 학기
- ③ 세 학기이상
- ④ 필요하지 않다

17.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 ① 현대 가족의 이해 및 가정의 중요성
- ② 가족 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 ③ 부모역할 및 책임, 양육의 어려움
- ④ 결혼관 및 양성평등의식
- ⑤ 성, 임신 출산 피임, 태교의 중요성
- ⑥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 ⑦ 아동발달(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등)에 관한 지식
- ⑧ 아동양육기술(수유, 영양 및 건강관리 등)
- ⑨ 기타(적어주세요): _____

18.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학교 교과수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재량수업 등 특별활동에서 다루어야 한다
- ③ 종교시설이나 사회·청소년 단체를 통해 배우는 게 좋다
- ④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 ⑤ 기타(적어주세요): _____

19. 예비부모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 ① 유치원/어린이집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결혼 전후 ⑦ 기타

20. 우리 사회 전반에 예비부모교육에의 기회(접근가능성)가 얼마나 제공되고 생각하십니까? 형식적·비형식적 예비부모교육으로 나누어 해당 항목에 √표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학교, 종교/사회단체, 전문상담소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프로그램화된 형식적 예비부모교육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일상생활을 통해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를 통해 접하는 넓은 의미의 비형식적 예비부모교육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3) 일상생활을 통해 또래친구나 TV, 인터넷 등을 통해 접하는 넓은 의미의 비형식적 예비부모교육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4) 생애주기별로 형식적 (예비)부모교육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이에 대한 수장이 제도적으로 의무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21. 아래의 예비부모교육 형태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학교, 종교/사회단체, 전문상담소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프로그램화된 형식적 예비부모교육
- ② 일상생활을 통해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를 통해 접하는 비형식적 예비부모교육
- ③ 일상생활을 통해 또래친구나 TV, 인터넷 등을 통해 접하는 비형식적 예비부모교육
- ④ (기타 의견: _____)

♣ 설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의견 조사(고등학생)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관련 정책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2010도 연구과제로 「예비부모교육 실태와 내실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모가 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받고 있는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내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와 개인정보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이오니, 정확한 응답과 솔직한 의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조사관련 문의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연구소 「예비부모교육 연구팀」

OOO 부연구위원 ☎ 02) 398 - 0000

OOO 부연구위원 ☎ 02) 398 - 0000

Screening Question

고등학교에서 기술·가정 교과목을 배웠습니까?

1) 예 --> 조사진행

2) 아니오 --> 조사중단

설문작성일

2010년 월 일

귀하 및 가족구성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소속학교	_____고등학교 _____학년	2.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3. 학교 유형	<input type="checkbox"/> 1) 인문계 <input type="checkbox"/> 2) 실업계 <input type="checkbox"/> 3) 예술계 <input type="checkbox"/> 4)기타:_____		
	<input type="checkbox"/> 1) 남녀공학 <input type="checkbox"/> 2) 남자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2) 여자 고등학교		
4. 거주지역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input type="checkbox"/> 1) 대도시 <input type="checkbox"/> 2) 중소도시 <input type="checkbox"/> 3) 읍·면 지역		
5. 경제수준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6. 종교	<input type="checkbox"/> 1) 개신교 <input type="checkbox"/> 2) 불교 <input type="checkbox"/> 3) 천주교 <input type="checkbox"/> 4)그 외 종교 <input type="checkbox"/> 5) 종교없음		

다음은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장래에 결혼을 할 계획입니까?

- ① 그렇다 (1-1번으로 가세요) ② 그렇지 않다 (1-2번으로 가세요)
 ③ 잘 모르겠다(1-2번으로 가세요)

1-1. 희망하는 결혼연령은 대략 몇 세입니까? _____ 세

1-2. 결혼을 희망하지 않거나 불확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결혼생활과 개인적인 자유로운 삶을 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2) 결혼으로 인한 출산과 육아 등이 힘들 것 같아서
 3) 결혼으로 인한 인간관계(시댁, 처가 등)가 부담스러워서
 4) 기타(자유로이 적어주세요: _____)

2. 귀하는 장래에 자녀를 낳아 키울 계획입니까?

- ① 그렇다 (2-1번부터 응답, 2-4는 제외) ② 그렇지 않다 (2-4번부터 응답)
 ③ 잘 모르겠다(2-4번부터 응답)

2-1. 미래에 여러분이 갖고자 희망하는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1) 1명 2) 2명 3) 3명 4) 4명이상

2-2. 언제쯤 첫 아이를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_____ 세

2-3. 장래에 자녀를 갖고자하는 경우, 자녀의 선호하는 성별이 있습니까?
 1) 남아 2) 여아 3) 상관없음

2-4. 자녀를 낳아 키울 계획이 없거나 불확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개인적인 자유로운 삶이 희생될 것 같아서
 2) 출산과 육아 등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3) 경제적 부담이 클 것 같아서
 4) 직업을 갖고 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5) 기타(자유로이 적어주세요:)

3.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도에 √표 해주십시오.

항 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나는 결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자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출산과 육아보다는 직업적 성공을 먼저 이루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양육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더 부여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5) 국가는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7) 결혼 후에도 자녀를 낳지 않고 부부끼리만 사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8) 낙태는 법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낙태는 개인의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부모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장래 부모가 되어 자녀를 기르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음 ② 몇 번 있음 ③ 여러 번 있음

2. 귀하는 장래 자녀를 낳아 키우면 좋은 부모가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소양과 지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이나 요건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① 양육지식 및 기술
 ② 경제적 능력
 ③ 타고난 성품
 ④ 양육에 대한 가치관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_____

다음은 '예비부모교육'의 경험과 의견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비 부모교육이란?

▶ 예비부모교육의 정의

예비부모교육이란 장차 자녀를 키우게 될 사회구성원(청소년, 미혼 성인 등)이 부모로서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을 올바로 형성하고 실제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돕는 교육 활동을 의미합니다.

▶ 예비부모교육의 내용

예비부모교육은 성교육, 임신과 출산,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 자녀양육기술, 부모됨의 준비와 책임감, 부모역할수행,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예비부모교육의 유형

협회의 예비부모교육이 학교나 종교/사회단체, 전문상담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과과정에 의한 교육 등 '형식적(formal) 교육'을 가리킨다면, 넓은 의미의 예비부모교육은 TV, 인터넷, 쉽게 접하는 책자와 매체, 가족이나 친지와 지인, 또래 집단을 통해 접하는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 본 설문에서 의미하는 '예비부모교육'은 위의 예비부모교육의 종류(유형) 중 협회의 부모교육 즉, 학교나 종교/사회단체, 전문상담소, 교육기관 등에서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리킵니다. 이에 유의하여 답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내

1. 여러분은 '기술 가정' 교과목을 배우고 있거나 이미 배웠습니까?
 ①그렇다 (**2번**으로 가세요) ②아니다(**6번**으로 가세요)
2. '기술 가정' 교과목 내용 중 결혼과 육아, 부모됨, 부모교육, 출산과 육아 등의 내용을 배웠습니까?
 ①그렇다 (**3번**으로 가세요) ②아니다 (**5번**으로 가세요)

3. 결혼, 출산, 육아, 부모됨 등에 대해 배운 '기술·가정' 교과목에 대해 다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 1) 연 제: _____학년 _____학기
- 2) 가장 흥미로웠던 내용 (**1가지만** 선택하세요)
- ① 가족의 이해 및 가정의 중요성
 - ② 부모자녀 관계 및 의사소통
 - ③ 부모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
 - ④ 결혼관 및 양성평등의식
 - ⑤ 성, 임신 출산 피임, 태교의 중요성
 - ⑥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 ⑦ 아동발달(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등)에 관한 지식
 - ⑧ 아동양육기술(수유, 영양 및 건강관리 등)
 - ⑨ 기타:()

3) 아기돌보기와 관련한 실습이 이 수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①그렇다 ②아니다

3-1) 있었다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횟수 _____회 내용: ①안아주기 ②수유 ③기저귀 갈기
 ④목욕시키기 ⑤기타:()

4. 기술·가정과 같은 교과목 수업을 통해 받은 예비부모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음 각 문항에 대해 해당 항목에 √표 해주십시오.

항 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					
2)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진부한 면이 있었다					
3) 지금 꼭 배워야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웠다					
4) 예비부모교육 관련내용을 더 심층적으로 배우고 싶다					
5) 부모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6) 현재의 나 자신을 이해하고 되돌아보는데 도움이 되었다					
7) 주요과목이 아니므로 별로 관심이 없었다					
8) (교과수업에서) 강의 외 다양한 수업방식의 구성이 필요하다					
9) (교과수업 외) 재량, 특활, 체험학습 등으로도 포함되면 좋겠다					
10) 수업을 통해 배운 예비부모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5. 여러분은 기술·가정 교과목 수업 외에 학교에서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계기였습니까?

- ① 없다 ② 보전수업시간 ③ 유아교육·보육 수업시간 ④ 재량수업 ⑤ 특활시간
 ⑥ 일회성 특강 ⑦ 상담실 프로그램 중 ⑧ 기타: _____

※ 학교 외

6. 여러분은 지금껏 학교 외에 다른 곳에서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7번으로 가세요) ② 없다(8번으로 가세요)

7. 학교 외의 예비부모교육은 어떤 것이었는지 다음 질문에 답해주시시오.

- 1) 어떤 계기로 받게 되었나요? ① 부모님 권유로 ② 친구의 권유로 ③ 선생님 권유로
 ④ 필요성을 느껴서 ⑤ 우연히 ⑥ 기타: _____
- 2) 언 제: _____ 학년때 횟수: _____
- 3) 어 디 서: ① 종교 단체/시설 ② 청소년 단체/기관 ③ 전문상담소
 ④ 병원 ⑤ 기타: _____
- 4) 누 가: ① 담당교사 ② 전문강사 ③ 의사 ④ 종교인
 ⑤ 기타: _____
- 5) 내용: (해당내용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① 가족의 이해 및 가정의 중요성
 ② 부모자녀 관계 및 의사소통
 ③ 부모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
 ④ 결혼관 및 양성평등의식
 ⑤ 성, 임신 출산 피임, 태교의 중요성
 ⑥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⑦ 아동발달(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등)에 관한 지식
 ⑧ 아동양육기술(수유, 영양 및 건강관리 등)
 ⑨ 기타: _____

8. 예비부모교육 전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나타내는 항목에 √표 해주십시오.

항 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소양을 기르는데 예비부모교육은 도움이 된다					
2) 향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예비부모교육 수업이 있다면 받을 의향이 있다.					
3) 향후 대학교에 간다면, 부모교육 관련 강의를 신청해서 들을 의향이 있다.					
4) 향후 직장인이 되었을 때, 기회가 된다면 부모교육 수업을 받을 의향이 있다.					
5) 기저귀갈기, 젖먹이기, 안아주기 등 아기돌보기 실습을 배울 필요가 있다.					
6) 예비부모교육 특강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					
7) 상담시간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8-1. 위 질문 2), 3), 4) 향후 수업을 들을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 '전혀/별로 그렇지 않다(①②)'에 응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 ① 들으면 좋겠지만 시간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 ② 수업내용이 그다지 재미있거나 유익할 것 같지 않아서
- ③ 이미 배운 내용으로 충분하므로
- ④ 앞으로는 수업을 받지 않고 혼자 공부하면 되므로
- ⑤ 기타: _____

9. (운전면허증이나 예비군 훈련과 같이) 예비부모에 해당하는 일정연령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일정 시간 (예비)부모교육 이수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반대한다
- ② 찬성한다
- ③ 기타: _____

10. 끝으로 우리나라 예비부모교육 실시 및 향후 계획 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견이나 바람, 혹은 정부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의견 조사(성인대상)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관련 정책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2010도 연구과제로 「예비부모교육 실태와 내실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모가 될 미혼 또는 자녀가 없는 기혼의 남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받고 있는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내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와 개인정보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이오니, 정확한 응답과 솔직한 의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조사관련 문의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연구소 「예비부모교육 연구팀」

OOO 부연구위원 ☎ 02) 398 - 0000

OOO 부연구위원 ☎ 02) 398 - 0000

귀하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교육기관	_____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나이	만 _____세	연락처	- - ※응답에 문의사항이 있을 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학력	<input type="checkbox"/> 1)중졸이하 <input type="checkbox"/> 2)고졸 <input type="checkbox"/> 3)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4)4년제대졸 <input type="checkbox"/> 5)대학원 이상		
거주지역	<input type="checkbox"/> 1)대도시 <input type="checkbox"/> 2)중소도시 <input type="checkbox"/> 3)읍·면		
결혼여부	<input type="checkbox"/> 1) 기혼(자녀있음) <input type="checkbox"/> 2)기혼(자녀없음) <input type="checkbox"/> 3)미혼(자녀있음) <input type="checkbox"/> 4) 미혼(자녀없음)		
직업	<input type="checkbox"/> 1) 농업·어업·임업·축산업·원예업 <input type="checkbox"/> 2) 자영업 (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업소주인 및 가족종사자, 개인택시운전자, 약사 등) <input type="checkbox"/> 3) 판매·서비스직 (상점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input type="checkbox"/> 4) 기능·숙련공 (중장비/트럭운전기사, 전자/가전제품 A/S 기술자, 선반·목공, 숙련공 등) <input type="checkbox"/> 5) 일반작업직 (토목관계의 현장작업, 청소, 수위 등) <input type="checkbox"/> 6) 사무·기술직 (일반회사사무직, 기술직, 교사, 웹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input type="checkbox"/> 7) 경영·관리직 (5급이상의 고급공무원, 교장, 기업체 부장 이상의 직위 등) <input type="checkbox"/> 8) 전문·자유직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언론인, 고소득 프리랜서 등) <input type="checkbox"/> 9) 학생, 전업주부, 무직, 기타		
월 평균 소득수준 (개인소득)	<input type="checkbox"/> 1) 1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2) 100~200만원이하 <input type="checkbox"/> 3) 200~300만원이하 <input type="checkbox"/> 4) 300~4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 400만원 이상		
종교	<input type="checkbox"/> 1) 개신교 <input type="checkbox"/> 2) 불교 <input type="checkbox"/> 3) 천주교 <input type="checkbox"/> 4) 기타종교 <input type="checkbox"/> 5) 종교없음		

다음은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1. (미혼인 경우) 언제 결혼할 예정이십니까? 개월 후
(기혼인 경우) 언제 아이가 태어날 예정입니까? _____ 개월 후
2. 귀하는 영유아(만0-5세)기 아동을 일정 기간(반년절 이상) 혼자서 돌본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3번**으로 바로 가세요) ② 있음 (**2-1번, 2-2번**에 답한 후 **3번**으로 가세요)

2. 귀하는 장래 자녀를 낳아 키우면 좋은 부모가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소양과 지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이나 요건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① 양육지식 및 기술
 ② 경제적 능력
 ③ 타고난 성품
 ④ 양육에 대한 가치관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_____

다음은 '예비부모교육'의 경험과 의견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비 부모교육이란?

▶ **예비부모교육의 정의**
 예비부모교육이란 장차 자녀를 키우게 될 사회구성원(청소년, 미혼 성인 등)이 부모로서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하고 실제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돕는 교육 활동을 의미합니다.

▶ **예비부모교육의 내용**
 예비부모교육은 성교육, 임신과 출산,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 자녀양육기술, 부모됨의 준비와 책임감, 부모역할수행,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예비부모교육의 유형**
 협의의 예비부모교육이 학교나 종교/사회단체, 전문상담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과과정에 의한 교육 등 '형식적(formal) 교육'을 가리킨다면, 넓은 의미의 예비부모교육은 TV, 인터넷, 쉽게 접하는 책자와 매체, 가족이나 친지와 지인, 또래 집단을 통해 접하는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 본 설문에서 의미하는 '예비부모교육'은 위의 예비부모교육의 종류(유형) 중 협의의 부모교육 즉, **학교나 종교/사회단체, 전문상담소, 교육기관 등에서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리킵니다. 이에 유의하여 답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지금껏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 ① 있다 (아래의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없다 (**3번** 질문으로 바로 가십시오)

1-1.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어디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초·중·고교시절의 보건시간 성교육 등은 제외하십시오)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고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② 대학교 |
| <input type="checkbox"/> ③ 종교시설 | <input type="checkbox"/> ④ 사회교육기관 또는 상담기관 |
| <input type="checkbox"/> ⑤ 군대 | <input type="checkbox"/> ⑥ 직장 내 교육 |
| <input type="checkbox"/> ⑦ 병원, 보건소 | <input type="checkbox"/> ⑧ 국가나 지자체 관련 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 | |

2.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질문에 답해주시시오. (같은 기관에서 2회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 가장 최근에 교육받은 것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제외하십시오.) * 2-4, 2-5, 2-6번은 각각 아래 □ 속의 보기1, 보기2, 보기3에서 찾아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구분	2-1. 수강계기	2-2. 수강시기	2-3. 교육회수	2-4. 교육담당 (보기1)	2-5. 교육내용 (보기2)	2-6. 평 가 (보기3)
a. 고등학교	()	만 ___세	총___회			
b. 대학교	()	만 ___세	총___회			
c. 종교시설	()	만 ___세	총___회			
d. 사회교육기관/ 상담기관	()	만 ___세	총___회			
e. 정부 기관(건강 가정지원센터 등)	()	만 ___세	총___회			
f. 군대	()	만 ___세	총___회			
g. 직장 내 교육	()	만 ___세	총___회			
h. 병원, 보건소	()	만 ___세	총___회			
i. 기타:_____	()	만 ___세	총___회			

<보기1> 교육담당 : ① 상담사 ② 전문강사 ③의사 ④ 종교인 ⑤ 교사 ⑥ 기타:_____

<보기2> 교육내용(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하세요)

① 가족의 이해 및 가정의 중요성	②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③ 부모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	④ 결혼관 및 양성평등의식
⑤ 성, 임신 출산 피임, 태교의 중요성	⑥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⑦ 아동발달(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등)에 관한 지식	⑧ 아동양육기술(수유, 영양 및 건강관리 등)
⑨ 기타:_____	

<보기3> 유익성 평가
 ① 전혀 유익하지 않았다 ② 별로 유익하거나 흥미롭지 않았다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유익하고 흥미로웠다 ⑤ 매우 유익하고 좋았다

3.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소양과 성품, 지식을 기르는데 예비부모교육과 같은 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②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자녀 출산이전까지의 개인 생애에서 볼 때 예비부모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비부모교육 내용 각각에 대해 적절한 시기를 아래의 <보기>에서 찾아 () 속에 그 번호를 적으십시오.

예비부모교육 내용	교육 적정 시기
4-1) 가족의 이해 및 가정의 중요성	()
4-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
4-3) 부모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	()
4-4) 결혼관 및 양성평등의식	()
4-5) 성, 임신 출산 피임, 태교의 중요성	()
4-6)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
4-7) 아동발달(인지, 정서, 사회성 등)에 관한 지식	()
4-8) 아동양육기술(수유, 영양 및 건강관리 등)	()

<보기> 예비부모교육 적정 시기
 ① 취학전 영유아기 ② 초등학교 시기 ③ 중학생 시기 ④ 고등학교 시기
 ⑤ 대학생 시기 ⑥ (남자인 경우) 군 복무 기 ⑦ 2,30대 미혼 시기
 ⑧ 결혼전 데이트 시기 ⑨ 결혼직후 임신 이전 신혼기 ⑩ 임신기

5.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예비부모교육에의 기회가 얼마나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표로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학교, 종교단체, 전문상담소, 정부 단체 등을 통한 체계적 예비부모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일상생활을 통해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를 통해 접하는 넓은 의미의 예비부모교육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일상생활을 통해 TV, 인터넷 등을 통해 접하는 넓은 의미의 예비부모교육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아래의 예비부모교육 형태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학교, 종교/사회단체, 전문상담소, 지역센터 등을 통한 체계적 예비부모교육
 ②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님, 가족 등을 통해 접하는 넓은 의미의 예비부모교육
 ③ TV, 인터넷 등을 통해 접하는 넓은 의미의 예비부모교육
 ④ 군대, 직장 등 소속 기관에서 구성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예비부모교육
 ⑤ (기타 의견: _____)

다음은 참여하고 계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관련 질문입니다.

1.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① 지인의 소개로
 ② (예비) 배우자를 통해
 ③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④ 인터넷 검색을 통해
 ⑤ 홍보물을 보고
 ⑥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으므로
 ⑦ 기타: _____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예비) 배우자가 원해서
 ② 앞으로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③ 앞으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④ 교양을 쌓으려고
 ⑤ 타인의 권유로
 ⑥ 기타

3.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의 교육에는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① 있다(3-1번에 답하세요)
- ② 없다(4번으로 바로 가세요)

3-1.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아시는 대로 적어 주십시오.

4.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소감은 어떠합니까?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모르던 것을 많이 알게 되어 매우 유익했다
-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다
- ③ 대부분 알고 있던 내용이었으나 그런대로 좋았다
- ④ 새로운 내용이 없어 별로 흥미롭지 않았다

5.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예비부부, 예비부모 관련 주제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반드시 참여하고 싶다
- ② 여건이 허락한다면 참여하고 싶다
- ③ 한 번의 참여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6.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와 같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지역 센터에서 예비부부, 예비부모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응답해주세요

항 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정부지원 지역센터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지역센터에서 하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을 현재보다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지역센터보다는 수요자들이 개별적으로 병원이나 상담기관, 종교시설 또는 사회단체를 통해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건강가정지원센터)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순위에 답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보기>

- | | |
|----------------------|------------------|
| ①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 ② 전문교육인력의 양성 |
| ③ 교육기회의 확대 및 접근성 증대 | ④ 홍보 |
| ⑤ (연령에 따른) 교육 대상의 확대 | ⑥ 교육기관의 확보 및 다양화 |
| ⑦ 기타: _____ | |

8. 끝으로 우리나라 예비부모교육 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견이나 바람, 혹은 정책 제언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의견 조사(교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관련 정책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연구소로, 한국교육개발원 부설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2010도 연구과제로 「예비부모교육 실태와 내실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모가 될 청소년을 지도하시는 **기술·가정 교과목 담당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내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 설문지를 귀 학교의 기술·가정 교과 담당 선생님 중 가장 경력이 높은 한 분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와 개인정보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이오니, 정확한 응답과 솔직한 의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한국교육개발원 부설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조사관련 문의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연구소 「예비부모교육 연구팀」

OOO 부연구위원 ☎ 02) 398 - 0000

OOO 부연구위원 ☎ 02) 398 - 0000

선생님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연 령	만_____세	2. 성 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3. 근무학교 특성	<input type="checkbox"/> 1) 인문계 <input type="checkbox"/> 2) 실업계 <input type="checkbox"/> 3) 예술계 <input type="checkbox"/> 4)기타:_____		
	<input type="checkbox"/> 1) 남녀공학 <input type="checkbox"/> 2) 남자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3) 여자 고등학교		
4. 학교위치	<input type="checkbox"/> ① 서울 <input type="checkbox"/> ② 부산 <input type="checkbox"/> ③ 대구 <input type="checkbox"/> ④ 인천 <input type="checkbox"/> ⑤ 광주 <input type="checkbox"/> ⑥ 대전 <input type="checkbox"/> ⑦ 울산 <input type="checkbox"/> ⑧ 경기 <input type="checkbox"/> ⑨ 강원 <input type="checkbox"/> ⑩ 충북 <input type="checkbox"/> ⑪ 충남 <input type="checkbox"/> ⑫ 전북 <input type="checkbox"/> ⑬ 전남 <input type="checkbox"/> ⑭ 경북 <input type="checkbox"/> ⑮ 경남 <input type="checkbox"/> ⑯ 제주		
	<input type="checkbox"/> ① 대도시(인구 100만명 이상) <input type="checkbox"/> ② 중소도시(인구 100만명 미만) <input type="checkbox"/> ③ 군 지역		
5. 교사경력	_____년 _____개월		
6. 대학전공	_____학과(전공)_		
7. 담당교과 및 학년	교과목명: _____/ _____학년 대상		
	교과목명: _____/ _____학년 대상		
	교과목명: _____/ _____학년 대상		

현행 예비부모교육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 학교에서는 '기술·가정' 교과목이 몇 학년을 대상으로 수업되고 있습니까?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1학년과 2학년
 ⑤ 1학년과 3학년 ⑥ 2학년과 3학년 ⑦ 1, 2, 3학년 모두

10. 만일 정책적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교육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우선 순위에 따라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 ① 가족의 이해 및 가정의 중요성
- ② 부모자녀 관계 및 가족간 의사소통
- ③ 부모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
- ④ 결혼관 및 양성평등의식
- ⑤ 성, 임신 출산 피임, 태교의 중요성
- ⑥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 ⑦ 아동발달(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등)에 관한 지식
- ⑧ 아동양육기술(수유, 영양 및 건강관리 등)
- ⑨ 기타:(_____)

11.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에 따라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 ① 학교 교과수업
- ② 학교 재량수업 등 비교과 특별활동이나 특강
- ③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종교시설 등의 교육
- ④ 전문기관이나 지역 센터(예: 청소년 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 ⑤ 기타 방식(의견: _____)

12. 만일 교과목 이외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한다면, 누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 교과목 담당 선생님
- ② 외부 전문 강사
- ③ 상담사 또는 상담교사
- ④ 부모님
- ⑤ 상관없다

13. 예비부모교육은 언제부터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유치원/어린이집 과정에서부터
- ② 초등학교
- ③ 중학교
- ④ 고등학교
- ⑤ 대학교
- ⑥ 성인기 이후 사회교육
- ⑦ 기타(_____)

14. 끝으로 우리나라 예비부모교육 실시 및 향후 정책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의견이나 바람, 혹은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표 1> 수강소감(내용이 유익하고 도움됨)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0.0	1.6	20.3	34.4	43.8	100.0(64)	4.2	0.82	
성별									
남	0.0	0.0	26.1	30.4	43.5	100.0	4.17	0.834	-0.21
여	0.0	2.4	17.1	36.6	43.9	100.0	4.22	0.822	
지역									
수도권	0.0	0.0	41.2	23.5	35.3	100.0	3.94	0.899	1.80
충청권	0.0	0.0	16.7	0.0	83.3	100.0	4.67	0.816	
전라권	0.0	0.0	12.5	12.5	75.0	100.0	4.63	0.744	
경북권	0.0	0.0	11.1	55.6	33.3	100.0	4.22	0.667	
경남권	0.0	0.0	20.0	60.0	20.0	100.0	4.00	0.667	
강원권	0.0	11.1	11.1	66.7	11.1	100.0	3.78	0.833	
대학유형									
4년제	0.0	2.0	23.5	35.3	39.2	100.0	4.12	0.840	-1.68
2/3년제	0.0	0.0	7.7	30.8	61.5	100.0	4.54	0.660	
전공									
인문/사회/사범	0.0	0.0	20.0	32.5	47.5	100.0	4.28	0.784	0.41
이공/의학	0.0	4.6	21.7	34.8	39.1	100.0	4.09	0.900	
예체능/기타	0.0	0.0	0.0	100.0	0.0	100.0	4.00		

<부표 2> 수강소감(대학생 대상 교육으로 충분함)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1	4.7	35.9	31.3	25.0	100.0(64)	3.7	1.00	
성별									
남	4.3	8.7	39.1	21.7	26.1	100.0	3.57	1.121	-0.82
여	2.4	2.4	34.1	36.6	24.4	100.0	3.78	0.936	
지역									
수도권	0.0	5.9	35.3	47.1	11.8	100.0	3.65	0.786	2.07
충청권	0.0	0.0	16.7	33.3	50.0	100.0	4.33	0.816	
전라권	0.0	0.0	12.5	62.5	25.0	100.0	4.13	0.641	
경북권	0.0	11.1	33.3	22.2	33.3	100.0	3.78	1.093	
경남권	20.0	0.0	50.0	20.0	10.0	100.0	3.00	1.247	
강원권	0.0	11.1	55.6	11.1	22.2	100.0	3.44	1.014	
대학유형									
4년제	2.0	5.9	43.1	29.4	19.6	100.0	3.59	0.942	-1.85
2/3년제	7.7	0.0	7.7	38.5	46.2	100.0	4.15	1.144	
전공									
인문/사회/사범	0.0	2.5	37.5	23.5	27.5	100.0	3.85	0.864	1.26
이공/의학	8.7	8.7	30.4	30.4	21.7	100.0	3.48	1.201	
예체능/기타	0.0	0.0	100.0	31.3	0.0	100.0	3.00	-	

<부표 3> 수강소감(진부한 내용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9	29.7	39.1	15.6	4.7	100.0(64)	2.7	1.01	
성별									
남	13.0	30.4	34.8	13.0	8.7	100.0	2.74	10137	0.03
여	9.8	29.3	41.5	17.1	2.4	100.0	2.73	0.949	
지역									
수도권	17.6	17.6	35.3	23.5	5.9	100.0	2.82	1.185	0.68
충청권	16.7	50.0	33.3	0.0	0.0	100.0	2.17	0.753	
전라권	0.0	50.0	37.5	12.5	0.0	100.0	2.63	0.744	
경북권	0.0	55.6	22.2	11.1	11.1	100.0	2.78	1.093	
경남권	0.0	30.0	40.0	20.0	10.0	100.0	2.10	0.994	
강원권	22.2	0.0	66.7	11.1	0.0	100.0	2.67	1.000	
대학유형									
4년제	5.9	27.5	43.1	17.6	5.9	100.0	2.90	0.964	2.76**
2/3년제	30.8	38.5	23.1	7.7	0.0	100.0	2.08	0.954	
전공									
인문/사회/사범	10.0	30.0	42.5	17.5	0.0	100.0	2.68	0.888	2.71
이공/의학	13.0	30.4	34.8	13.0	8.7	100.0	2.74	1.137	
예체능/기타	0.0	0.0	0.0	0.0	100.0	100.0	5.00	-	

** p < .01

<부표 4> 수강소감(관련 과목 추가로 수강하고 싶음)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4.7	10.9	34.4	34.4	15.6	100.0(64)	3.5	1.04	
성별									
남	8.7	8.7	39.1	26.1	17.4	100.0	3.35	1.152	-0.61
여	2.4	12.2	31.7	39.0	14.6	100.0	3.51	0.978	
지역									
수도권	0.0	17.6	41.2	17.6	23.5	100.0	3.47	1.068	0.64
충청권	16.7	0.0	33.3	16.9	33.3	100.0	3.50	1.517	
전라권	0.0	12.5	25.0	50.0	12.5	100.0	3.63	0.916	
경북권	0.0	0.0	44.4	33.3	22.2	100.0	3.78	0.833	
경남권	0.0	20.0	40.0	40.0	0.0	100.0	3.20	0.789	
강원권	22.2	11.1	11.1	55.6	0.0	100.0	3.00	1.323	
대학유형									
4년제	3.9	13.7	33.3	31.4	17.6	100.0	3.45	1.064	-0.03
2/3년제	7.7	0.0	38.5	46.2	7.7	100.0	3.46	0.967	
전공									
인문/사회/사범	2.5	10.0	32.5	42.5	12.5	100.0	3.53	0.933	1.12
이공/의학	8.7	8.7	39.1	21.7	21.7	100.0	3.39	1.196	
예체능/기타	0.0	100.0	0.0	0.0	0.0	100.0	2.00	-	

<부표 5> 수강소감(교양필수로 지정해야 함)

단위: %, 점

구분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9.4	28.1	37.5	25.0	100.0(64)	3.8	0.93	
성별								
남	17.4	30.4	30.4	21.7	100.0	3.57	1.037	-1.40
여	4.9	26.8	41.5	26.8	100.0	3.90	0.860	
지역								
수도권	11.8	41.2	23.5	23.5	100.0	3.59	1.004	1.52
충청권	16.7	50.0	16.7	16.7	100.0	3.33	1.033	
전라권	12.5	12.5	50.0	25.0	100.0	3.88	0.991	
경북권	0.0	0.0	55.6	44.4	100.0	4.44	0.527	
경남권	10.0	30.0	50.0	10.0	100.0	3.60	0.843	
강원권	11.1	44.4	22.2	22.2	100.0	3.56	1.014	
대학유형								
4년제	11.8	33.3	29.4	25.5	100.0	3.69	0.990	-1.63
2/3년제	0.0	7.7	69.2	23.1	100.0	4.15	0.555	
전공								
인문/사회/사범	10.0	22.5	42.5	25.0	100.0	3.83	0.931	0.41
이공/의학	8.7	34.8	30.4	26.1	100.0	3.74	0.946	
예체능/기타	0.0	100.0	0.0	0.0	100.0	3.00	-	

<부표 6> 수강소감(대학시기 필요한 교육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6	6.3	15.6	50.0	26.6	100.0(64)	3.9	0.91	
성별									
남	4.6	8.7	21.7	39.1	26.1	100.0	3.74	1.096	-1.32
여	0.0	4.9	12.2	56.1	26.8	100.0	4.05	0.733	
지역									
수도권	0.0	5.9	29.4	41.2	23.5	100.0	3.82	0.883	0.67
충청권	0.0	0.0	16.7	66.7	16.7	100.0	4.00	0.632	
전라권	0.0	0.0	12.5	87.5	0.0	100.0	3.88	0.354	
경북권	0.0	0.0	11.1	44.4	44.4	100.0	4.33	0.707	
경남권	0.0	20.0	10.0	30.0	40.0	100.0	3.90	1.197	
강원권	11.1	11.1	11.1	44.4	22.2	100.0	3.56	1.333	
대학유형									
4년제	0.0	7.8	15.7	49.0	27.5	100.0	3.96	0.871	0.40
2/3년제	7.7	0.0	15.4	53.8	23.1	100.0	3.85	1.068	
전공									
인문/사회/사범	0.0	2.5	22.5	57.5	17.5	100.0	3.90	0.709	2.78
이공/의학	4.3	8.7	4.3	39.1	43.5	100.0	4.09	1.125	
예체능/기타	0.0	100.0	0.0	0.0	0.0	100.0	2.00	-	

<부표 7> 수강소감(졸업후 타기관에서 교육 받을 것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1	3.1	23.4	48.4	21.9	100.0(64)	3.8	0.92	
성별									
남	0.0	4.3	30.4	34.8	30.4	100.0	3.91	0.900	0.55
여	4.9	2.4	19.5	56.1	17.1	100.0	3.78	0.936	
지역									
수도권	5.9	5.9	41.2	29.4	17.6	100.0	3.47	1.0068	0.97
충청권	0.0	16.7	33.3	33.3	16.7	100.0	3.50	1.049	
전라권	0.0	0.0	12.5	50.0	37.5	100.0	4.25	0.707	
경북권	11.1	0.0	11.1	44.4	33.3	100.0	3.89	1.269	
경남권	0.0	0.0	20.0	70.0	10.0	100.0	3.90	0.568	
강원권	0.0	0.0	22.2	77.8	0.0	100.0	3.78	0.441	
대학유형									
4년제	3.9	3.9	21.6	43.1	27.5	100.0	3.86	1.000	0.59
2/3년제	0.0	0.0	30.8	69.2	0.0	100.0	3.69	0.480	
전공									
인문/사회/사범	0.0	5.0	17.5	55.0	22.5	100.0	3.95	0.783	1.19
이공/의학	8.7	0.0	30.4	39.1	21.7	100.0	3.65	1.112	
예체능/기타	0.0	0.0	100.0	0.0	0.0	100.0	3.00	-	

<부표 8> 교과목에 결혼 및 출산, 육아 등의 포함여부

단위: %(명)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chi^2(df)$
전체	92.6	7.4	100.0(770)	
성별				
남	90.6	9.4	100.0(385)	4.3(1)*
여	94.5	5.5	100.0(385)	
지역별				
대도시	90.9	9.1	100.0(372)	3.5(2)
중소도시	93.8	6.2	100.0(306)	
읍면	95.7	4.3	100.0(92)	
학교계열				
인문계	92.2	7.8	100.0(600)	0.7(1)
실업/예술계	94.1	5.9	100.0(170)	
학교형태				
남녀공학	92.1	7.9	100.0(380)	3.3(2)
남고	90.8	9.2	100.0(195)	
여고	95.4	4.6	100.0(195)	

*p < .05

<부표 9> 자녀를 양육하는 자신의 모습 상상해본 경험

단위: %(명)

구분	전혀없음	몇번있음	여러번있음	계	$\chi^2(df)$
전체	28.3	55.6	16.1	100.0(770)	
성별					
남	30.1	55.6	14.3	100.0(385)	2.5(2)
여	26.5	55.6	17.9	100.0(385)	
지역별					
대도시	33.1	54.6	12.4	100.0(372)	16.8(4)**
중소도시	22.2	59.5	18.3	100.0(306)	
읍면	29.3	46.7	23.9	100.0(92)	
학교계열					
인문계	29.3	54.0	16.7	100.0(600)	2.8(2)
실업/예술계	24.7	61.2	14.1	100.0(170)	
학교형태					
남녀공학	27.1	57.4	15.5	100.0(380)	4.2(4)
남고	33.3	49.7	16.9	100.0(195)	
여고	25.6	57.9	16.4	100.0(195)	

**p < .01

<부표 10> 본인이 좋은 부모가 될 것이라는 생각

단위: %(명)

구분	전혀	별로	보통	약간	매우	계	$\chi^2(df)$
전체	1.3	3.6	20.9	51.0	23.1	100.0(770)	
성별							
남	1.6	3.4	15.8	53.5	25.7	100.0(385)	13.2(4)*
여	1.0	3.9	26.0	48.6	20.5	100.0(385)	
지역별							
대도시	1.3	4.6	18.8	54.0	21.2	100.0(372)	11.2(8)
중소도시	1.6	2.6	21.9	46.7	27.1	100.0(306)	
읍면	0.0	3.3	26.1	53.3	17.4	100.0(92)	
학교계열							
인문계	1.5	3.5	21.3	51.0	22.7	100.0(600)	1.5(4)
실업/예술계	0.6	4.1	19.4	51.2	24.7	100.0(170)	
학교형태							
남녀공학	2.1	3.4	20.8	50.5	23.2	100.0(380)	8.1(8)
남고	0.5	3.6	16.9	54.9	24.1	100.0(195)	
여고	0.5	4.1	25.1	48.2	22.1	100.0(195)	

*p < .05

<부표 11> (1) 실습횟수

단위: %(명)

구분	1회	2회	3회	계	$\chi^2(df)$
전체	69.2	23.1	7.7	100.0(26)	
성별					
남	63.6	27.3	9.1	100.0(11)	0.3(2)
여	73.3	20.0	6.7	100.0(15)	
지역별					
대도시	50.0	41.7	8.3	100.0(12)	9.8(4)*
중소도시	92.3	0.0	7.7	100.0(13)	
읍면	0.0	100.0	0.0	100.0(1)	
학교계열					
인문계	75.0	25.0	0.0	100.0(16)	3.5(2)
실업/예술계	60.0	20.0	20.0	100.0(10)	
학교형태					
남녀공학	53.8	30.8	15.4	100.0(13)	4.1(4)
남고	100.0	0.0	0.0	100.0(3)	
여고	80.0	20.0	0.0	100.0(10)	

p < .05

<부표 12> (2) 실습유형(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안아주기	수유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기타	사례 수
전체	48.0	44.0	48.0	32.0	4.0	25
성별						
남	36.4	18.2	36.4	36.4	0.0	11
여	57.1	64.3	57.1	28.6	7.1	14
지역별						
대도시	50.0	8.3	33.3	50.0	0.0	12
중소도시	50.0	83.3	58.3	16.7	8.3	12
읍면	0.0	0.0	100.0	0.0	0.0	1
학교계열						
인문계	62.5	43.8	62.5	18.8	0.0	16
실업/예술계	22.2	44.4	22.2	56.6	11.1	9
학교형태						
남녀공학	38.5	38.5	38.5	38.5	0.0	13
남고	33.3	33.3	66.7	0.0	0.0	3
여고	66.7	55.6	55.6	33.3	11.1	9

<부표 13> 기술가정 교과목 수업 외 예비부모교육 받게 된 계기

단위: %(명)

구분	보건수업 시간	유아교육 보육수업 시간	재량수업	특활시간	일회성특강	상담실 프로그램 중	사례 수
전체	35.7	7.1	21.4	14.3	21.4	7.1	14
성별							
남	50.0	0.0	50.0	0.0	0.0	0.0	4
여	30.0	10.0	10.0	20.0	30.0	10.0	10
지역별							
대도시	42.9	0.0	28.6	14.3	14.3	14.3	7
중소도시	20.0	20.0	0.0	20.0	40.0	0.0	5
읍면	50.0	0.0	50.0	0.0	0.0	0.0	2
학교계열							
인문계	45.5	9.1	9.1	9.1	27.3	9.1	11
실업/예술계	0.0	0.0	66.7	33.3	0.0	0.0	3
학교형태							
남녀공학	25.0	0.0	37.5	25.0	12.5	12.5	8
남고	100.0	0.0	0.0	0.0	0.0	0.0	2
여고	25.0	25.0	0.0	0.0	50.0	0.0	4

<부표 14> 학교 외 다른 곳에서 예비부모교육 받은 경험유무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	$\chi^2(df)$
전체	0.4	99.6	100.0(770)	
성별				
남	0.0	100.0	100.0(385)	3.0(1) ⁺
여	0.8	99.2	100.0(385)	
지역별				
대도시	0.5	99.5	100.0(372)	0.6(2)
중소도시	0.3	99.7	100.0(306)	
읍면	0.0	100.0	100.0(92)	
학교계열				
인문계	0.5	99.5	100.0(600)	0.9(1)
실업/예술계	0.0	100.0	100.0(170)	
학교형태				
남녀공학	0.3	99.7	100.0(380)	3.0(2)
남고	0.0	100.0	100.0(195)	
여고	1.0	99.0	100.0(195)	

⁺p < .10

<부표 15> 일정 연령 이상의 예비부모에게 (예비)부모교육 이수 의무화 할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반대 한다	찬성한다	기타	계	$\chi^2(df)$
전체	38.6	60.9	0.5	100.0(770)	
성별					
남	39.7	60.0	0.3	100.0(385)	1.38(2)
여	37.4	61.8	0.8	100.0(385)	
지역별					
대도시	39.0	61.0	0.0	100.0(372)	3.79(4)
중소도시	38.2	60.8	1.0	100.0(306)	
읍면	38.0	60.9	1.1	100.0(92)	
학교계열					
인문계	38.7	60.8	0.5	100.0(600)	0.03(2)
실업/예술계	38.2	61.2	0.6	100.0(170)	
학교형태					
남녀공학	38.9	60.3	0.8	100.0(380)	1.86(4)
남고	39.5	60.5	0.0	100.0(195)	
여고	36.9	62.6	0.5	100.0(195)	

연구보고 2010-05

예비부모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발행일 2010년 12월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양동문화사 02) 2272-1767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 978-89-92396-60-8 93330